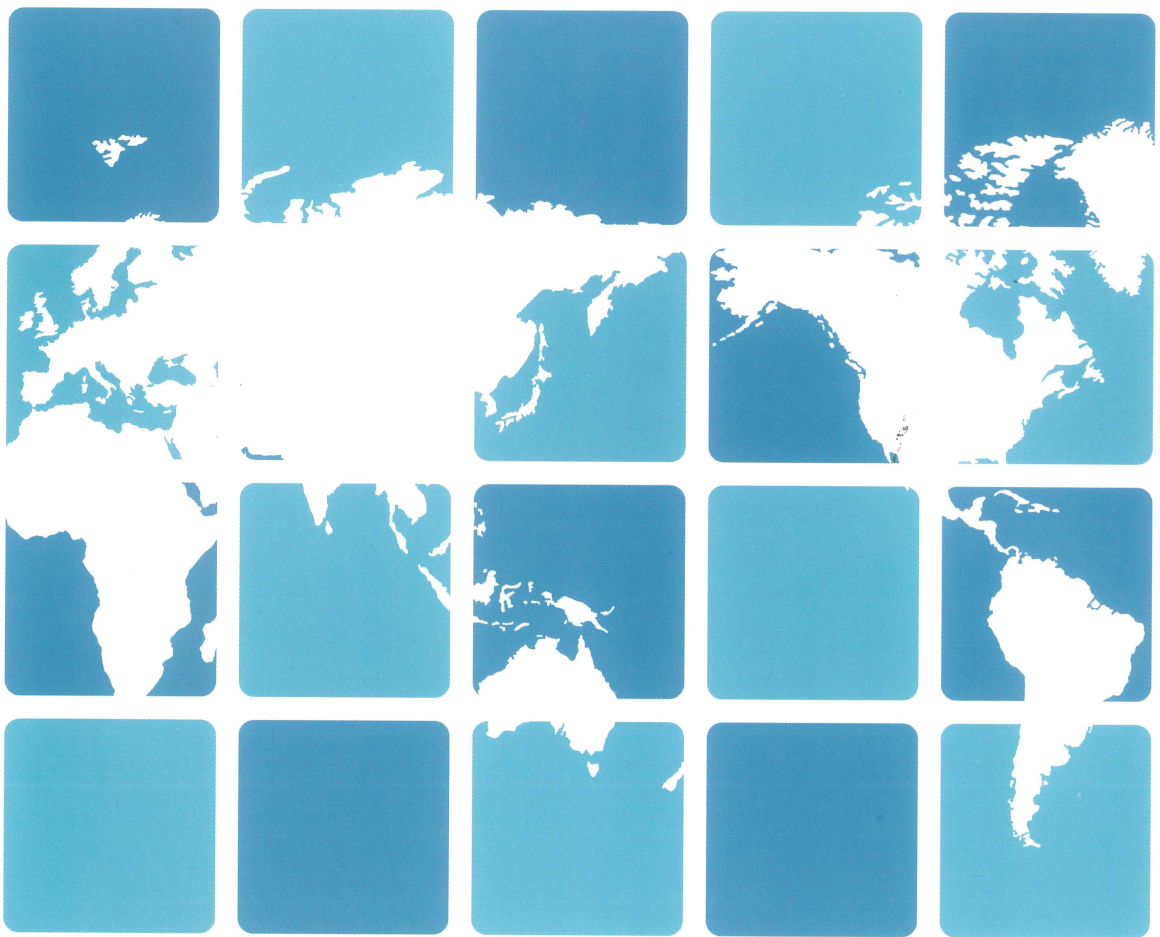


한국의 대 중남미 무상원조방안 연구

이 현 주



한국의 대 중남미 무상원조방안 연구

이 현 주

목차 | Contents

서론	9
----	---

제 1 장 지역개관	12
------------	----

1. 중남미의 정치, 경제 및 사회	12
2. 자원보유현황	14
3. 한-중남미 관계	16
4. 한-중남미 지역기구 관계	18

제 2 장 중남미 지역의 주요개발성과와 과제	22
--------------------------	----

1. 빈곤퇴치	23
2. 교육	25
3. 보건, 의료	27
4. 정보통신	29
5. 민주주의와 선정	31
6.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	36
7. 환경보호	37
8. 자연재해	39
9. 마약, 조직범죄 및 분쟁 예방·해결	41

제 3 장 주요OECD/DAC 공여국의 대	
-------------------------	--

중남미 무상원조	43
----------	----

1. 미국	44
1) 대 중남미 ODA의 규모와 비중	44
2) 협력대상국 현황	45
3) 대 중남미 정책방향 및 지원 분야	46
4) 사업형태	51
2. 스페인	54
1) 대 중남미 ODA의 규모와 비중	54
2) 협력대상국 현황	55
3) 대 중남미 정책방향 및 지원 분야	57

4) 사업형태	61
3. 일본	64
1) 대 중남미 ODA의 규모와 비중	64
2) 협력대상국 현황	65
3) 대 중남미 정책방향 및 지원 분야	66
4) 사업형태	73
4. 스웨덴	79
1) 대 중남미 ODA의 규모와 비중	79
2) 협력대상국 현황	80
3) 대 중남미 정책방향 및 지원 분야	82
4) 사업형태	84
5. 시사점	88

제 4 장 한국의 대 중남미 무상원조 90

1. 대 중남미 ODA의 규모 및 비중	90
2. 협력대상국 현황	92
3. 대 중남미 원조전략 및 지원 분야	94
4. 사업형태	100
5. 현행 대 중남미 무상원조사업의 개선필요사항 및 향후 추진방안	104

결론 110

참고문헌 113

웹사이트 117

약어 118

표 목차

표 1-1 소득별 중남미 국가분류	14
표 1-2 중남미 지역통합체와 우리의 관계	18
표 1-3 범 미주지역기구와 우리의 관계	20
표 2-1 2007년 기준 투명성지수 (2007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	32
표 3-1 미국의 대 중남미 무상ODA 10대 수원국(2006년) ·	46
표 3-2 미국의 대 중남미 원조예산안 내역(FY2008-2009)	50
표 3-3 미국의 대 중남미 해외봉사단(PeaceCorps) 파견현황	51
표 3-4 2005-2008 개발협력마스터플랜에 의한 스페인의 중남미 협력대상국 분류	56
표 3-5 스페인의 대 중남미 무상ODA 10대 수원국(2006년)	57
표 3-6 2005년 스페인의 대 중남미 ODA 전략 분야별 비중	58
표 3-7 일본의 대 중남미 무상ODA 10대 수원국(2006) ...	65
표 3-8 일본의 대 중남미 분야별 지원액(2006)	69
표 3-9 중남미지역 수자원 관련 공여국 현황(2004-2007) ...	70
표 3-10 중남미 지역에 대한 JICA의 기술협력 형태별 실적(2006년)	74
표 3-11 중남미 지역에 대한 JICA의 전문가 파견 기간별 실적(2006년)	75
표 3-12 스웨덴의 무상ODA 10대 수원국(2006년)	80
표 3-13 스웨덴의 대 중남미 원조 분야별 비중(2006년)	83
표 3-14 스웨덴의 대 중남미 사업형태별 비중(2006년)	84
표 3-15 스웨덴의 대 중미 지역 프로그램 섹터별 지원현황(2003-2006)	85
표 4-1 KOICA의 무상원조 협력대상국(2008년 10월 현재)	93
표 4-2 우리나라 대 중남미 무상ODA 협력국 순위(2007년)	93
표 4-3 무상원조 중점협력국 별 지원 분야	95
표 4-4 2004-2006년 KOICA의 다자기구 물자 및 현금지원	104

그래프 목차

그래프 1-1 2006년 1인당 GNI(PPP)비교	13
그래프 2-1 지역별 소득불평등 현황	22
그래프 2-2 지역별 국가 간, 국가 내 불평등을 비교	22
그래프 2-3 1980-2007년 중남미의 빈곤인구비율 변화	23
그래프 2-4 1990-2007년 절대빈곤인구감축 목표 달성현황 24	
그래프 2-5 기초교육률 비교(2006년)	25
그래프 2-6 소득별 5세 이하 아동사망률(1,000명당)	28
그래프 2-7 소득별 1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1,000명당)	28
그래프 2-8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한 인구의 비율(%)	33
그래프 2-9 재판관에게 금품을 제공, 형량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한 인구의 비율(%)	33
그래프 3-1 미국의 대 중남미 양자간 무상 ODA의 변화(2000-2006)	44
그래프 3-2 미국의 양자간 무상ODA 지역 분포(2006년)	45
그래프 3-3 스페인의 대 중남미 양자간 무상ODA의 변화(2000-2006)	54
그래프 3-4 스페인의 양자간 무상ODA 지역분포(2006년) ...	55
그래프 3-5 일본의 대 중남미 양자간 무상ODA의 변화(2000-2006)	64
그래프 3-6 일본의 양자간 무상ODA 지역분포(2006년)	65
그래프 3-7 JICA의 수자원 관련 무상원조 프로젝트 현황(1997-2006)	71
그래프 3-8 JICA의 수자원 관련 기술협력 현황(1997-2006) ·	71
그래프 3-9 스웨덴의 대 중남미 양자간 무상ODA의 변화(2000-2006)	79
그래프 3-10 스웨덴의 양자간 무상ODA 지역분포(2006)	79
그래프 3-11 스웨덴의 대 중남미 지원 경로별 분류(2006년) ·	87
그래프 4-1 한국의 대 중남미 양자간 무상ODA(1997-2007) ·	91
그래프 4-2 1991-2007 KOICA 대 중남미 지원 실적 추세	90
그래프 4-3 2004-2007년 KOICA의 대 중남미 원조 분야별 지원 실적	100
그래프 4-4 2007년 KOICA의 대 중남미 원조 중 사업형태별 비율	100

Box 목차

Box 1-1 1962년 해외이주법과 중남미 이민	16
Box 1-2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신탁기금(Trust Fund)	21
Box 3-1 미국의 대 중남미 원조 사례: '경제적 기회의 확대'부문	47
Box 3-2 미국의 대 중남미 원조 사례: '선정과 민주주의'부문	49
Box 3-3 미국의 대 중남미 원조 사례: '역내 평화와 안전구축'부문	49
Box 3-4 스페인의 대 중남미 개발협력 프로그램 (Programas de Cooperación)	60
Box 3-5 일-중남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	66
Box 3-6 수자원 관련 일본의 대 중남미 원조의 내용(1994-2003)	72
Box 3-7 제3국 전문가 파견을 통한 남미지역 남남협력의 예(1994-2004년)	76
Box 3-8 일-멕시코 파트너십 프로그램 (Japan-Mexico Partnership Programme)	76
Box 3-9 JICA와 국제기구 간 공동사업의 예: 과테말라 Chagas 질병퇴치 사업(2000-2010)	78
Box 3-10 JICA와 타 공여국 간 협력사업의 예: 온두라스 수학 및 초등학교 교육 개선사업(2003-2006)	78
Box 3-11 Country Focus 프로세스의 협력국 선정 기준	81
Box 3-12 스웨덴의 대 중미지역 섹터별 지원의 예: 환경 분야	85
Box 4-1 한-SICA 협력관계	95
Box 4-2 KOICA의 교육 분야 지원 사례	95
Box 4-3 KOICA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 사례	96
Box 4-4 KOICA의 행정제도 분야 지원 사례	96
Box 4-5 KOICA의 정보통신 분야 지원 사례	97
Box 4-6 KOICA의 지역개발 분야 지원 사례	98
Box 4-7 KOICA의 산업에너지 분야 지원 사례	98
Box 4-8 KOICA의 환경·여성 분야 지원 사례	99
Box 4-9 KOICA의 재난구호 분야 지원 사례	99
Box 4-10 대 중남미 KOICA-국제기구 공동연수	102



서론

오늘날 유엔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달성에 있어서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어오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확대이다. 선진 공여국들은 MDGs 달성에서 가장 뒤쳐져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ODA의 확대를 통해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아래, 이미 자국 원조액의 20-40%를 아프리카 지역에 할당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향후 중장기 ODA정책 수립 시에도 대 아프리카 원조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등, 대 아프리카 원조를 ODA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아프리카 방문 중에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2006년부터 향후 2년간 세 배로 증강하고 아프리카인 초청을 통한 개발경험 전수와 봉사단 및 의료단 파견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이 타 지역에 대한 원조의 감소이다. 최빈곤 지역인 아프리카가 국제사회의 원조대상 1순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몰라도, 아프리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타 지역의 개발상황과 과제에 대한 상대적인 외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07년 기준, 전체인구의 1/3이 하루 생활비 2달러 이하의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중남미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고, 교육, 기초보건 등의 개발지표가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여전히 빈곤퇴치, 소득불평등 해소, 민주주의 구현, 마약·부패척결, AIDS/HIV퇴치 등 다양한 개발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중남미의 현 주소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에너지외교의 일환으로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의 전통적인 전략지역인 아시아에 대한 원조규모 유지와 함께, 아프리카에 대해 원조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 중남미 무상원조규모를 양자간 ODA의 15%선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¹⁾. 최근 10여 년간 대 중남미 원조가 우리나라 양자간 무상 ODA 총액의 5-6%선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다.

1) 한국국제협력단 (2007), 2008-2010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

2015년 GNI대비 ODA규모가 정부 계획대로 현행 0.07%에서 0.25%로 늘어나면, 전체 ODA의 규모는 연간 33억 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 중남미 양자간 무상 ODA의 규모는 약 2.56억 불로 2007년의 3,714만 불에서 7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²⁾ 이렇듯 대 중남미 원조의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있어서, 우리는 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원조사업의 내실은 충분히 다져져 있는가. 하지만, 우리의 현재 대 중남미 원조는, 우리 ODA의 전통적 주력지역인 아시아, 그리고 2006년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이후 다각도에서 원조가 추진되어 온 아프리카에 비해 역사도 짧고 명확한 목표와 정책 가이드 라인이 아직 잡혀있지 않아 체계적인 전략의 부재속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중남미는, 타 지역과는 달리 역내 국가간 공통의 역사, 언어, 문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그만큼 지역적 접근이 효과적으로 적용,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의 대 중남미 지원을 되돌아봄으로서 역내 국가에 대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정책적 일원화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원조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남미 지역의 개발성과와 과제, 그리고 선진공여국의 지원에 우리의 대 중남미 원조를 비추보고 지금까지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형태를 통해 추진되어 왔으며, 주요 성과는 무엇이며,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또한 그 대응 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본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현행 대 중남미 무상원조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도, 혹은 그 효과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밝혀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신흥공여국으로서, 중남미 지역에 대해 인프라 건축, 물자지원, 기술협력, 재난구호 등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제공해 왔으며, 사업발굴과 추진에 있어서도 수원국의 니즈(needs)를 반영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의 빈곤감소 및 사회·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은 물론이다. 단지, 이제 2010년 OECD/DAC가입, 2015년까지 ODA/GNI 0.25%달성 목표를 통해 선진공여국으로 거듭나려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우리 무상협력사업을 되돌아보고, 이의 성과를 살펴보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서는 이런 과정의 일부분이며, 이를 통해 향후 선진공여국의 위상에 걸맞는 사업방식, 사업수행체계, 전략들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논의의 바탕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2) 2007년도 우리나라 ODA통계 확정치(재정경제부)의 구성 비중(양자간 ODA는 전체 ODA의 70.6%, 이 중 무상은 양자 간 중 73.2%)이 2015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하였음.

본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 1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인구, 지역협력적인 특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한-중남미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지원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이 지역의 주요 개발성과를 ①빈곤퇴치, ②교육, ③보건·의료, ④정보통신, ⑤민주주의와 선정, ⑥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⑦환경보호, ⑧자연재해, ⑨마약, 조직범죄 및 분쟁 예방·해결 9개 분야별로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개발과제를 밝혀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이와 같은 개발과제를, 선진 공여국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려한다. ①대 중남미 ODA의 규모와 비중, ②협력대상국 현황, ③대 중남미 정책방향 및 지원 분야, ④사업형태,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미국, 스페인, 일본, 스웨덴, 4개국의 대 중남미 원조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한국의 대 중남미 무상원조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우선 한국의 대 중남미 ODA의 규모와 비중, 현행 정책 및 지원 분야, 사업형태, 협력대상국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대 중남미 원조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주요 성과는 무엇이며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지역개관

1. 중남미의 정치, 경제 및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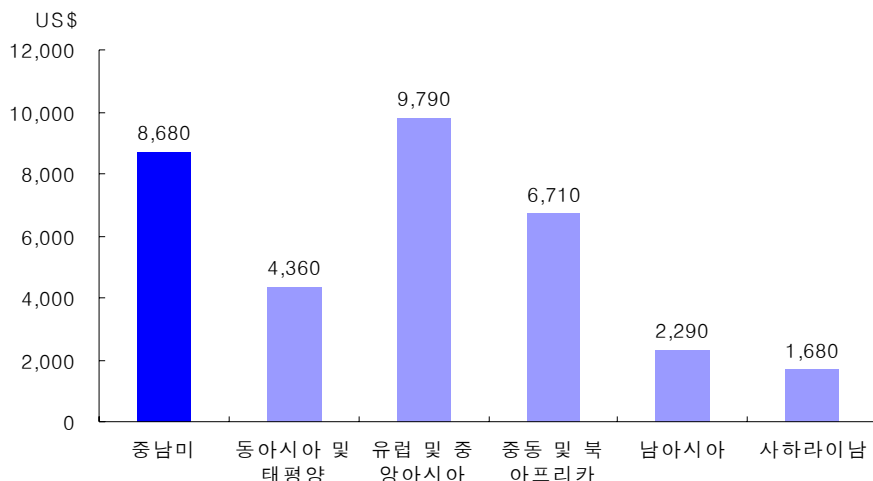
흔히 우리가 '중남미' 라고 부르는 지역은 지리적 구분에 의한 것으로 북 아메리카의 멕시코에서부터 남아메리카 칠레에 이르는 지역과 카리브 해상의 서인도 제도의 33개국을 일컫는다. 중남미라는 지역은 남미(Latin America), 중미(Central America), 그리고 카리브 해 지역(the Caribbean Region)의 세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통상적으로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말하는 '중남미' 와 동일한 표현으로 쓰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라는 표현은 미국, 캐나다의 'Anglo-America' 와 구별되는 문화적 의미가 강하며, 일반적으로 스페인 ·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그 문화를 공유하는 'Ibero-America' 의 개념이 들어있다.

중남미의 총면적은 2,055만km²로 전 세계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2006년 기준 5억 5600만 명이다. 15세기 말부터 시작된 스페인 식민통치의 영향으로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 역시 거의 모든 국가가 가톨릭교를 믿어 언어 · 종교 · 풍속 · 습관 등에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구는 인디오계 원주민, 아프리카계 이주민, 유럽계 백인과, 소수의 아시아계 이주민으로 구성 되어 있다.

중남미 지역 대다수의 나라는 공통의 식민지사와 독립 운동사를 거쳐 현재의 독립국이 되었다. 식민지 지배는 원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중산계층의 발달을 취약하게 했으며, 그 여파는 아직도 남아 지금도 지배층인 대지주와 노동자 간, 유럽계 백인과 원주민 간 빈부의 격차가 심한 편이다. 한편, 1970-80년대 쿠데타와 독재정치는 사회 상류계층 상호 간의 권력투쟁을 초래,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왔다. 현재는 지역전체가 민주주의 확립에 힘쓰는 등 정치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공했지만 식민시대와 군부독재의 잔재는 지금도 빈부격차, 사회적 불평등, 부정부패, 정부의 효율성 및 투명성 결여와 이로 인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으로 남아있다.

2006년 주요경제지표³⁾를 보면 1인당 GNI(PPP)는 \$8,680로서, 개발도상지역 중에서 유럽 및 중앙아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지역은 2007년 한해에만 5.1%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지난 4년간 줄곧 5%이상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며⁴⁾ 인플레이션률은 연 5%안팎이다.⁵⁾

〈그래프 1-1 2006년 1인당 GNI(PPP)비교〉



자료: 세계은행의 200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역내 국가의 소득분포를 보면, 아이티가 유일한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 이하 LDC)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중저소득국(Lower-Middle Income Country, 이하 LMIC)이거나 고중소득국(Upper-Middle Income Country, 이하 UMIC)이다. 우리나라의 협력대상국들은 대다수가 LMIC국가들이며, UMIC국가 중에서는 자메이카만 포함되어 있다.

3) 자료: 세계은행, 200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as of 11 April 2008)

4) 이는 1970년대 이후 최고의 성적으로서,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과 이에 따른 원자재 수출물량 증가에 다수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이러한 경제성장의 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 추산: 4.5%) [World Bank (2008), *America Latina and the Caribbean Regional Brief*, on website: <http://www.worldbank.org>]

5) 인플레이션 비율은 전체적으로 5% 안팎의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공공지출상승, 민간투자침체와 더불어 잠재적인 공급감소 등으로 2008년 두자리 숫자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 역시 이 지역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전체인구의 8%에 해당하는 47백만의 절대빈곤인구¹⁾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World Bank (2008), *America Latina and the Caribbean Regional Brief*, on website: <http://www.worldbank.org>]

〈표 1-1 소득별 중남미 국가분류〉

LDC 최빈국	LIC 저소득국	LMIC 중저소득국	UMIC 고중소득국
아이티	—	볼리비아* 니카라과* 콜롬비아* 도미니카(공)*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페루**	안티구아바부다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벨리즈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연) 파나마 그레나다 멕시코 세인트킷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쿠바 수리남 브라질 자메이카*

* 한국의 일반협력대상국(2008년 10월 현재)

**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2008년 10월 현재)

2008년 8월 29일 개정된 OECD/DAC 수원국 리스트 분류기준에 따른 것임. 2008년 보고분부터 적용됨.

자료: OECD (2008), *2008 Review of the DAC List of ODA Recipients*, DCD/DAC(2008)38, Paris: OECD

2. 자원보유현황

이 지역은 세계 3위 알루미늄과 5위 철광석 보유국인 브라질과 세계 6위 석유생산국 베네수엘라를 포함, 석유, 가스, 광석, 수목림 등을 망라하는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중남미 주요 산유국은 베네수엘라, 멕시코, 브라질, 에쿠아도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등이며 2005년 기준 이들의 총 석유 매장량과 일일 생산량은 1,172억 배럴과 1,071만 배럴로 각각 전 세계 9.8%, 13.2%에 달한다. 일일 생산량 만으로만 보면 중동과 구소련·동유럽 지역 다음이며, 아프리카보다 많다.⁶⁾ 국별로는 베네수엘라가 매장량 800억 배럴로 역내 국가 중 석유 최다보유국이며⁷⁾, 다음으로는 멕시코(137억), 브라질(118억), 에쿠아도르(51억)순이다.

또한, 중남미 지역은 전 세계 4.1%를 차지하는 7.43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05년 전 세계 생산량의 6.34%에 달하는 1,751억 입방미터를 생산했다. 나라별로는 베네수엘라가 매장량 4.32조 입방미터로 가장 많다.⁸⁾

이밖에도 이 지역은 전 세계 철 생산량의 17.3%, 구리 20.5%, 은 31.8%, 주석 20.9%, 알루미늄 16.6%, 니켈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⁹⁾, 역내 많은 지역이 미 탐사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높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2005년 기준 유지종자 생산량은 전 세계의 27.5%, 콩 생산은 45%, 설탕은 34.3%, 우유는 10.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소고기 수출의 27%, 콩기름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등¹⁰⁾ 광활한 농지와 좋은 기후조건, 싼 노동력의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농축산물 생산지역으로서도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사회주의 바람을 타고 석유를 비롯한 주요 광물자원의 국유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중남미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베네수엘라 최대 유전인 오리노코(Orinoco)벨트 개발권을 가지고 있던 외국계 회사의 경영권 대부분을 2007년 봄, 베네수엘라 정부가 환수하는 과정에서 미국계 정유회사 Exxon Mobil이 불복, 휴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법정다툼으로까지 가는 등, 이를 둘러싼 분쟁의 강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볼리비아, 페루 등도 일부 광물자원에 대해 국유화를 선언하는 등 이와 같은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6) 외교통상부 (2008), 중남미 주요 자원 현황, 중남미지역협력과

7) 베네수엘라 현재 총 석유 매장량은 800억 배럴로 세계 6위이나, 오리노코(orinoco) 벨트의 초중질유 함산 시 중동 전체 매장량과 맞먹는 3,000억 배럴 이상으로 추정된다. [외교통상부 (2008), 중남미 주요 자원 현황, 중남미지역협력과]

8) 외교통상부 (2008), 중남미 주요 자원 현황, 중남미지역협력과

9) 외교통상부 (2008), 중남미 주요 자원 현황, 중남미지역협력과

10) 외교통상부 (2008), 중남미 주요 자원 현황, 중남미지역협력과

3. 한-중남미 관계¹¹⁾

한국과 중남미의 관계는 1905년 구한말 1,033명의 한국인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 및 쿠바 등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시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는 대대병력을 파견하여 참전하였으며, 멕시코 등 수개국은 구호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교가 체결되기 이전에는 중남미 국가들의 우리나라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로 양 지역 간의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후 1959년 10월 한국-브라질 간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됨으로서 한국의 중남미 외교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 이후 한국은, 멕시코(1962년)를 필두로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아이티, 에쿠아도르, 과테말라, 자메이카(이상 1962년), 페루, 우루과이(이상 1963년), 베네수엘라(1965년) 등 주요 중남미 국가와 수교를 체결하였다.¹²⁾ 하지만 1960년대의 한-중남미간 외교는 남북대치상황 하에서 중남미 지역에 대한 북한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컸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경제적·문화적 협력구도를 구축하는데까지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Box 1-1 1962년 해외이주법과 중남미 이민

중남미 관계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한국인의 중남미 이민은 1962년 공포된 해외이주법을 시발점으로 본격화되었다. 1962년 12월 브라질에 농업이민 18세대 92명이 최초로 이주하였으며, 이러한 이민행렬은 1970년대, 보다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지로 이어지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지금 현재 10만 명가량의 이주민들과 그 후손이 중남미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출처 : 외교통상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orum For East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 웹사이트(<http://fealac.mofat.go.kr>)

11) 본 절의 주요 자료는 외교통상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orum For East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 웹사이트(<http://fealac.mofat.go.kr>) 내 '한-중남미 관계' 부분에서 인용

12) 그레나다(1974), 수리남(1975), 바베이도스(1977), 도미니카연방(1978), 세인트루시아(1979),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1979) 등 카리브해 국가와의 외교관계는 1970년대에 수립되었다. 1980년대에는 신생 독립국과 미수교국에의 외교망 확장에 주력하여 안티구아바루다(1981), 세인트키츠네비스(1983), 바하마(1985), 트리니다드토바고(1985) 및 벨리즈(1986)와 수교하였다. 쿠바와는 195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정식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이나 양국 간 통상화대 추세 등을 감안, 2005년 9월, 수도 하바나에 KOTRA사무소가 개설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관계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남미 국가와의 수교에 있어서 한국이 북한과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중남미에서의 실리에 입각한 경제외교 강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다. 1969년 수리남에 어업 기지를 설치하여 중남미의 새우 어장에 진출하였고, 파나마 등 6개국에는 수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합작투자와 건설 부문 진출을, 멕시코 등 16개국에는 섬유, 봉제 등의 분야를 위주로 다수의 기업이 진출하여 경제 및 기술 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1980년대에는 이 기간 급성장한 한국의 중화학공업과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가 형성되었고, 1990년대 들어오면서는 미국의 중미·카리브 지원계획과 안데스지역 무역특혜법 등의 영향으로 이 지역 시장 환경이 변하는 한편, 한국의 대 중남미 수출이 증가하고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활발해지는 등, 한-중남미 관계는 경제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견고히 구축되기 시작한다. 현재 중남미 지역은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무역흑자 시장으로서, 2008년 8월말까지 수출은 221억4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8%, 수익은 26.0% 늘어 92억8100만 불을 기록, 무역흑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3.8% 늘어난 128억 6100만 달러를 기록했다.¹³⁾ 우리의 주요 교역 품목 중 선박엔진, 액정디스플레이, 건설 중장비, 철강관 등의 수출이 최근 크게 늘어났고, 반대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도 대폭 늘어나는 등 경제교류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의 한-중남미 협력 관계는 한-칠레 FTA 체결 등 경제 통상 분야와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인적 교류, 국제기구협력,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개발협력의 기초가 마련된 것은 1970년대부터로 1970년 중남미 정부에 대한 기술 공여 사업이 추진된 것이 시발점이다. 이후 1980년대에는 중남미 대통령과 총리 등 정상급 인사의 활발한 교류에 힘입어, 다수의 중남미 국가와 과학기술 협정을 비롯한 문화협정, 어업협력협정 등이 체결됨으로서 양 지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이 작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이 설립, 본격적으로 대외무상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의 대 중남미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제4장 '한국의 대 중남미 무상원조'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13) 매일경제 (2008), '한국 최대 무역흑자시장: 중국→중남미', 2008년 9월 18일

4. 한-중남미 지역기구 관계

1980년대 중남미 전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바람은, 종래 통치세력이었던 군부가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탓에, 미국의 영향력에서 탈피하여 독자노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역내분쟁의 자체해결을 위해 외세 개입을 배제하고 역내 국가의 단결을 도모하였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UN, 미주기구(OAS), 비동맹회의 등 국제기구·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하나의 지역 그룹으로서 독자적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이러한 역내 외교 단합의 분위기는 1990년대 들어 외채 문제, 1차 상품 가격 하락, 선진국들의 구공산권 국가에 대한 경제지원 확대에 따른 대 중남미 지원감소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의 블록화를 통한 경제통합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역내 민주주의의 강화, 안보, 외교, 문화, 과학 분야에 대한 집단적 발전 능력 증진을 도모하며 단순한 경제공동체 이상의 통합관계를 이뤄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들 지역통합체와 세미나 개최, 협력기금제공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중미통합체제(SICA)와 관련해서는 2002년 이후 매년 한-SICA 대화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KOICA 무상원조 사업에서도 한-SICA 협력사업 차원에서 다수의 프로젝트 사업, 물자지원, 연수생 초청 등이 이루어져 왔다. 2008-2010년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에서 SICA 회원국에 대한 개발원조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들 지역통합체와의 개발협력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 중남미 지역통합체와 우리의 관계〉

명 칭	설립	목 적	회원국	대한국관계
남미공동시장, 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1995	◇ 남미 4국간의 EU형 공동시장 창설 ◇ 경제공동체를 넘어 EU형 정치통합도 추진 ◇ 주요 대외관계협력: FTAA 창설과정에 블록으로 참가; EU-Mercosur 자유무역지대 협상.	정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준회원국: 칠레, 볼리비아, 페루 옵서버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1997년 한-Mercosur 정책협의회 구성 이래 협의회, 세미나 등 개최

〈표 1-2 계속〉

명 칭	설립	목 적	회원국	대한국관계
중미통합체제, 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1993	◇ 역내 민주주의 강화 및 새로운 역내 안보 모델제시 ◇ 경제통합의 달성과 중미 경제협력 강화 ◇ 대외관계에서의 자결권 강화	정회원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파나마, 벨리즈 준회원국: 도미니카공화국 옵서버국: 스페인, 멕시코, 중국	2002.7 한국 외교부와 SICA 사무국과 한-SICA 협력기금 설립약정 체결 및 SICA에 15만불 규모 지원. 이후 매년 한-SICA 대화협의체 회의개최 중.
카리브 국가연합, ACS/AEC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1995	◇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분야 등 카리브 지역의 집단적 발전능력 강화 ◇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광역 경제권 형성	정회원국: 카리브해 지역과 중남미 25개국 준회원국: 역내 외국속령 15개국 옵서버: 스페인, 인도, 한국 등 16개국	1998.12 옵서버국으로 가입. 연례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 매년 옵서버자격으로 참석.
안데스 공동체, ANCOM (Andean Community)	1969	◇ 안데스 국가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 기구로 회원국 간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와 지역통합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카리브 공동시장, CARICOM (Caribbean Community)	1973	◇ 역내 경제개발과 카리브 공동시장 창설 ◇ 역내 국가 간의 외교정책 조율 ◇ NAFTA, FTAA 등 지역통합화 관련 카리브 국가들의 이익 공동 추구	정회원국: 카리브해 15개국 준회원국: 역내 외국속령 중 5개국 옵서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멕시코 등 9개국	2002년도 한-중남미 협력기금에서 CARICOM 협력기금 12만 불 지원 2006년 한-CARICOM 대화협의체 설립 이후 연례회의 개최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미주개발은행 등 중남미 국가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와 역외 국가도 포함시키는 범 미주 지역기구에 대해서도 재정적, 기술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표 1-3 범 미주지역기구와 우리의 관계〉

명 칭	설립	목 적	회원국	대한국관계
미주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미주지역 안보협력, 상호협력을 통한 경제, 사회, 문화발전 도모	미주 35개국 상임 옵서버 60개국(한국포함)	1981년 가입 이후 매년 연례총회에 대표단 파견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IDB)	1959	회원국의 경제, 사회개발에 필요한 금융지원	미주 28개국 역외 19개국(한국포함)	2005년 3월 가입 이후 2개의 자체 신탁기금(Trust Fund)과 1개의 공동기금 조성·운영
미주농업협력기구 Instituto Interamericano de Cooperación para la Agricultura (IICA)	1942	◇ IBRD 등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협력 사업에 대한 자문과 기술지도 ◇ WTO 농산물협정과 같은 다자간 협상 시 이해 조정	쿠바를 제외한 전 미주국가 옵서버 18개국(한국, 일본 포함)	농업전문가 파견 등 기술협력

Box 1-2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신탁기금(Trust Fund)

한국은 2005년 3월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한 이후 2개의 자체 신탁기금과 1개 공동기금을 조성·운영 중이다.

◇ Knowledge Partnership Korea Fund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과학, 기술혁신 분야 프로젝트 창안과 수행을 장려, 동 분야에 대한 IDB회원국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2,550만 불을 한국이 단독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전 IDB회원국에게 기회가 열려 있으며 과학 기술, 인프라, 산업개발, ICT, 교육 부문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 Korea Poverty Reduction Fund

출자금 2,500만 불로 중남미 지역의 빈곤퇴치와 사회개발을 장려하고 역내 LDC국가와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로 Technical Cooperation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원 한다: 참여 프로젝트 수립·디자인, 실행, 평가; 정부 및 지역정부의 강화; 재난예방과 관련된 취약성 감소; 위와 같은 사업수행에서 얻은 교훈을 국가정책에 편입시키는 것에 관한 연구 등. 본 기금이 지원하는 분야는 보건, 교육, 영양, 주거, 사회보장 등이며 IDB회원국 중에서도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수리남, 아이티 혹은 저개발 국가만이 지원대상이다.

◇ Multi-donor Disaster Prevention Trust Fund

2006년 한국, 일본, 스페인의 공동 출자에 의해 설립된 펀드로 현재 캐나다도 참여하고 있다. 이 기금에 의해 지원되는 주요 Technical Cooperation활동은 다음과 같다: 섹터 혹은 국가 레벨의 리스크 인지; 재난예방에 관련된 프로젝트 준비; 조기경보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교육 체제의 창안 및 강화; 국가기관의 능력, 정책, 프로그램의 강화 등.

세 신탁기금 모두 비구속성으로서, 기금 운용·사업수행과 관련된 컨설턴트 고용 등에 있어 IDB회원국 국적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열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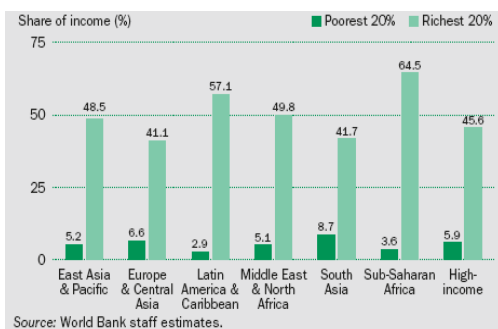
자료: 미주개발은행 웹사이트 (<http://www.iadb.org>)

제2장 중남미 지역의 주요개발성과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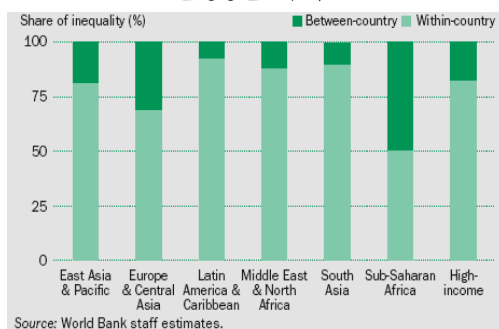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남미는 개발도상지역 중에서 비교적 양호한 경제지표, 높은 소득, 성장률, 풍부한 천연자원 등,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지역으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잠재성이 역내 모든 국가 개인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중남미에 관해 세계은행, UN 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등 외부세계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다. 이미 중남미 지역은 사하라 이남지역과 더불어, 개발도상지역 내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 지역은 상위 10%의 인구가 전체 부의 50%(선진국은 30%수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부의 불평등에서 나아가 전체 인구의 교육, 사회, 복지 수준의 격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페루의 상위 10%가구와 하위 10%가구 간 5세미만 영아 사망률은 4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고등교육 이수율에서도 많은 격차를 나타낸다. 이는 대에 걸친 빈곤의 원인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박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래프 2-1 지역별 소득불평등 현황〉



〈그래프 2-2 지역별 국가 간, 국가 내 불평등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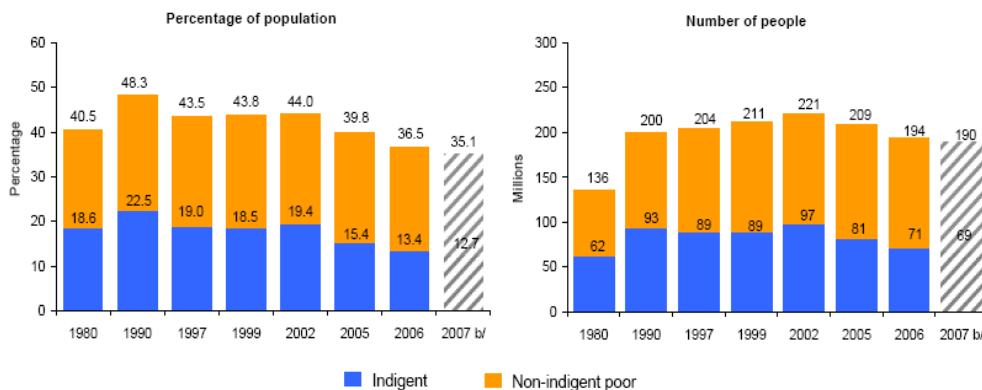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2008),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 p5, Washington DC: World Bank

이번 장에서는, 소득불평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에서 비롯된 중남미지역 개발의 당면과제를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빈곤퇴치, 교육, 보건의료, 정보통신, 여성, 환경, 자연재해, 민주주의, 분쟁예방·해결 등 세부 분야의 주요 개발이슈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빈곤퇴치

UN 중남미 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이하 ECLAC)에 따르면 2007년 중남미 전체인구의 35.1%에 달하는 1억 9,000만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였으며¹⁴⁾, 12.7%에 해당하는 6,900만 명이 절대빈곤인구로 추정된다.¹⁵⁾ 이는 1990년 빈곤인구비율(48.3%)과 비교해 27.3%이상, 절대빈곤비율(22.5%)과 대비해 43.5%이상 감소한 것임을 뜻한다.

〈그래프 2-3 1980-2007년¹⁶⁾ 중남미의 빈곤인구비율 변화〉



Source: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on the basis of special tabulations of data from household surveys conducted in the relevant countries.

a/ Estimate for 19 countries of the region including Haiti. The figures shown in the orange sections of the bars are the percentages and total number of poor persons (indigent plus non-indigent poor).

b/ Projections.

출처: ECLAC (2008), *Social Panorama of Latin America 2007*, Briefing Paper, p9, Santiago: UN

국가별 상황을 살펴보면 브라질, 칠레, 에쿠아도르(도시지역), 멕시코는 2007년, 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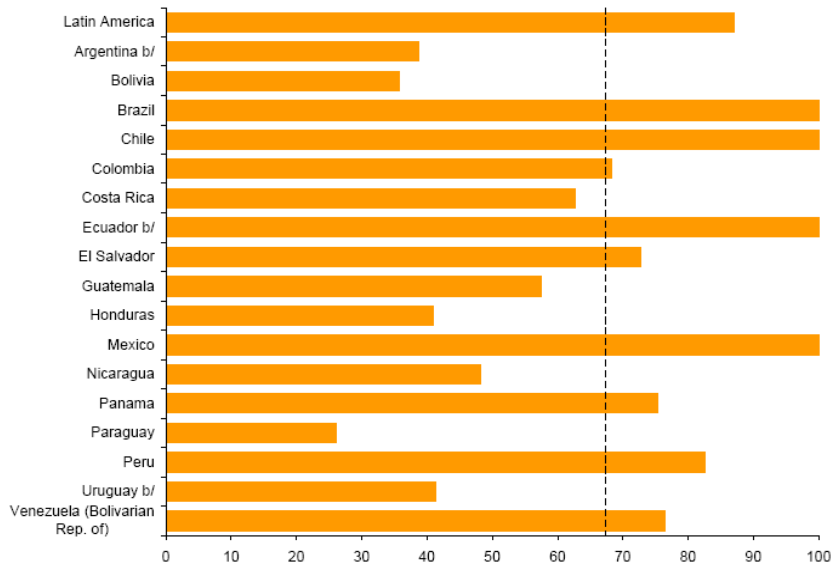
14) ECLAC, 2008:12

15) ECLAC, 2008:12

16) 2007년도 통계는 추정치임.

절대빈곤인구 절반감축을 목표로 하는 MDG1을 100%달성한 것으로 보인다.¹⁷⁾ 또한, MDG 성과측정 기준년도인 1990년부터 2015년중 2007년까지 68%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할 때,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파나마, 페루 등도 이미 소요기간 대비 목표치(68%)를 달성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래프 2-4 1990-2007년 절대빈곤인구감축 목표 달성현황〉



Source: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on the basis of special tabulations of data from household surveys conducted in the relevant countries.

a/ The amount of progress made (expressed as a percentage)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percentage-point reduction (or increase) in indigence registered during the period by one half of the indigence rate for 1990. The dotted line represents the amount of progress expected by 2007 (68%).
b/ Urban areas.

출처: ECLAC (2008), *Social Panorama of Latin America 2007*, Briefing Paper, p13, Santiago: UN

하지만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우루과이는 이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이미 MDG1을 달성한 나라에서조차도 빈곤인구의 비중은 전체인구의 20-30%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다. 또한, 원주민인 인디오의 빈곤 비율은 80%로 인종 간 빈곤 격차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 이에 관해 세계은행은, 중남미지역 전체가 MDG1을 달성하고 빈곤퇴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연평균 2.3%¹⁸⁾의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¹⁹⁾ 이런 점에서 2004년 5.9%

17) 2007년 통계는 잠정 수치임.

18) 개발도상국에게 2.3%의 경제성장률은 통상적으로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중남미 지역은 1990년대 경제침체 당시 연 성장률이 0를 밑돌았던 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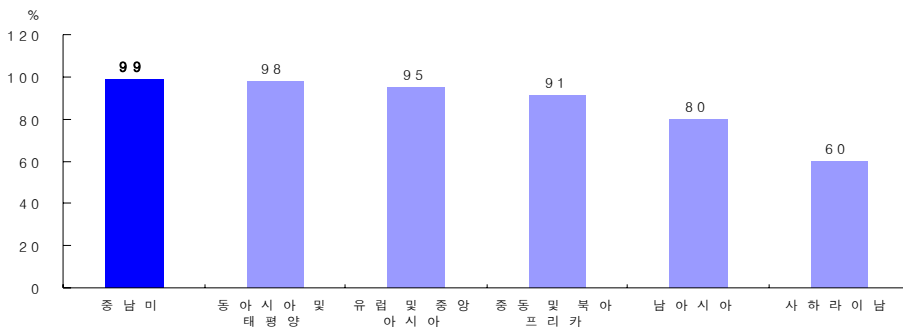
19) 세계은행 웹사이트(<http://www.worldbank.org>) 내 천년개발계획(MDGs) 관련 페이지

를 최고점으로 2005년, 2006년도에도 연 5%이상을 기록한 중남미지역 평균 경제성장률은 빈곤인구의 전체적 감소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거시경제상 취약점을 감소시키고 구조개혁을 앞당기는 등 안정적 경제발전의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의 후면에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빈곤인구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단순한 숫자상의 경제성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사회구조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빈곤인구가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취약층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을 이룩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경제·사회 정책이 동반되는, 빈곤인구를 위한 성장(Pro-Poor Growth)전략이 요구된다.

2. 교육

2005년 기준 중남미 지역의 15-24세 인구의 문자 해독률은 96.6%였다. 또한, 이 지역의 초등교육 이수 비율은 1991년 86%²⁰⁾이었던 것이 2005년 95%²¹⁾, 2006년 99%²²⁾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여느 개발도상지역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난 몇 십년간 중남미 지역의 발전사항 중 가장 인상적이라 할 수 있는 교육 분야의 양적인 확장에 기인한 것이다. 이미 남미 대부분의 국가가 초등교육 보편화에 관한 MDG2를 달성한 상태이며, 중미 지역 역시, 2015년 MDG2를 무난히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²³⁾

〈그래프 2-5 기초교육률 비교(2006년)〉



자료: 세계은행 200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ith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p272, NY: UNDP

21)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ith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p272, NY: UNDP

22) 세계은행 200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3)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ith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NY: UNDP

중학교 이수율에 있어서도 이 지역 몇몇 국가들의 중등교육 의무화에 힘입어 1990년 53%에서 2005년 71%까지 상승했다.²⁴⁾ 고등학교 이수율은 27%에서 50%로 뛰었고, 대학 교육률도 4.8%에서 7.4%로 1.5배 이상 상승했다.²⁵⁾

상기와 같은 성과는, 지난 십여 년간 교육 경영 시스템 변화와 지속적인 예산증가, 다양한 자원개발, 사회·경제 관계자들의 참여 등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러한 양적인 성과가 얼마나 질적인 결과로 나타나느냐이다. 다시 말해, 얼마나 많은 인구가 향후 경제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만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인구 전반의 소득증가와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특히나 전 세계 어느 개발도상지역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곳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소득별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얼마나 양질의 교육이 대를 이은 가난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ECLAC은 'Social Panorama of Latin America 2007'²⁶⁾라는 보고서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ECLAC이 첫 번째 문제로 꼽는 것이 교육의 질이다. 지금까지 중남미 지역은 학교건축 등 교육관련 인프라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온 결과로 교육기회의 양적인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것이 교육의 질적 향상에 있어 필수적인 교원확보나 커리큘럼, 교과서 등 교육재료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ECLAC은 진단하고 있다.²⁷⁾ 높은 초등교육 이수율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지역 전반에 걸쳐 기초적인 산수, 독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UNESCO는 전반적으로 낮은 중남미 지역 교육의 질은, 가난하거나 부유한 학생 간 구분 없이, 전체 학생들에게 향후 경제활동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키워주기에 부족한 것으로 평가내리고 있다.²⁸⁾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소득수준과 교육 성취도 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통상적이거나, 중남미지역은 소득불평등이 교육의 질 문제에 있어 중요한 원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도 UNESCO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 교원의 숫자, 강의수준, 교육자료 등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간 상관관계는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시 말해 과외활동이 성취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

24) ECLAC (2008), *Social Panorama of Latin America 2007*, Briefing Paper, p40, Santiago: UN

25) ECLAC (2008), *Social Panorama of Latin America 2007*, Briefing Paper, p40, Santiago: UN

26) ECLAC (2008), *Social Panorama of Latin America 2007*, Briefing Paper, Santiago: UN

27) ECLAC (2008), *Social Panorama of Latin America 2007*, Briefing Paper, p38, Santiago: UN

28) ECLAC (2008), *Social Panorama of Latin America 2007*, Briefing Paper, pp38-44, Santiago: UN

로 해석된다. 또한, 교원의 숫자, 경험도, 책임감 등도 공·사립 교육기관 혹은 학교 내 부유층자녀 비율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²⁹⁾

중남미 지역의 낮은 교육의 질과 심각한 소득불균형은 무엇보다도 빈곤층이 교육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하하여, 잠재적으로 대를 잇는 가난의 악순환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개발, 교과서 제작, 교원관리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소득별 교육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농촌지역 등 빈곤·소외지역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투자, 빈곤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전문 직업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보건, 의료

중남미지역은 2006년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5%대의 아동영양 부족률을 보였다. 유엔 천년개발목표(MDG) 4번째 목표인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에 있어서도 1990년 55명(1,000명당)에서 2006년 26명으로 절반이상 감소³⁰⁾했으며, 1세 이하 유아 홍역예방접종률은 2006년 93%³¹⁾에 달했다. 이는 타 개발도상국 평균 74%보다 현저히 높은 것이다.

산모사망률도 개발도상지역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100,000명당 130명(2005)³²⁾을 보이고 있다. 또한, 95%의 산모가 출산 전 의료혜택을 받고 있고, 88%의 출생이 전문 의료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이 방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한, 향상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비율은 1990년 83%에서 2004년 91%³³⁾로, 향상된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비율 역시 1990년 67%에서 2004년 77%³⁴⁾로 늘어나는 등, 개발도상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공공보건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9) ECLAC (2008), *Social Panorama of Latin America 2007*, Briefing Paper, pp38-44, Santiago: UN

30) World Bank (2008),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 Washington: World Bank

31) World Bank (2008),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 Washington: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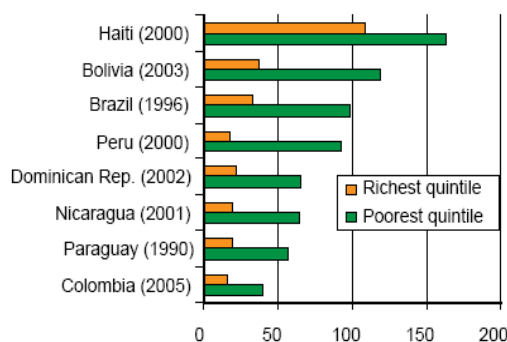
32) World Bank (2008),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 Washington: World Bank

33)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ith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p25, NY: UNDP. 개도국 평균은 1990년 71%, 2004년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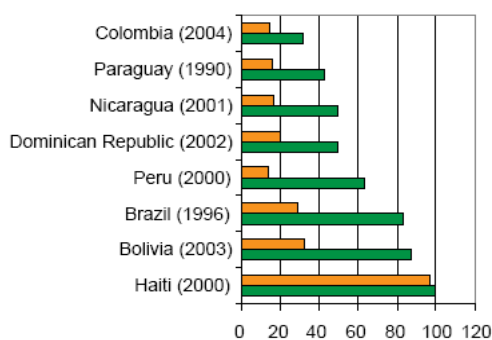
34)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ith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p25, NY: UNDP. 개도국 평균은 1990년 33%, 2004년 49%

이처럼 중남미의 기초보건·의료상황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나, 교육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차이에 따른 영유아 사망률, 영양부족의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첫째, 농촌 등 빈곤지역에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둘째,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층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을 주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 동안 일부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고 농촌지역 병원이 세워지는 등 많은 진전이 있어왔으나, 빈곤층을 고려하는 보건·의료·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투자·지원은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2-6 소득별 5세 이하 아동 사망률(1,000명당)〉



〈그래프 2-7 소득별 1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1,000명당)〉



출처: World Bank (2008), *Regional Factsheet From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on website: <http://www.worldbank.org>

HIV/AIDS와 관련한 중남미의 상황 역시 최근 10여 년간 많은 진전을 보여 왔다. 세계은행³⁵⁾에 따르면 2006년 기준, 1,700만 명의 중남미 인구가 HIV/AIDS감염자로 추산되고 있다. HIV/AIDS의 파급효과는 중미·남미 지역보다 카리브 해(바베이도스, 바하마, 쿠바, 자메이카, 아이티 등)에서 더 높게 나타나 왔으나, 최근 몇 년간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의 임신여성 중 HIV/AIDS 신규 감염 건수가 줄어들고, 아이티에서는 도시지역 성인인구의 HIV/AIDS 감염 비율이 1993년 9.4%에서 2003-2004년 3.7%까지 떨어지는³⁶⁾ 등 카리브 해 지역에서도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쿠바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에이즈 치료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35) 세계은행 웹사이트 HIV/AID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36) 세계은행 웹사이트 HIV/AID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그럼에도 불구하고 HIV/AIDS 예방·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2006년 기준 카리브 해 지역에는 27,000명의 신규감염자를 포함해 250,000명의 에이즈감염자가 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15-44세의 성인인구의 주 사망원인으로 꼽히고 있다.³⁷⁾ 최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다음으로 높은 HIV/AIDS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역내 국가들은 Pan-Caribbean Partnership Against HIV/AIDS and the latin America Regional Conference on HIV/AIDS(CONCOSIDA) 등의 파트너십 세미나를 통해 서로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WHO 등 국제기구들도 현재 중남미 각국에서 HIV/AIDS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 HIV/AIDS의 확산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방교육, 치료약 보급 등이 빈곤층이나 위험계층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외부 공여국·기관 뿐 아니라 NGO들을 포괄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여성의 능력강화, 마약근절 등 에이즈 발생, 감염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 방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정보통신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 1,000명 당 무선전화 사용 인구는 439명, 인터넷 사용 인구는 156명³⁸⁾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수 배 낮은 것이기는 하나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몇 년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고소득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중남미 지역은, 정부가 ICT의 필요성과 잠재력을 일찌감치 간파, 국가 정책을 통해 사회,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한 ICT분야 개발에 앞장서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다양한 개발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Finkelievich³⁹⁾는 ICT분야의 발전을 위한 각국

37) 세계은행 웹사이트 HIV/AID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38)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pp.273-276, NY: UNDP

39) Finkelievich, S. (2003), *IC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aper presented at World Summit of Cities and Local Authorities on the Information Society, Lyon, 4-5

정부의 노력이 이 지역 빈곤 감소에 기여해왔으며, 전자정부(e-government), 교육,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전자정부는 개발도상지역 중에서도 중남미 지역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형태로, 공공행정·사법시스템의 고질적인 부패 및 저효율성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내 정보의 흐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업무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일반 국민에 대해 정부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초·중·고등교육 기관을 연계하여 원거리 교육을 제공하거나, 혹은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고소득국을 중심으로 있어왔다.⁴⁰⁾ 또한, 이들 중남미 국가들은 민간 외자유치를 통해, 차관 혹은 무상원조를 통해 ICT 관련 인프라를 구축, 개발도상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인터넷 접속인구 비율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제 Finkelievich를 비롯한 학자들은 인터넷이 개발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 인프라 구축 이상의, 좀 더 포괄적이며 통합적이고, ICT인프라가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선진세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심각한 소득불균형에 따른 정보 접근권의 불균형을 타파하는 것 역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소득 불균형에 따른 정보 접근권의 격차는 교육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최신 ICT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고, 또한 이를 통해 전파되는 정보를 접하지 못했던 빈곤 취약층은 계속 전 세계적 정보의 흐름에서 소외되게 되고, 이는 교육기회의 박탈, 직업 취득의 어려움 등, 빈곤의 재생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부문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중남미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소득 불균형에 따른 인터넷 접속인구의 차이는 한 국가 내 에서뿐 아니라 칠레, 멕시코, 브라질 등 고소득국과 에콰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저소득국간 차이에서도 상당수 발생한다. 이는 ICT 기술 및 인프라의 가용 정도가 정부 차원의 역량에 달려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ICT 관련 정책은 이러한 중남미 지역의 고질적인 소득불평등 측면을 최대한 고려,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December 2003

40) Finkelievich, S. (2003), *IC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aper presented at World Summit of Cities and Local Authorities on the Information Society, Lyon, 4-5 December 2003

5. 민주주의와 선정

중남미 국가들은 수백 년에 걸친 스페인·포르투갈 식민역사, 1970-80년대 군부독재, 1990년대의 민주화 바람, 끊임없는 군부의 쿠데타 시도에서에서부터 최근 일부국가의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적 민주주의(혹은 폴뿌리 민주주의, 노동자계급 위주의 민주주의)경향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정치구조를 경험해 종종 '정치체제의 실험실'로 불린다.

오랜 투쟁으로 얻어진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비교적 잘 보장되고 있는 편으로, 모든 국가에서 국민의 선거권이 보장되고 있으며⁴¹⁾,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법 앞에 만인평등'의 원칙이나 종교, 인종의 이유로 인한 차별 금지조항, 여성의 권리, 노동법, 아동의 권리 등과 관련된 국제조약과 헌장을 이미 비준, 국내법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²⁾

선거 역시, UNDP는 Democracy in Latin America, Toward a Citizen's Democracy⁴³⁾라는 보고서에서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서 2002년 사이에 치러진 중남미 각국 선거는 대체적으로 '깨끗했다(Clean)'⁴⁴⁾라고 밝히고 있으며, IED(Index of Electoral Democracy)⁴⁵⁾에서도 선거 프로세스에 관해 중남미 국가들은 다른 선진국에 상응하는 수준을 보였다. 특히 UNDP는 1990-2002 기간 동안 치러진 70개의 선거 중 10개에서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발견되기는 했어도 일반적인 트렌드는 긍정적이었으며, 또한 중남미지역의 선거가 대통령 권한의 평화적인 이양과 공공 서비스로의 접근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⁴⁶⁾ 아울러, 정당별 쿼터 도입을 통해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의 길을 열어줌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성과를 내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에서는 선거 참여도가 아주 낮고, 또한 신규 후보자가 선거 체제로 진입하는 데에는 아직 장애가 있으며,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하락으로 그 기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UNDP는 보고하고 있다.⁴⁷⁾ 여기에는 정당간 세력다툼,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이 내재되어 있다.

41) UNDP (2004), *Democracy in Latin America, Towards a Citizen's Democracy*, NY: UNDP

42) UNDP (2004), *Democracy in Latin America, Towards a Citizen's Democracy*, NY: UNDP

43) UNDP (2004), *Democracy in Latin America, Towards a Citizen's Democracy*, NY: UNDP

44) UNDP (2004), *Democracy in Latin America, Towards a Citizen's Democracy*, p27, NY: UNDP

4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7), *The World in 2007,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on website http://www.economist.com/media/pdf/Democracy_Index_2007_v3.pdf

46) UNDP (2004), *Democracy in Latin America, Towards a Citizen's Democracy*, NY: UNDP

47) UNDP (2004), *Democracy in Latin America, Towards a Citizen's Democracy*, NY: UNDP

중남미 지역의 부정부패는 이 지역에 대한 연구마다 빠지지 않고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는 이슈이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NGO)의 이 지역 투명성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에 따르면, 칠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의 CPI는 5.0이하(10.0점 만점)에 그쳐 국가 순위에서 중·후반부에 자리하고 있다.

〈표 2-1 2007년 기준 투명성지수 (2007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⁴⁸⁾〉

순위*	국가명	CPI Score 2007
1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9.4
17	일본	7.5
20	미국	7.2
⋮	⋮	⋮
22	칠레	7.0
25	우루과이	6.7
46	코스타리카	5.0
61	쿠바	4.2
67	엘살바도르	4.0
68	콜롬비아	3.8
72	멕시코, 페루, 브라질	3.5
84	자메이카	3.3
94	파나마	3.2
99	도미니카 공화국	3.0
105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2.9
111	과테말라	2.8
131	온두라스	2.5
150	에쿠아도르	2.1
162	베네수엘라	2.0

* 총 180개국 중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웹사이트(<http://www.transparency.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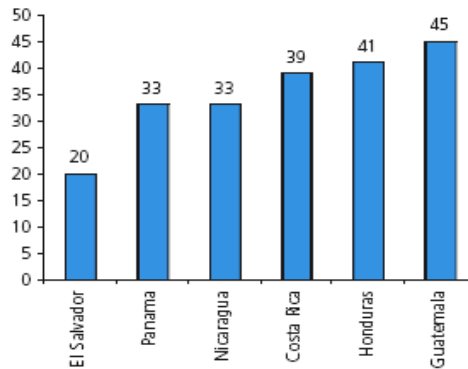
2004년 LatinoBarometro⁴⁹⁾의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중미지역에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한 인구의 비율은 30-40%대를 기록했으며, 재판관에게 금품을 제공, 형량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한 인구의 비율 역시 20-30%대를

48) 총 180국가를 대상으로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아시아개발은행(Country Performance Assessment Ratings), 아프리카개발은행(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s), Bertelsmann Foundation(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세계은행(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Economist Intelligence Unit(Country Risk Service and Country Forecast), Freedom House(Nations in Transit)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서 각국의 투명성 정도 및 순위를 파악하는데 통용됨. 한국은 2007년 CPI 5.1으로 180개국 중 43위.

49) UNODC (2007), *Crime and Development in Central America*, p30, Vienna: UNODC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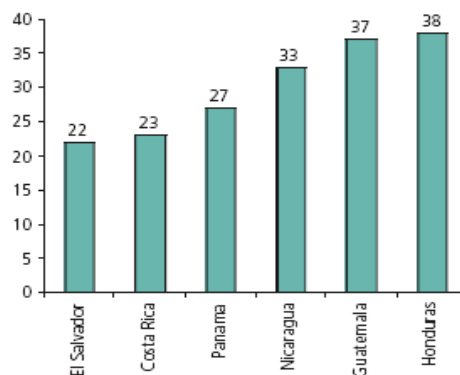
나타내는 등 부정부패와 이에 따른 불신은 정당, 공공행정 뿐 아니라 국가 존속의 핵심인 경찰, 사법부에까지 확산되어 있다.

〈그래프 2-8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한 인구의 비율(%)〉



출처: 2004년 LatinoBarometro 자료를 UNODC (2007),
Crime and Development in Central America, p30,
Vienna: UNODC에서 재인용

〈그래프 2-9 재판관에게 금품을 제공, 형량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한 인구의 비율(%)〉



출처: 2004년 LatinoBarometro 자료를 UNODC (2007),
Crime and Development in Central America, p32,
Vienna: UNODC에서 재인용

사법시스템은 그 효율성도 떨어져, 범죄사건의 10%정도만이 최종 판결과정까지 올라가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도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감자의 50%가 공판 전 구금(Pre-trial detention)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⁵⁰⁾

식민지, 독재를 물리치고 세운 민주주의지만, 이렇듯 정치, 군부, 경찰, 사법 분야를 막론하고 퍼져있는 부정부패와 정부기능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부족은 이 지역 민주주의의 존속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UNDP가 2002년 5월 이 지역 18개국 18,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⁵¹⁾ 아직도 42.8%의 지역민들이 대통령은 법이 정하는 그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데 동의하며, 43.9%의 인구가 민주주의 체제가 이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 경제적 발전만 가능하다면 독재주의 정치도 지지하겠다(54.7%)고 답변하는 등, 역내 민주주의의 기초가 여전히 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보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중남미 지역 사법·공공 행정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1990년대부터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사, 감독, 급여체제를 포함, 전반적 인적경영에 관한 시스템의 개혁 등에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독립적이고 프로페셔널한 공무원이 많은 국가에서 양질의 정부업무 수행력과 부정부패가 적게 관찰되는 경향이 있기는 해도, 단순히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업의식을 함양하는 것만으로는 정책적인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좀 더 구조적인 개혁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에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입찰대상을 사기업 혹은 NGO 등으로 확대하는 것, 외부 감사, 옴부즈맨, 국민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민영화와 관련된 최근 중남미 지역의 구조개혁은,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왔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도전이기는 하였으나, 공공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성을 추구함으로써 부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세계은행과 UNDP 등은 보고 있다. 또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 독립된 모니터링 체제 등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이러한 구조개혁에서

50) UNDP (2004), *Democracy in Latin America, Towards a Citizen's Democracy*, p28, NY: UNDP

51) UNDP (2004), *Democracy in Latin America, Towards a Citizen's Democracy*, NY: UNDP에 수록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인식' 서베이는 UNDP와 Latinobarometro가 중남미 지역국가 국민, 지도자,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임.

한 발짝 더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 경영기법의 습득과, 지방 분권화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균형 잡힌 권력의 분산 및 지방정부의 사회 문제 대처능력 강화 역시 주요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중남미 지역 몇몇 국가는 최근 몇 년간 통합적인 재무경영 시스템을 내부 웹상에 구축하는 등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을 통해 공공재무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세금납부체제를 시도하고, 공공분야 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 웹상에 띄우거나, 법령정보나 판례를 공개하는 등, 외부적으로, 국민에게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⁵²⁾

한편,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사법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개혁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최신 장비 구축 등이 사법부의 중장기적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Ackermann 등⁵³⁾과 세계은행은 중남미 지역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사법부 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 법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과 물자지원,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부와 사법부 간 대립하는 사항을 조절할 수 있는 법규정비, 그리고 법령정보와 판례를 공개하고 모니터링과 평가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사법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 국가들이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여정치에 필요한 NGO, 싱크탱크(Think Tank)의 배양이다. 특히, 중남미 지역은 백인, 인디오계 원주민, 흑인, 아시아계 인구 등 다 인종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흑인과 인디오계 원주민의 의회 진출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의 이익을 대변할 만한 정치적 그룹형성 역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사회 취약층으로서 이들 원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⁵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주민의 역량강화를 근거리에서 지원하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비공식적인 채널로서 NGO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한편, 싱크탱크와 관련, OECD Development Centre의 2006년 연구조사⁵⁵⁾는, 중남미 지역 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정책상의 제언을

52) WorldBank Web

53) Ackerman, S. and Lomborg, B. (2007), *Latin America's Corruption Challenge*, published on <http://www.project-syndicate.org>, Copenhagen: Copenhagen Consensus Center

54) UNDP (2004), *Democracy in Latin America, Towards a Citizen's Democracy*, p28, NY: UNDP

55) OECD Development Centre (2006), 'Democracy in (Latin) America', *Policy Insights*, No.27, September 2006, Paris: OECD

할 만한 능력을 갖춘 싱크탱크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칠레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가는데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한 CIEPLAN(Corporación de Estudios para Latinoamérica)의 예도 있지만, 현재 지역 내에서 눈에 띄는 글로벌 수준의 싱크탱크는 콜롬비아의 Fedesarrollo(Fundación para la Educación Superior y el Desarrollo) 정도로, 이마저도 연간 130만 불의 운영비를 대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남미의 젊은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이 지역상황에 맞는 컨셉, 아이디어, 절차 등으로 적용할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의 발전이 현재 공공분야 개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참여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6.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

중남미 지역 여성의 권리 보장 및 양성평등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수 발전되어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양성평등법을 제정하고, 비례대표제가 여성의 정계진출의 물꼬를 트고, 외교, 행정 분야의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의 숫자가 확대되는 등 공공·정치적인 면에서 여성의 위상은 강화되어 왔다. 또한, 교육의 양성평등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중남미 지역의 초등교육 이수율의 Gender Parity Index⁵⁶⁾는 0.96⁵⁷⁾으로, 여전히 성별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체 개발도상국 평균 GPI 0.9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OECD 회원국의 평균 GPI도 0.99⁵⁸⁾에 그쳤다. 하지만 15-24세 인구의 문자해독률에 있어서는 중남미지역 GPI가 1.01%로 여성의 해독률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개발도상국 평균 81.4%, GPI 0.91⁵⁹⁾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성적이다.

하지만 중남미 지역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문화 혹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에서의 폭력 및 임금격차 등을 여전히 겪고 있다. 이 중 Human

56) Gender Parity Index(GPI)는 여성의 비율을 남성비율로 나눈 것으로서 양성평등 정도를 측정하는데 통용된다.

$$GPI = \frac{\text{Value of Indicator for Girls}}{\text{Value of Indicator for Boys}}$$

- ◇ GPI = 1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
- ◇ GPI < 1은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
- ◇ GPI > 1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7)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ith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p337, NY: UNDP

58)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ith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p337, NY: UNDP

59)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ith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p337, NY: UNDP

Rights Watch와 UNIFEM이 지적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임신, 출산, HIV/AIDS 등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부분이다.⁶⁰⁾ 우선, 성폭력과 임신, 그리고 불법 낙태로 인해 여성의 생식권과 보건의 심각한 위협을 받아 왔으며, 많은 국가에서 낙태가 인정되는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문화적, 종교적 원인으로, 혹은 관련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안전한 피임법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HIV/AIDS의 신규 감염자 중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 차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여성에 대한 길거리에서의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 법제화와 신고·처벌제도 강화 등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가정에서의 폭력은 중남미 지역 사회통념상 사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져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⁶¹⁾ 따라서 여성의 자의적인 생식권을 보장하고 보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이외에,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들, 다시 말해 교육을 통한 사회진출 기회와 경제적 기회의 확대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7. 환경보호

중남미 지역은 열대, 아열대, 온난성 기후지역을 망라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아마존 강과,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인 안데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늪지인 판타날(Pantanal: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3국에 걸쳐져 있으며, 크기는 아일랜드의 3배 정도이다) 등이 위치함에 따라 동식물계의 분포 역시 이를 능가하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 지역은 전세계 원예작물, 민물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의 40%를 보유하고 있다.⁶²⁾ 또한, 캘리포니아만, 갈라파고스 섬, 대서양 남동해안 등을 끼고 있는 이 지역 전 세계에서 생물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이 지역은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전 세계 최대 규모 수목림 아마존 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전체 면적의 45.9%가 수목림 지역으로⁶³⁾, 이는 여느 지역보다 높은 비율이다. 은 '지구의 허파'라 불릴 정도로 규모도 광대하고, 따라서 이의 보존에 대한 중요성도 크다. 이를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이 지역 국가들은 국립공원을 만들고 자연

60) <http://www.humanrightswatch.org>, <http://www.unifem.org>

61) <http://www.humanrightswatch.org>

62) WWF web

63)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ith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p305, NY: UNDP. 개발도상국 평균은 27.9%, 동북아시아 28.6%, OECD 평균 30.9%였다.

보호구역(그린벨트)을 지정하여 삼림 자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 지역에는 아마존 강, 오리노코 강 등 수량이 풍부한 하천이 다수 흐르고 있어서,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도 활발하다. 2005년 기준 주요 에너지 공급원에서 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로서, 이는 여타 지역보다 높은 것이며⁶⁴⁾, 일본 등 공여국의 지원 아래 수자력 비중을 늘려가려는 사업도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대기이산화 탄소 방출량은 2004년 기준 1인당 연 2.6톤⁶⁵⁾으로 전 세계의 배출량의 4.9%에 불과했으며 2004년 경제성장의 대기이산화탄소 집중도(Carbon Intensity of Growth)⁶⁶⁾ 역시 0.36⁶⁷⁾으로 개도국 평균 0.56, OECD 평균 0.45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하지만, 세계야생생물기금(World Wildlife Fund)은, 브라질에서는 매년 1%의 수목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제일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파라과이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5년 후 자연 수목림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5년 기간 동안 줄어든 수목지대를 비교해 보아도 중남미지역이 68만km²으로, 여타 개발도상지역보다 훨씬 많았다. 동 기간 OECD국가에서는 오히려 6만7천km²의 수목림이 늘어났다. 여기에는 농사경작지를 개척하기 위한 방화, 불법벌목과 유통 등도 문제지만 석유, 천연가스, 기타 광물자원의 시장성 부각에 따른 자원 발굴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파괴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중남미 지역의 환경파괴의 후면에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천연자원 보호에 대한 공공정책상의 틀 부족, 불안한 정치상황, 빈곤과 사회 불평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만한 책임 기관의 부재 혹은 무능력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⁶⁸⁾ 이 지역 국가의 최근 경제성장 정책이 환경보호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⁶⁹⁾

이에 대해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Gabriel Lopez⁷⁰⁾는, 환경보호가 일반 원칙이라기보다는 예외로 여겨지는 이 지역에서, 환경이 더

64) 중남미 지역의 에너지원중 수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9%[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ith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p309, NY: UNDP]로 이는 여느 지역보다 높은 것이다.

65) OECD 평균은 11.5, 동북아 지역은 3.5톤, 개도국 평균은 2.4톤이다.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ith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p313, NY: UNDP

66) GDP에 대한 대기이산화 탄소 방출량

67)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ith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p313, NY: UNDP

68) World Wildlife Fund(WWF) 웹사이트

69) 제 2회 국립공원과 타 보호구역에 관한 중남미 회의, IUCN, UNEP, FAO와 아르헨티나 국립공원공단 주최, 2008.10

70) Valente, M. (2008), *Environment-Latin America: Unsustainable Development*, Inter Press Service,

이상 경제와 사회문제에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문제가 아니라 개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새 지속가능한개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 없이는 현재 자연보호구역 등을 통해 보존하고 있는 자연의 추가적인 파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환경보호를 고려한 경제성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환경정책수립에 관한 기술지원, 다양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 개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인프라, 기술 지원 등 외부 국가의 지원 역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8. 자연재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 중남미 지역에서 엘니뇨, 허리케인, 가뭄, 홍수 등의 자연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그 예측가능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빈곤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역내 농산물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 범지역적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ECLAC의 2003년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자연재해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숫자는 감소했으나,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보는 인구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⁷¹⁾ 또 다른 연구⁷²⁾에 따르면 1972년에서 2005년 사이, 이 지역 자연재해의 총 비용은 2,500억불로 추산되며,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만 500억불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Stern Review⁷³⁾는, 기후변화의 몇몇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5년까지 이 지역 옥수수 재배량이 15%가량 감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 놓았다.

이러한 중남미 지역의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잠재적인 식량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크게

2008.10.01에서 인용

71) ECLAC (2003), *Panorama Social de América Latina 2002-2003*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Thematic Regional Paper: Latin America*,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Occasional Paper, p1, NY: UNDP에서 재인용]

72) Zapata Martí-Ricardo (2006), *Los efectos de los desastres en 2004 y 2005: la necesidad de adaptación de largo plazo, serie estudios y perspectivas*, No.54, Sede subregional de la CEPAL en México, Punto Focal de Desastres, México DF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Thematic Regional Paper: Latin America*,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Occasional Paper, p1, NY: UNDP에서 재인용]

73) Stern Review (2006),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Part II,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Growth and Development*, p96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Thematic Regional Paper: Latin America*,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Occasional Paper, p1, NY: UNDP에서 재인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처능력(Coping Capacity)강화로서, 이는 '재해에 대응할 수 있고 그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집단적 능력'⁷⁴⁾을 키우는 것을 뜻하며, 둘째는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향상으로서, '존속을 위협하는 재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직 구조, 기능, 구성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집단의 능력'⁷⁵⁾을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대처능력의 대표적인 예에는 관개 시스템 구축, 그린하우스 설치, 기상예보 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재해민의 농축산물 관련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공공보험(Governmental Insurance)도 있다. 또한, 중남미 지역 특유의 Fondo Especial은 농업 인구간 상호를 기본으로 하되, 정부가 최종 보험자로 나서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밖에도 마이크로 파이낸스(Microfinance), 가족·친지로부터의 지원 등 다양한 용자 구조 등이 있다.

여기서 대처능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중앙정부의 대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달려있다. 여기서 요구되는 지방정부의 대응력이란,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안건을 우선순위별로 취합, 복구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선진 기기 도입, 이에 상응하는 전문기술교육뿐 아니라, 긴급구조플랜, 소개방안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적응능력이란 농업방식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작물의 다양화는 기후변화,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식량수급의 변동에 따른 가격변화에 덜 민감해 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 치아파스(Ciapas)지방의 경우, 87%의 농민이 전통적으로 옥수수과 커피만을 재배해왔으나, 이 두 가지 작물의 전 세계적인 가격은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하여, 이는 결국 멕시코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인 치아파스 농민들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반대로 과일과 채소는, 주 수출지역인 미국,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후조건과 가격상승에 힘입어 점차 높은 이윤을 내고 있다. 특히,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NAFTA)은

74) Kelly P. M. and Adger W. N. (2000), *Theory and Practice in Assessing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Facilitating Adaptation*, Climate Change 47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Thematic Regional Paper: Latin America*,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Occasional Paper, p7, NY: UNDP에서 재인용]

75) Kelly P. M. and Adger W. N. (2000), *Theory and Practice in Assessing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Facilitating Adaptation*, Climate Change 47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Thematic Regional Paper: Latin America*,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Occasional Paper, p7, NY: UNDP에서 재인용]

이러한 작물 다변화에 따른 수출 증가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⁷⁶⁾

이러한 적응능력의 증대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통해 전 방위적으로 운영해야하는 구조적인 전략이다.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려는 자체적인 노력이 수동적인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⁷⁷⁾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작물의 다양화와 전략화는 중앙 정부, 지방정부 뿐 아니라, 다양한 작물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진 공여국, 기관, NGO 등 외부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9. 마약, 조직범죄 및 분쟁 예방해결

1997년 세계은행은 '범죄와 폭력은 최근 몇 년간 중남미 지역의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주요 장애물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악화된 것으로 UN 마약범죄기구(UN Office for Drug and Crimes, 이하 UNODC)는 보고 있다.⁷⁸⁾

중남미 지역은 아프리카는 나은 편이기는 해도 마약, 조직범죄, 분쟁 등 치안 문제가 불안정한 상태다. 안보(Security)문제와 개발(Development)이슈의 상호 연관성은 기타 어느 개발도상지역보다 중남미에서 설득력을 얻는 얘기다. 안보란 원래 복잡다단한 개념으로, 안정된 사회, 정치, 경제적 발전에서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안보 없이는 진정한 개발은 없으며, 더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서는 법치국가 확립도, 민주주의 발전도, 인권 준수도 이룰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중남미 지역의 폭력, 분쟁의 최우선 과제는 마약 퇴치이다. 세계 코카인의 주 공급지인 동시에 주 소비지인 중미지역에서 마약은 주요 조직범죄의 근원인 동시에, 사회전반의 부정부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약재배가 성행하는 데에는 이 지역의 고질적인 소득불평등, 특히 농촌과 도시 간 소득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 마약재배농가가 생계수단으로 마약을 택했다는 것이다.

76) Lederman D. et al (2003), *Lessons learned from NAFTA, NAFTA's remaining trade barrier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Group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Thematic Regional Paper: Latin America*,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Occasional Paper, p20, NY: UNDP에서 재인용]

77)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Thematic Regional Paper: Latin America*,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Occasional Paper, NY: UNDP

78) UNODC (2007), *Crime and Development in Central America*, p11, Vienna: UNODC

소득불균형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문제가 'Maras'라고 불리는 청소년 조직범죄다. 'Maras'는 중남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조직범죄의 형태로서, 15-19세 청소년들이 주축이며, 빈곤층 출신 인구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오랜 내전과 군부정치의 결과로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총기는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소가 되고 있다. UNODC와 Small Arms Survey(NGO)에 조사에 따르면 중미 지역에서만 합법적으로 인정된 시민소유의 총기는 500,000정인데 반해 불법 소유·유통되고 있는 무기의 숫자는 약 800,0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안보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범죄와 폭력에 대한 경찰의 예방·대처 능력을 강화하며 마약범, 청소년 조직 범죄자를 검거하고 코카인 재배 농가를 단속하는 것 이상의 사회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되어 온 볼리비아의 마약재배 농가에 대한 재교육, 콜롬비아, 브라질의 도시 폭력반대 캠페인, 과테말라 조직 범죄자에 대한 사면과 재교육, 페루의 코카인 재배농가에 대한 대체 작물로서 코코아 경작 장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마약과 폭력퇴치를 위해서는 코카인 재배인구에 대한 재교육, 대체 생계수단 일자리, 대체작물, 청소년 조직범에 대한 직업교육 등 다각도적인 노력의 중장기적 지속이 요구된다.

제3장 주요OECD/DAC 공여국의 대 중남미 무상원조

지금까지 1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을 개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다양한 자원보유지역으로서 앞으로의 잠재력에 대해 알아보았고, 2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경제·사회·정치적 성장을 이루어온 이 지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중남미 지역은 지금까지 빈곤퇴치, 기초 의료·보건, 교육 등 대다수의 분야에서 상당히 양호한 성적을 보여 왔으나 부정부패, 사회 불평등과 미약한 민주주의, 그리고 마약, 조직범죄에 따른 불안한 치안상황 등, 지역 전체가 한 발 더 앞서나가기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를 안고 있다.

물질적인 변화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동적인 변화 혹은 태도, 그리고 사회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이 선결과제들은 단순히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초등교육 교과서를 보급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복잡다단하고 사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원조전략 수립에 있어 더 많은 정책적 고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선진 공여국들의 대 중남미 무상원조사업을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원조를 살펴보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OECD/DAC 주요공여국의 대 중남미 지원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 국가의 전략적 특징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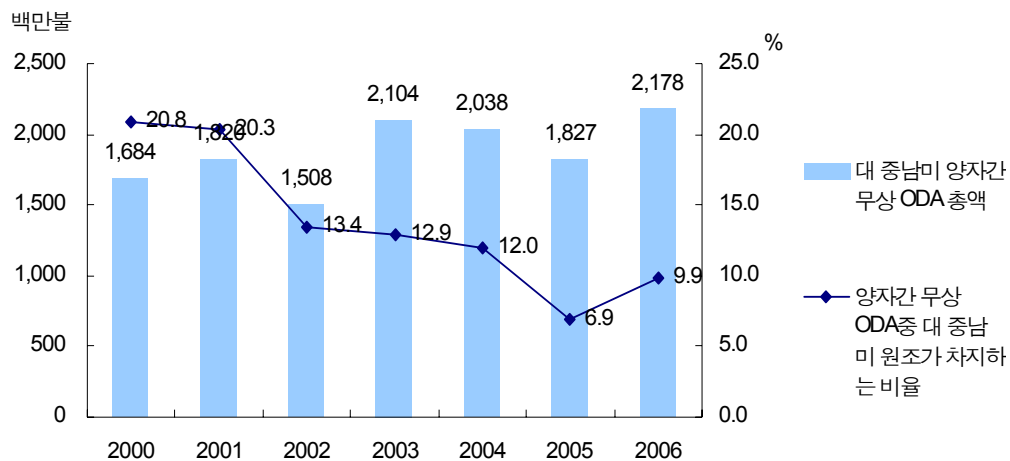
본 장에서 살펴볼 주요공여국은 미국, 스페인, 일본, 스웨덴, 4개국이다. 이 4개국은, 대 중남미 최대공여국(미국), 대외무상원조 중 대 중남미 원조의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스페인), 한 가지 분야, 한 가지 사업형태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한 나라(일본)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외원조에 있어 일반적으로 최고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북유럽국가(스웨덴)도 포함했다. 이 4개국 모두 나름대로 뚜렷한 정책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교분석의 결과가 우리의 대 중남미 지원방안 수립에 흥미로운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1. 미국

1) 대 중남미 ODA의 규모와 비중

OECD/DAC 공식통계⁷⁹⁾에 의하면 2006년 미국의 대 중남미 양자간 ODA 총액은 21억 9,100만 불, 이 중 무상 ODA의 액수는 21억7,800만 불⁸⁰⁾, 한화로 2조원에 달해 미국은 대 중남미 최대 공여국으로 집계된다.

〈그래프 3-1 미국의 대 중남미 양자간 무상 ODA의 변화(2000-2006)〉



*순지출 기준

자료: OECD 공식통계(<http://stats.oecd.org/WBOS>)

2008, 2009 회계연도⁸¹⁾ 미 의회 예산안을 보면 향후 대 중남미 무상 원조예산은 2008년 20억1,700만 불⁸²⁾, 2009년 20억4,800만 불⁸³⁾로서, 단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20억 불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9) <http://stats.oecd.org/WB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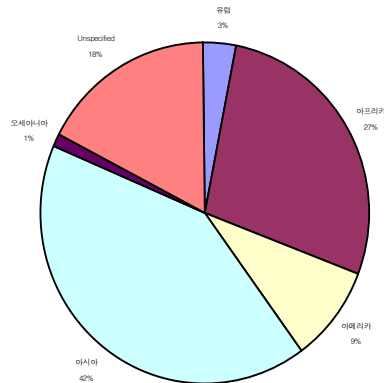
80) 순지출기준. (<http://stats.oecd.org/WBOS>)

81) 미국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이다. 예를 들어 2008 회계연도(FY 2008)은 2007.10.01-2008.09.30을 뜻한다.

82) US Department of State (2008), *International Affairs FY2009 Budget Justification*, Washington DC: US Dep. of State

83) US Department of State (2008), *International Affairs FY2009 Budget Justification*, Washington DC: US Dep. of State. 추가경정 예산 불포함

〈그래프 3-2 미국의 양자간 무상ODA 지역 분포(2006년)〉



자료: OECD/DAC 공식통계를 재구성

*중동은 아시아에 포함

한편, 대 중남미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의 평균 20%대에서 2006년 9.9%로 대폭 감소하여 2006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다음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중남미 지역이 그 동안의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과 사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에 따라 미국의 대 중남미 원조전략이 변화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동시에 최근 3-4년간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급등의 반대급부로 이 지역에 대한 지원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08, 2009년 미 의회 예산안 내용으로 추산한 대 중남미 원조 규모의 향후 비중은 11-12%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⁸⁴⁾된다.

2) 협력대상국 현황

미국은 중남미 지역에 연간 20억불 이상을 지원할 정도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특정 숫자의 국가에 대한 선택적인 지원보다는 32개 중남미지역 전 국가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⁸⁵⁾ 협력대상국에는 쿠바와 베네수엘라도 포함되어 있다. 전 협력대상국에 대해 각국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국별전략플랜(Country Strategic Plan, 이하 CSP)이 세워진다. CSP는 통상 5-8년 기간으로 수립된다.⁸⁶⁾

84) US Department of State (2008), *International Affairs FY2009 Budget Justification*, Washington DC: US Dep. of State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

85) 미국은 현 대외원조의 틀인 Foreign Assistance Framework에 의거, 전 세계 국가를 분쟁여부, 소득수준, 정치적 권리 상황, 주인의식, 정치 체제에 따라 재건국(Rebuilding Countries), 발전국(Developing Countries), 전환국(Transforming Countries), 지속적인 파트너국(Sustaining Partnership Countries), 제한국(Restrictive Countries)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라 차별화된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류가 중점협력대상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86) 이밖에도 HIV/AIDS나 마약퇴치 같은 지역별 안전에 대해서는 지역전략플랜(Regional Strategic Plan of Action)이나 지

2006년 기준 양자간 무상원조 협력국 분포를 보면, 콜롬비아가 7억2,093만 불을 받아 최대 지원국이었으며, 주로 범죄, 마약 퇴치, 민주주의와 선정과 관련하여 원조를 받았다. 이 밖에도 페루에 2억639만 불, 볼리비아에 1억9,309만 불 등의 지원이 제공되어 왔다.

〈표 3-1 미국의 대 중남미 무상ODA 10대 수원국(2006년)〉

	국가명	액수 (단위: 백만 불)
1	콜롬비아	720.93
2	페루	206.39
3	볼리비아	193.09
4	아이티	191.28
5	멕시코	153.52
6	과테말라	88.93
7	온두라스	84.10
8	에쿠아도르	76.92
9	니카라과	67.53
10	도미니카공화국	42.38

*순지출 기준

출처: OECD 공식통계(<http://www.oecd.org/WBOS>)

3) 대 중남미 정책방향 및 지원 분야

중남미를 비롯한 세계 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현재 미국 해외원조의 정책적 틀이라 할 수 있는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2003)에 기본 하여 실시되어 왔다. 미국의 양자간 무상 대외원조 전담기관인 USAID는, 상기 NSS에 바탕 하여 2006년 수립된 Foreign Assistance Framework(FAF, 2006)와 Joint State-USAID Strategic Plan for 2007-2011에 의거, 국별전략(CSP)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다.

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을 수립, 광역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HIV/AIDS, 자유무역경제 역량강화, 교육 분야에, 중미 지역에서는 경제성장과 HIV/AIDS에 대해 각각 지역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정책적으로 '국익 우선' 과 '자국 안보 달성' 이라는 목표아래 해외원조를 펼치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리적인 접근성과 문화,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 등을 고려, '시장경제 확대' 를 최종 목적으로 크게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와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두 가지 전략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이 5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기회의 확대

미국의 대 중남미 경제성장 프로그램들은 80-90년대 경제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이들 국가들이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진 시장을 구축하도록 돕는데 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 관련 프로그램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무역역량강화, 소외계층에 대한 직업 훈련과 기초교육 등을 통한 국가 시장경쟁력 강화를 포함, 시장개방의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환경프로그램들은 수목, 해저자원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데 있다.

Box 3-1 미국의 대 중남미 원조 사례: '경제적 기회의 확대' 부문

- ◇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 ◇ 멕시코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150만 명 이상의 소외계층이 소액사업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The Micro and Rural Finance Program은, 멕시코에서 가장 가난한 치아파스(Chiapas)지역 내 9,000명의 빈곤계층 원주민 여성들에게 사업대출과 사회서비스, 보건교육 등을 지원.
- ◇ 볼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페루에서 마이크로크레딧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원
- ◇ 위기의 공원(Parks in Peril) 프로그램은 지난 10여 년간 16개국 4,500헥타르에 이르는 지역 내 생물의 다양성과 자연자원경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원. 특히, USAID는 이 분야에 대한 지역NGO에도 지원.
- ◇ 볼리비아의 지속가능한 수목프로그램(Bolivia Sustainable Forestry Program)은 2백만 헥타르에 달하는 열대우림의 인증화와 동시에, 관련 제품생산량 증가 달성.

인간에 대한 투자

보건 분야에서 미국은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감소, HIV/AIDS예방 등에 초점을 두고 중남미 국가들을 지원해왔다. 이 중에서도 HIV/AIDS예방에 대한 지원의 비중이 크며, 대부분은 PEPFAR(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PeaceCorps 봉사단 파견 프로그램도 에이즈 예방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심각한 사회 불평등을 고려하여 빈곤소외계층에 대한 보건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전반적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공립, 사립 보건·의료 기관의 지속가능한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이 지역의 초등교육 이수율 증가 등 교육기회의 양적인 확대에 집중해 왔으나, 점차적으로 전반적인 교육의 질 향상으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⁸⁷⁾ 또한, 사회 불평등을 고려, 빈곤소외계층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관과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커리큘럼 및 교원 트레이닝 개혁, 지방분권화의 장려, 원거리 교육과 대안기초교육의 도입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원조 액수 규모면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편이다.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허리케인, 열대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아이티, 과테말라 등에 대한 긴급구호성 지원을 포함하며,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인 아이티에 대해서는 재난 예방대책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선정과 민주주의

미국은, 지난 80-90년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늘어나는 범죄, 조직 갱단에 의한 폭력, 비리, 정부의 무능력함을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별 진전이 없었다고 보고, 사법조직개혁, 비리척결, 자치도시의 개발과 지방분권화, 법치주의 강화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87) 특히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페루 등에서 교육개혁의 초점을 교육의 질 향상에 두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USAID Web]

Box 3-2 미국의 대 중남미 원조 사례: '선정과 민주주의' 부문

- ◇ **콜롬비아** 지역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와 협조, 333개의 시민 감시기구를 조직.
- ◇ **볼리비아** 농촌지역의 사법시스템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지 법무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Integrated Justice Centers를 설립을 지원.
- ◇ 재판과정 ·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테말라**의 사법개혁에 대해 지원.
- ◇ **쿠바** 인권단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비공식적 지원과 함께, 독립적 NGO들의 양적 증가와 질적 강화 지원.

역내 평화와 안전구축

미국은 이 지역에서 마약과 인신매매 제재, 그리고 정부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역내 안전을 강화하는데 지원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마약상 검거 등의 일차적 방법에서 벗어나, 마약재배농가에 대해 생존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등 다각도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마약 퇴치를 위해서는 멕시코를 포함, 중미지역의 불법 마약 밀수, 범죄 퇴치 등을 목표로 하는 메리다 이니셔티브(Merida Security Initiative)와 안데스지역 마약퇴치 프로그램(Andean Counter-Drug Program)등의 지역규모 이니셔티브를 수립, 추진 중이다.

Box 3-3 미국의 대 중남미 원조 사례: '역내 평화와 안전구축' 부문

- ◇ **안데스지역**내 현재 마약재배지 혹은 잠재적 재배지역의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마약재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4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 ◇ 2003년부터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 국경지방간 분쟁 예방프로그램을 운영
- ◇ **중미지역** 지방정부의 법치주의 확립과 갱단예방 · 곤경에 빠진 청소년(Youth at Risk)프로그램을 통한 범죄 · 폭력예방을 지원.

상기 지원 분야 중 중점전략분야는 역내 평화와 안전구축으로서, 이 중에서도 마약퇴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분야 예산은 최근 들어 중남미 지역에 대한 분야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008년 배정된 예산은 10억 불 선으로 이는 미국의 대중남미 원조 예산의 50%에 해당되며, 이러한 집중 지원은 2009 회계연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⁸⁸⁾ 특히 마약퇴치에 대한 지원분은 지난 2년간 급등하여, 2007 회계연도에는 5,700만

88) US Department of State (2008), *International Affairs FY2009 Budget Justification*, Washington DC: US Dep. of State

불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 8억7,210만 불로 증가했고, 2009년 의회에 인준 요청된 예산만 9억8,000만 불임을 볼 때, 최근 들어 증대되고 있는 중남미 마약퇴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볼 수 있다.

이 밖에, HIV/AIDS 퇴치, 영유아 사망률 감소와 관련, 보건의료 분야에 연 3천억 불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경제기회의 확대, 민주주의와 선정과 관련하여 2천억-3천억 불이 지원되고 있다.

〈표 3-2 미국의 대 중남미 원조예산안 내역(FY2008-2009)〉

분 야	FY 2008*	FY 2009
경제적 기회의 확대	216,039	228,500
성장을 위한 거시적 기초	1,700	3,455
무역과 투자	57,455	70,536
재정부문	1,743	6,369
민간부문의 경쟁력	19,835	37,260
경제적 기회	4,377	4,230
환경	79,215	57,151
인프라	200	2,708
민주주의와 선정	291,060	227,253
법치주의와 인권	174,894	97,486
선정	43,484	68,627
공정한 경쟁과 컨센서스 확립	19,751	23,383
시민사회	49,931	37,557
인간에 대한 투자와 인도주의적 지원	382,311	334,650
보건의료	292,865	246,600
교육	47,868	48,658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보호 서비스	41,578	39,392
역내 평화와 안전구축	1,081,298	1,224,899
대테러전	14,145	10,385
대량살상무기 관련	1,900	1,920
안전유지 및 안보분야 개혁	145,189	158,611
마약퇴치	872,100	981,803
범 국가간 범죄	25,964	47,180
분쟁예방 및 해소	22,000	25,000
인도적 지원	1,000	900
보호, 지원과 방법	-	-
재해 예방	1,000	900
프로그램 지원	45,680	32,410
총계	2,017,388	2,048,612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 (2008), *International Affairs FY2009 Budget Justification*,
Washington DC: US Dep. of State

단위: 1,000불

*예산 추가편성 분까지 포함한 최종치

4) 사업형태

프로젝트 사업(인프라구축 및 물자지원)

학교, 병원, 교량 등의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 지원

중남미 지역에 대한 미국의 프로그램 지원은 HIV/AIDS와 관련한 지원국별 보건계획(Health Plan)에 대한 섹터별 지원 형식을 띠고 있다. 현재 아이티, 온두라스의 보건계획에 대해 지원 중이다. 아프리카에서와는 달리 일반예산지원(General Budget Support)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기술협력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PeaceCorps)파견, 연수프로그램, 중남미 우수학생의 미국유학지원 등이 있다. 해외봉사단(PeaceCorps)는 1961년부터 59,532명의 인력을 중남미 지역에 파견되었으며, 현재 17개국에 2,337명이 파견되어 활동 중이다.

〈표 3-3 미국의 대 중남미 해외봉사단(PeaceCorps) 파견현황〉

파견국	파견역사	파견인력현황	
		현재	누적
벨리즈	1962-현재	65	1,757
코스타리카	1963-현재	112	3,148
엘살바도르	1962-1980, 1993-현재	175	1,939
온두라스	1963-현재	194	5,375
멕시코	2004-현재	44	60
니카라과	1868-1979, 1991-현재	194	1,716
파나마	1963-1971, 1990-현재	174	1,652
과테말라	1963-현재	184	4,366
동카리브해 연안국	1961-현재	139	3,655
도미니카공화국	1962-현재	193	3,868
자메이카	1962-현재	104	3,548
볼리비아	1962-1971, 1990-현재	163	2,670
에쿠아도르	1962-현재	155	5,623
가이아나	1967-1971, 1995-현재	42	470
파라과이	1967-현재	187	3,179
페루	1962-1975, 2002-현재	168	2,632
수리남	1995-현재	44	311
콜롬비아	1961-1981	0	4,638
베네수엘라	1962-1977	0	2,134
브라질	1961-1981	0	4,150
아르헨티나	1992-1984	0	38
칠레	1962-1982, 1991-1998	0	2,096
아이티	1982-1987, 1990-1991, 1996-2005	0	507
합계		2,337	59,532

출처: PeaceCorps 웹사이트(<http://www.peacecorps.gov>)

*2008.9.30 기준 자료

연수프로그램에는 초청연수, 현지연수, 제3국 연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한편, 미국 유학지원 프로그램(Cooperative Association of States for Scholarship)은 2003년 이후 장래 중남미 국가의 지도자가 될 우수 1,827명의 중, 고등, 대학생의 미국 유학을 지원, 이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해 왔다.

개발식량원조

미국은 자국의 잉여농산물을 중남미 지역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자국농민만 보호하고, 헐값에 잉여식량을 개도국에 보냄으로써 개도국의 농촌개발을 저해하고 이들이 미국의 농산물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잉여식량의 지원과정에서 미국 선박회사 등 자국의 기업들만 참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이를 비구속성(untied)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2007 예산연도에 1억 불에 달하던 대 중남미 개발식량원조의 규모는 미 정부의 비긴급성 식량지원 감축 방침⁸⁹⁾에 따라, 2008 예산연도 7,696만 불, 2009 예산연도 6,150만 불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긴급재난구호

재난민에 대한 긴급성 식량, 의약품 지원 등의 긴급 구호와 함께, 기상관측법, 조사, 대피 체계 마련 등 재난 예방과 준비를 위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긴급재난구호와 관련해서는, 국가 단위 뿐 아니라 중남미지역 단위 프로그램⁹⁰⁾도 다수 수립되어 추진 중이며, 프로그램 추진 시 수원국 정부기관뿐 아니라 IRG(International Resources Group), PADF(Pan American Development Foundation), PAHO(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등의 NGO, 사립재단, 지역기구,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다.

부채탕감

2006년 부채탕감관련 지원 액수는 2004년 9,000만 불, 2005년 1억2,300만 불에 비해 대폭 줄어들은 1,000만 불 규모였다. 아이티를 제외하고는 LDC가 없는 중남미지역에서는 부채탕감 관련 지원이 아프리카에서처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NGO 및 다자간 기구를 통한 지원

긴급구호, 경제적 기회의 확대(특히 마이크로크레딧 분야) 부문에서 자국 NGO 및 현지

89)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 (2008), *International Affairs FY2009 Budget Justification*, Washington DC: US Dep. of State

90) Assessment of LAC(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isk Management Curricula, Regional Disaster Assistance Program,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Disaster Assistance, Emergency Health Preparedness Program 등이 있다.

NGO와 제3국 기관을 통해서 다수의 사업 수행을 하고 있다.

이 밖에 UN, OAS, IDB 등 다자간기구를 통한 대외원조사업 수행은 투명성 부족, 관료주의 등을 이유로 전통적으로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 한편, 지난 10여 년간 외주가 산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의 일관성, 외주 기관·컨설턴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투명성, 책임체계 등이 문제가 되어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현재 미 행정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 대외원조개혁안에서 핵심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동시에 내·외부에서 최강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분담과 적절한 다자기구 활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NGO 혹은 다자기구를 통한 사업 수행의 증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이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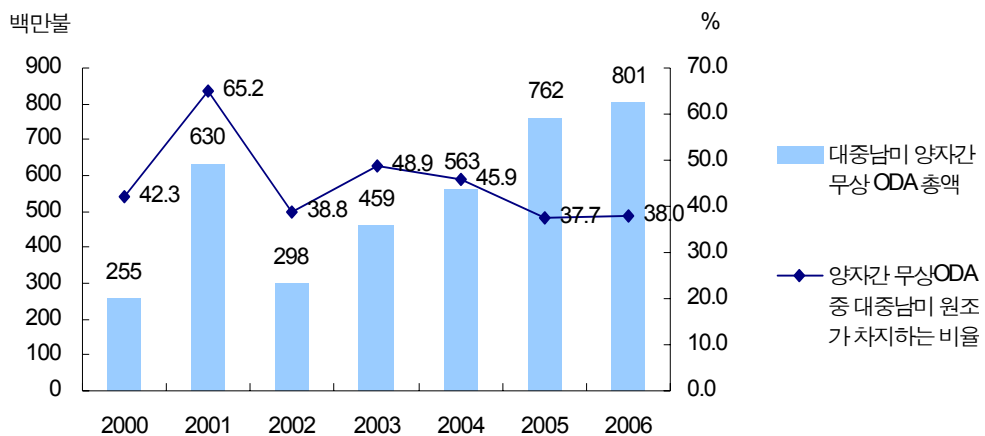
2. 스페인

1) 대 중남미 ODA의 규모와 비중

스페인은 2006년 8억7,600만 불⁹¹⁾의 양자간 ODA를 중남미 지역에 지원했으며 이 중 무상 액수는 8억100만 불⁹²⁾이었다. 중남미는 스페인 대외원조의 최대 수원지역으로서, 2006년 기준 스페인 전체 양자간 무상ODA의 38%를 차지하였다.

중남미지역은 상대적으로 대 아프리카 원조의 비중이 증가한 2000년 이후에도 꾸준히 평균 46%선을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 3~4년간 대 아프리카 원조의 급등세와 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따라 대 중남미 원조의 비중 소폭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스페인의 전체 ODA 규모의 급증에 따른 결과로 그 총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래프 3-3 스페인의 대 중남미 양자간 무상ODA의 변화(2000-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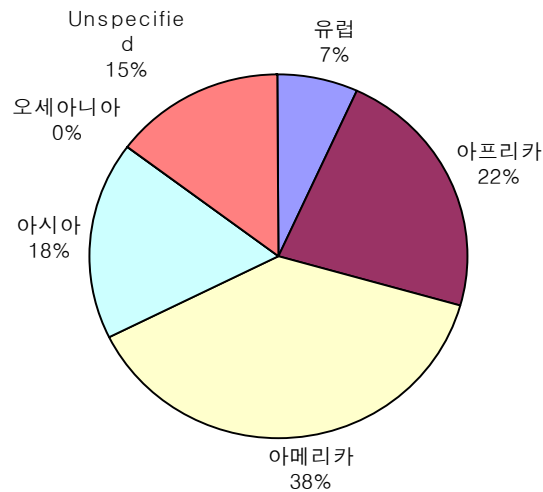


자료: OECD/DAC 공식통계를 재구성

91) <http://stats.oecd.org/WBOS>

92) 순지출 기준

〈그래프 3-4 스페인의 양자간 무상ODA 지역분포(2006년)〉



자료: OECD/DAC 공식통계를 재구성

이렇듯 중남미 지역이 스페인의 대외원조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2006년 스페인의 전 세계 상위 10개 수원국의 절반을 중남미 국가가 차지하고 있고, 최대 수원국인 과테말라(2억 2,443만 불)가 이라크(1억9,217만 불)⁹³⁾보다 더 큰 규모의 원조를 받은 것을 보면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대 중남미 원조의 비중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스페인 정부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향후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결정함에 따라, 대 중남미 원조는 40%선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ODA총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 중남미 원조의 절대적인 액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⁹⁴⁾

2) 협력대상국 현황

스페인은 중남미 지역 내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 원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세 가지로 나눠 원조의 집중도에 차이를 두고 있다.

93) 순지출 기준, (<http://stats.oecd.org/WBOS>)

94) OECD/DAC (2007), *Peer Review of Spain*, Full Report, p34, Paris: OECD

〈표 3-4 2005-2008 개발협력 마스터플랜에 의한 스페인의 중남미지역 협력대상국 분류〉

중점지원국가 (Priority Countries) 10개국	특별주의국 (Special Attention Countries) 3개국	특혜국 (Preferential Countries) 7개국
중점지원국가	국가기반이 취약하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거나, 특별한 상황에 처해 개발협력사업 시 특별한 관심이 요망되는 국가들	국가 면적이 넓거나 혹은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낮거나 경제·사회적 빈곤층 인구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페루	쿠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파나마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출처: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2005), *The Master Plan for Spanish Cooperation 2005-2008*, p72, Madrid: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중점지원국가는 말 그대로 원조의 배분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 해당되는 국가들을 뜻하며, 아이티, 니카라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저중소득국(LMIC)에 해당된다. 각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Strategic Country Document(SCD)가 수립, 추진된다. 이 SCD에서는 해당국의 국가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이하 PRSP)과 이에 대한 스페인의 비교우위 분야를 적극 고려하여, 중장기 지원 전략, 사업형태, NGO, 다자간 기구 등 개발협력파트너와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특별주의국(Special Attention Countries)은 쿠바, 콜롬비아 등, 정치,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국가들을 포함한다. 특혜국(Preferential Countries)은 국가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 성적은 양호하나 국가 내 사회, 지리적 요인에 따른 취약층이 많은 국가들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개별적인 특별 상황에 대한 Special Plan of Action이 수립, 추진된다.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볼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등 10개 중점지원국가에 양자간 ODA의 약70%가 집중되었다.⁹⁵⁾ 중남미지역 상위 10대 수원국은 다음과 같다.

〈표 3-5 스페인의 대 중남미 무상ODA 10대 수원국(2006년)〉

	국가명	액수(단위: 백만 불)
1	과테말라	224.43
2	페루	83.86
3	콜롬비아	54.13
4	엘살바도르	52.99
5	볼리비아	49.03
6	에쿠아도르	37.57
7	온두라스	32.78
8	니카라과	31.78
9	도미니카공화국	20.99
10	쿠바	17.57

출처: <http://stats.oecd.org/WBOS>, 순지출 기준

3) 대 중남미 정책방향 및 지원 분야

스페인 원조의 역사는 중남미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페인 전체 원조의 기본 정책과 방향은 1984년 '대중미 통합협력플랜(Integrated Cooperation Plan with Central America)' 제정을 계기로 그 틀이 구축되기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1988년 현 원조전담기관의 전신인 스페인 개발협력청(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이하 AECI)이 세워지는 등, 스페인 원조 역사의 출발점부터 중남미 지역은 그 중심부에 자리해왔다.

스페인의 대 중남미 원조는 그 중요성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페인 개발협력법(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Act No. 23/98)은 스페인

95) OECD/DAC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산출 한 것임.

개발협력 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역별 우선순위를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중남미,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비롯, 기타 스페인이 역사적, 문화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는 저개발국에 대해 우선적인 원조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현 스페인 대외원조의 틀인 개발협력마스터플랜(2005-2008)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여기서는 대 중남미 원조를 전체의 40%이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발협력마스터플랜(2005-2008)에 기초한 대 중남미 원조사업의 전략 분야는 다음과 같다.⁹⁶⁾

- ◇ 민주주의적 선정, 시민의 참여와 제도적 발전을 통한 사회제도적 능력 향상
- ◇ 다양한 사회적 요구 충족을 통한 인적 역량 강화
 - 자주적 식량공급과 기아해소
 - 교육
 - 보건의료
 - 취약계층 보호
 - 기본적인 주거
 - 수자원과 기본적 폐수시설에 대한 접근
- ◇ 경제와 비즈니스 장려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능력 향상
- ◇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 ◇ 문화와 개발의 연계를 통한 문화적 역량 강화
- ◇ 여성의 능력과 자립성 향상
- ◇ 분쟁 예방과 해결

2005년 지출 액수를 통해 본 전략 분야별 비중은 다음과 같다.

〈표 3-6 2005년 스페인의 대 중남미 ODA 전략분야별 비중〉

개발협력마스터플랜(2005-2008)의 전략분야	2005년 비중(%)
민주주의적 선정, 시민의 참여와 제도적 발전을 통한 사회 제도적 능력 향상	7.19%

96) 여기에는, ①빈곤감소, ②인권보장, ③양성평등, ④환경의 지속가능성, ⑤문화의 다양성 존중 등의 사항들이 크로스 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s)로서 스페인의 모든 섹터별 원조사업은 이 크로스커팅 이슈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 충족을 통한 인적 역량 강화	33.70%
- 자주적 식량공급과 기아해소	2.47%
- 교육	13.36%
- 보건의료	5.36%
- 취약계층 보호	3.70%
- 기본적인 주거	3.46%
- 수자원과 기본적 폐수에 대한 접근	5.35%
경제와 비즈니스 장려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능력 향상	17.11%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3.17%
문화와 개발의 연계를 통한 문화적 역량 강화	6.79%
여성의 능력과 자립성 향상	2.14%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	0.90%
기타 지역 활동	29.00%
총계	100%

출처: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2007), *Seguimiento del PACI 2006*, p213,
Madrid: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스페인인 중남미 지역에서 경제발전 능력향상(17.11%), 교육(13.36%)과 민주주의·선정(7.19%)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점 지원분야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향상에 관한 스페인의 대 중남미 지원은 중·소상인이나 농촌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금융대출(Microcredit)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에 있어서는 예전의 보편적인 초등교육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이후, 현재는 교과서 보급 등 초, 중, 고등교육의 질적인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선정 부문은 선거개혁, 공공서비스 개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부패방지 등을 위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주력분야 사업 추진 시, 스페인과 해당 중남미 국가의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 정부 및 자치단체, NGO의 참여가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스페인이 전통적으로 타 공여국에 비해 열세로 분류되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은 5%선에 불과하다. 이는 전략분야 선정과 실행에 있어서 언어, 사회, 문화, 정치적 연관성으로 다져진 스페인의 비교우위 여부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하겠다.

Box 3-4 스페인의 대 중남미 개발협력 프로그램(Programas de Cooperación)

한편, 스페인은 중남미 지역에서 지역적인 범주에서 섹터별로 이루어지는 개발협력 프로그램(Programas de Cooperación)을 다수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아라우카리아 21 프로그램(Programa Araucaria XXI)와 원주민의 자유와 문화적 역량강화에 관한 원주민 프로그램(Programa Indígena)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환경, 지역협력 및 통합, 지방자치제를 통한 민주주의 확립, 농촌개발, 원주민 권익보호 등의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이 지역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요소(언어, 인종, 문화)를 극대화해 범지역적 프로그램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간 사업의 유기성과 교류확대, 비용절약 등을 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사기업, NGO 등 다양한 개발 주체와 협력하고 있다.

◇ 아라우카리아⁹⁷⁾ 프로그램 XXI(Programa Araucaria XXI)

1997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스페인-중남미간 환경분야 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 자연자원의 경영, 커피재배지역의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경영, 환경의 지속가능한 사용 등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취약층이나 원주민의 사회결속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프로젝트, 테마별 사업 혹은 사업조사, 특별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중남미 10개국에서 11개의 포괄적인 프로젝트와, 콜롬비아, 볼리비아, 과테말라에서 30개의 테마별 사업, 40개의 교육과정 등을 개설, 추진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스페인 외교부, AECI, 지방자치단체, NGO, 대학과 사기업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원주민 프로그램(Programa Indígena)

2005년 채택된 개발협력마스터플랜에서 원주민의 자유와 문화적 역량강화가 강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플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원주민 이슈에 대한 스페인의 새 전략(Estrategia Española de Cooperación con los Pueblos Indígenas, ECEPI)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NGO, 정부부처들의 협력 아래 수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인 의제 결정 프로세스에 원주민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 미디어를 원주민의 개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기위한 프로젝트
- 원주민 대표기구·공동체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원주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원
- 원주민과의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출판 활동 등

◇ 안데스지방 프로그램(Programa Regional Andino)

안데스 지역 국가들의 사회통합과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한 프로그램으로서 민주주의 강화, 국가기관의 강화, 환경보호 경영 능력의 강화, 관광분야 개발, 양성 평등 등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스페인은 이 프로그램에 1억8,000만 유로를 지원했다.

◇ 중미 지역협력프로그램(Programas de Cooperación Regional con Centroamérica)

개발 분야에 있어서 지역 내 공공정책의 조화와 조정, 협력을 통해 지역 통합적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커피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양성평등, 보건, 교육의 질, 직업교육, 자연재해예방, 중미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을 망라하며, 분야별 국가별로 정부부서, NGO,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2007-2008년 기간 예산은 3천만 유로에 달한다.

◇ 중남미 특별기술교육 프로그램(Programa Iberoamericano de Formación Técnica Especializada, PIFTE)

1987년 볼리비아에 최초로 교육센터가 들어선 이후, PIFTE는 중남미지역 정부 관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 지역 국가가 중앙정부시스템의 강화와 함께, 여성, 토착민 등 소외계층을 포함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아오고 있다. 주요 교육 분야는 민주주의, 시민참여, 공공서비스, 사회보장제도, 비즈니스와 경제 분야, 환경보호, 문화, 양성평등, 분쟁예방 및 재건 등, 광범위하다. 또한, 역내 국가 간 교류확대와 경험의 비교를 위해 공무원의 순환근무도 장려하고 있다. 중남미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다자간 기구들(NDP, 세계은행, ILO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지방정부 프로그램(Programa Municipia)

지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및 민주화를 통해 지역레벨의 경제·사회·문화적 개발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양성평등, 환경보호, 문화적 연대감 형성, 소수 계층의 정치참여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프로그램 입안과 사업수행에 있어서 스페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자료: AECI 웹사이트(<http://www.aeci.es>)

4) 사업형태

스페인의 대 중남미 원조형태는 프로젝트 사업, 기술협력 등 기존의 수단과 섹터별 원조(Sector Wide Approach, 이하 SWAp), 일반예산원조(Budget Support) 등 새로운 방법을 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97) Araucaria란 칠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목종이다.

프로젝트(인프라 구축 및 물자지원)

사회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물자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협력

기술협력에 있어서는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개발조사, 봉사단 파견뿐 아니라, 중남미 지역과 공유하고 있는 언어, 문화적 공통점을 살려 **교환 학생 및 교환교수 프로그램**, 그리고 중남미 지역 우수학생의 **스페인 유학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스페인과 중남미 지역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자치단체 간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선정 분야와 관련된 부문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지원 방식에 대한 스페인의 의지는 개발협력마스터플랜(2005-2008)에 천명되었다가, 2008년 그 보충판 격인 기술 가이드북에서도 빈곤 감소에 대한 수원국의 주인 의식 및 역량강화 측면에서 강조하게 되는 지원 형태이다.

국가 단위에서는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지의 빈곤감소전략(PRSP)에 대한 일반예산지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 130만 불 정도로 아직 그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⁹⁸⁾

긴급구호

중남미 지역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구호는 주로 긴급식량 및 물자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타 지원방식에서와는 달리 긴급구호는 스페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NGO와의 협력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량지원

스페인은 중남미 지역에 연간 1,000만 불 가량의 개발식량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난민에 대한 지원

난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분쟁, 빈곤 혹은 기타 정치·사회적 이유로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민들에 대한 긴급구호성 지원 및, 타국으로 피난한 이들의 본국 귀환과 사회·경제적 활동 기회의 확대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98) 2006년 기준. 출처: OECD/DAC 공식통계(<http://stats.oecd.org/WBOS>), Gross Disbursement 기준

부채탕감

스페인인 전통적으로 대 중남미 최대 부채탕감 공여국으로서, 2006년 기준, 중남미 지역에 1억8,000만 불 규모의 부채탕감⁹⁹⁾관련 지원을 제공했다.

NGO를 통한 지원

NGO를 통해 수행되는 개발원조는 스페인의 대 중남미 원조 내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남미 전체로 보면 2006년 기준 전체 양자간 ODA의 36.13%가 NGO를 통해 수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¹⁰⁰⁾ 이는, Accion contra el hambre(Action Against Hunger의 스페인 지부)와 같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NGO의 스페인 지부들이 타 지역 지부들과의 원조 분업 차원에서 중남미 지역에만 집중해옴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축적,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개발원조 제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타 유럽국가와는 달리 수원국의 역사가 길었고, OECD/DAC 가입도 1997년에야 이루어지는 등, 공여국으로서 정부 차원에서의 ODA사업이 비교적 오랫동안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 민간 NGO를 통한 개도국, 특히 중남미 지역 국가 지원의 역사가 길었던 스페인 특유의 원조역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99) 출처: OECD/DAC 공식통계(<http://stats.oecd.org/WBOS>), Gross Disbursement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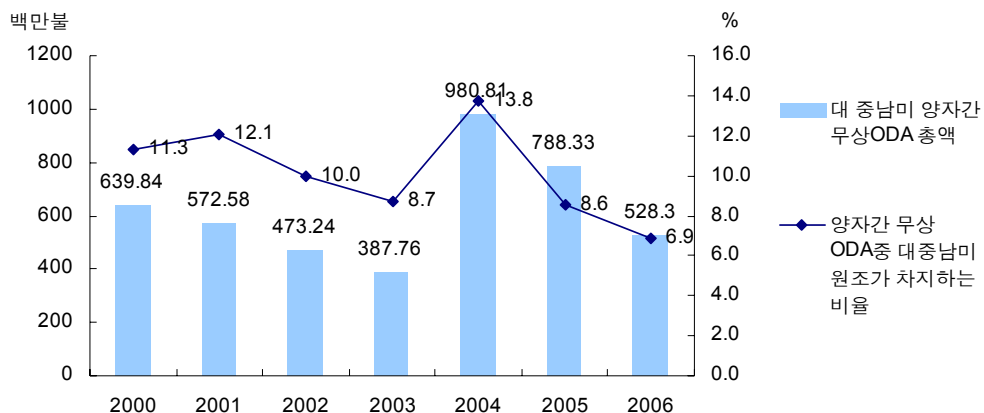
100)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2007), *Seguimiento del PACI 2006*, p213, Madrid: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3. 일본

1) 대 중남미 ODA의 규모와 비중

2006년 일본의 대 중남미 양자간 ODA는 8억1,586만 불¹⁰¹⁾, 이 중 무상은 5억2,830만 불¹⁰²⁾이었다. 2004년 일-중남미 신 파트너십 구상과 2005년 일-중미 협력의 해 제정을 계기로 단기적으로 반등하기는 했어도 2000년대 대 중남미 무상ODA의 액수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 비중 역시 2000년 11.3%였던 것이 2006년 6.9%¹⁰³⁾로 내려갔다.

〈그래프 3-5 일본의 대 중남미 양자간 무상ODA의 변화(2000-2006)〉



자료: OECD/DAC 공식통계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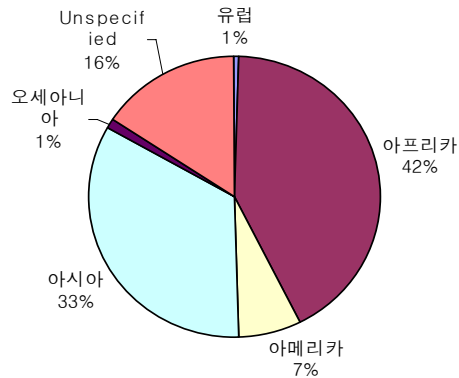
일본의 2006년 대 중남미 무상ODA의 비율은 6.9%로서, 이는 아프리카(42%), 아시아(3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일본의 중점 협력지역이었고, 아프리카는 1993년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I을 기점으로 일본의 대 아프리카 협력외교 중대가 가속화되면서, 1990년대 12%를 상회하던 중남미에 대한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101) OECD 공식통계(<http://stats.oecd.org/WBOS>)

102) 순지출 기준. OECD 공식통계(<http://stats.oecd.org/WBOS>)

103) OECD 공식통계(<http://stats.oecd.org/WBOS>)를 토대로 계산

〈그래프 3-6 일본의 양자간 무상ODA 지역분포(2006년)〉



자료: OECD/DAC 공식통계를 재구성

2) 협력대상국 현황

2006년 기준, 일본은 32개 중남미 국가 전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중점 협력 대상국을 규정화하지는 않고 있다.

국가별 순서를 보면 온두라스, 볼리비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 저소득국(LIC) 또는 중저소득국(LMIC)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고중소득국(UMIC)으로 분류되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도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본 장의 '4) 사업형태'에서 알아보게 될 것이다.

〈표 3-7 일본의 대 중남미 무상ODA 10대 수원국(2006)〉

	국 명	총액(백만불)
1	온두라스	138.02
2	볼리비아	101.00
3	과테말라	36.17
4	니카라과	35.94
5	브라질	24.59
6	엘살바도르	19.30
7	파라과이	19.17
8	멕시코	14.79
9	페루	12.94
10	도미니카공화국	11.01

출처: OECD 통계(<http://stats.oecd.org/WBOS>)

3) 대 중남미 정책방향 및 지원 분야

2003년 8월 제정된 '신 ODA헌장'¹⁰⁴⁾은 우선순위 지역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일본의 주력지역인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필요와 발전정도를 고려, '신 ODA헌장'에 명시된 기초 목표, 기초 정책 및 우선 과제 등을 바탕으로 하는 유연한 원조 정책을 추구한다¹⁰⁵⁾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와 관련해서는 고소득국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서국가간 격차에 주시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협력을 실시하겠다고¹⁰⁶⁾ 밝히고 있다.

Box 3-5 일-중남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

일본은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교역과 문화, 스포츠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2000년대 들어와 기존의 일-중남미 관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중남미 신 파트너십 구상'(2004)

1990년대 일본의 경제침체로 소원해 졌던 일-중남미 지역 간의 무역·투자 교류 촉진과 일본 기업의 중남미 자원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15일 고이즈미 당시 일본총리가 발표하였다. 동 구상은 일-중남미 간 경제관계 강화,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 지역 공조강화, 스포츠, 문화교류협력 강화 등을 포함하였다. 이 중 ODA관련 요지는 다음과 같다.

- ◇ 향후 5년간 중남미 청년 4000명에게 일본 연수기회 제공
- ◇ 중남미에 대한 ODA증액
- ◇ 중남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기업 참여 확대

104)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3),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harter*, August 29, 2003

105)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3),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harter*, p4, August 29, 2003

106)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3),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harter*, p5, August 29, 2003

'일-중미의 해'(2005)

2005년 일본은 SICA회원국들과의 수교 70주년을 기념, '일-중미의 해'로 지정하였다. SICA회원국과의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행동강령'(Points of the Action Plan)을 제정하였다. 본 행동강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FEALAC(Forum for East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 등의 협의체를 통한 대화 와 협력의 증진
2. 평화와 민주주의 구축
 -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Advanced Police Studies에 대한 지원강화
 - 중미 지역의 대인지뢰 제거
3. 경제, 개발, 관광, 자연재해감소와 관련된 협력
 - 인적자원 개발
 - SICA를 활용한 지역차원의 협력강화
 - 'Initiative for Central American Cooperation Network'는 SICA 회원국 중 저점 국가에 대해 일차적으로 지원, 이후 관련 노하우를 타국에 전파하는 방식이며, 'Special Courses for Capacity Building in Central America'는 중미 지역의 니즈(needs)에 맞는 교육, 의학, 자연재해 감소 분야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겠다는 것
 - SICA 회원국의 관광업 개발 장려
 - 자연재해와 관련, 긴급구호와 기술협력을 지속
4. 교육, 문화, 스포츠, 청소년 교류 강화
 - 교육: 온두라스의 초, 중등교육의 수학교수법(Teaching Methods in Mathematics) 강화, 개선 및 타국 전파 지속
 - 청소년 교류: 향후 5년간 약 1,000명의 청소년을 교환프로그램이나 연수생으로 초청
 - 스포츠 교류: JOCV 파견을 통한 스포츠 장려
5.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지지 원칙
 -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WTO 도하라운드 조기타결을 위한 협력

일본은 중남미 지역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국이 많은 남미, 그리고 이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중미, 두 가지로 나누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상대적으로 고소득국가가 많이 위치한 남미에서는, 지역 내 국가 간 소득 격차에 주목, 중저소득국(LMIC)의 빈곤퇴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빈곤퇴치가 이 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인 불안정과, 마약, 공공치안, 환경 문제를 포함하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보고,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시각에서 이들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각 남미 국가들의 우선순위인 동시에,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할 대목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⁰⁷⁾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의 대 남미 개발원조의 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빈곤감소 지원
- ◇ 무역,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¹⁰⁸⁾
- ◇ 식량공급 능력을 개선 · 증대를 포함, 천연자원의 적절한 경영에 대한 지원¹⁰⁹⁾
- ◇ 지역 결속력과, 지역 내 협력관계 강화
- ◇ 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계 인구(Nikkei)¹¹⁰⁾와의 적극적인 협조

남미에 비해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중미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는, 빈곤감소를 개발을 앞당기는데 필수적인 우선 과제로 보고, 취업기회의 확대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줄 경제적 성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각국의 경계를 벗어나 지역적인 스케일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역 우선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기초교육의 양적, 질적 향상도모
- ◇ 영유아 보건, 모자보건, HIV/AIDS 등 전염병 퇴치를 위한 지원
- ◇ 농촌개발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 ◇ 사회 · 경제 인프라 건축
- ◇ 쓰레기 처리와 수자원 환경보호
- ◇ 자연재해예방에 관해 SICA, CARICOM 등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범지역적 접근¹¹¹⁾
- ◇ 시민의 안전 구축을 위해 현지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접근¹¹²⁾

107) Website <http://www.jica.go.jp>

108) 대기오염, 수질오염, 도시지역의 쓰레기처리, 생물의 다양성, 아마존 밀림과 갈라파고스 섬의 환경보존 등. 일본은 아르헨티나 등 역내 고소득국가에 대해 교토협약(Kyoto Protocol)의 중요한 축인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 전문가를 파견하고 역내세미나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109) 천연광물자원에 대한 조사,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110) 현재 중남미 지역에는 브라질에 140만, 중미 지역에 8만 등 총 155만 명의 일본계 후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 SICA산하의 Center of Coordination for the Prevention of National Disaster in Central America, CARICOM 산하의 Caribbean Disaster Emergency Response Agency와 협력하고 있다.

112) SICA 산하의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Advanced Police Studies와 UN Latin American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와 현지 협력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경찰제도 전수를 위해 현지 관계자의 일본 초청연수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중남미 지역의 통합을 장려하는 관점에서 환경, 경제개발, 빈곤퇴치 등 안전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을 위한 협력과, 역내 인프라 통합 등을 통한 경제관계의 재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양립되는 과제를 함께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3-8 일본의 대 중남미 분야별 지원액(2006)〉

섹터	2006년 액수
I. 섹터별 분류가 가능한 부분	299.6
1) 사회 인프라와 서비스	168.0
교육	54.4
보건의료	36.8
인구와 생식보건 프로그램	1.1
수자원에 대한 접근 및 하수처리	28.4
선정과 시민사회 ¹¹³⁾	22.8
선정과 시민사회 - 일반	22.8
분쟁 예방과 해결	-
기타 서비스와 사회 인프라	24.5
2) 경제 인프라와 서비스	22.4
교통, 물류	12.1
통신	6.3
에너지	0.6
은행 및 금융 서비스	0.6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2.8
3) 공업 및 제조업	84.4
농림수산업	60.8
산업, 광업, 건축업	18.8
무역 정책과 규제	2.4
관광업	2.4
4) 멀티섹터	24.8
환경보호	13.2
기타 멀티섹터	11.6
II. 프로그램에 대한 물자·예산지원	4.2
1) 일반예산지원*	-
2) 식량지원	4.2
3) 물자지원	-
III. 부채탕감 관련	178.5
IV. 긴급구호 관련	0.3
V. 행정경비	-
VI. NGO에 대한 지원	29.9
VII. 난민에 대한 지원	-
VIII. 기타	13.8
총 계	526.3

출처: OECD/DAC 공식통계(<http://stats.oecd.org/WBOS>)

113) 이 중 여성단체 지원액으로만 약 41.22%에 해당하는 21.3 백만 유로를 지출했다

지원 분야를 비중별로 보면, 일본의 비교우위로 간주되는 농림수산업과 수자원 관련 분야의 지출이 가장 컸다. 특히 일본의 대 중남미 지원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것은 수자원 관련분야로, 일본은 기타 공여국과 대비한 수자원 분야 원조 총액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일본은 2004-2006년 기간 동안 총 2억6,780만 불¹¹⁴⁾을 지출, 2위인 미국(1억4,420만 불¹¹⁵⁾)의 두 배 가까운 액수를 중남미 수자원 분야에 지원했다.

〈표 3-9 중남미지역 수자원 관련 공여국 현황(2004-2007)〉

	공여국	수자원 관련 지출액* (단위: 백만 불)
1	일본	267.8
2	미국	144.2
3	스페인	126.4
4	독일	111.6
5	네덜란드	26.4
6	캐나다	20.8
7	스위스	19.3
8	영국	12.1
9	벨기에	11.1
10	프랑스	8.1

출처: OECD/DAC 공식통계(<http://stats.oecd.org/WB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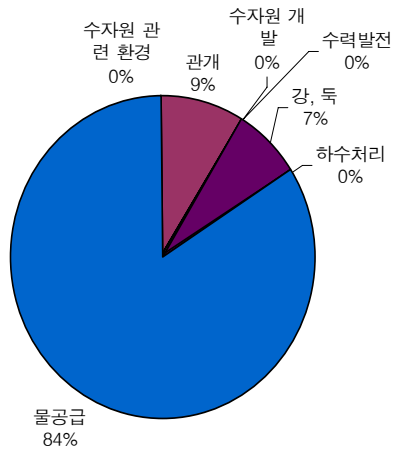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140: Water Supply & Sanitation

일본은 ①통합적인 수자원 경영(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의 보급, ②효과적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③홍수통제능력 개선, ④물 환경 보존을 목표로 환경, 관개, 수력발전, 하수처리, 물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물 관련 원조는, 화산암 기반의 도서국가인 일본이 물의 양은 풍부하지만, 이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쓰고, 관련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자주적인 생존을 위한 급선무인 이유로 수세기에 걸쳐 노하우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나름대로의 비교우위 분야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식량의 외부 의존도가 높은 일본으로서는, 주요 식량생산국의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경영이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인 일이며, 따라서 자국의 식량보급에도 영향이 미치는 일이라고 보고, 전략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114) 출처: OECD/DAC 공식통계(<http://stats.oecd.org/WBOS>)

115) 출처: OECD/DAC 공식통계(<http://stats.oecd.org/WB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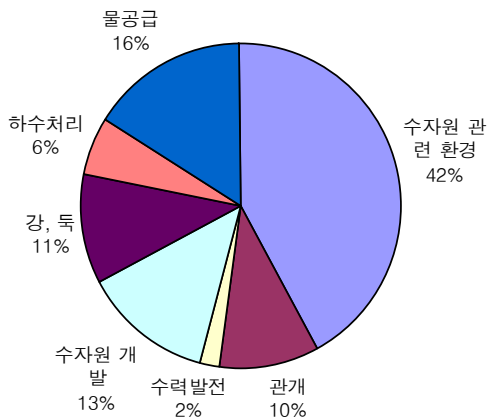
〈그래프 3-7 JICA의 수자원 관련 무상원조 프로젝트 현황(1997-2006)〉



1997-2006년 프로젝트사업
누적총계는
3억5천만 불

자료: JICA (2008), *To Live With Water, JICA's Approach To The Water Resources Sector*, p4

〈그래프 3-8 JICA의 수자원 관련 기술협력 현황(1997-2006)〉



1997-2006년 기술협력
누적총계는
1억6천만 불

자료: JICA (2008), *To Live With Water, JICA's Approach To The Water Resources Sector*, p4

Box 3-6 수자원 관련 일본의 대 중남미 원조의 내용(1994-2003)

◇ 브라질

- ① 기술협력(전문가파견) - 개별 전문가 파견 사업을 통한 2개월짜리 단기 전문가(물 제공 시스템 정비)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물 제공 시스템에 대한 누수관리를 실시(2개월)
- ② 엔 차관 - 1996년 일본은 브라질에 파나마 주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2억 달러를 지원

◇ 볼리비아

- ① 전문가파견

지도과목	파견기간
개별 전문가 장기파견(상수도 계획)	2년 간(1993-95)
개별 전문가 단기파견 세미나(물 공급, 지하수 개발)	6주 간(1994)
개별 전문가 파견사업 장기전문가(지방 상수도 계획)	3년 간(1996-99)
개별 전문가 파견사업 단기전문가(수모 및 누수방지)	10일 간
개별 전문가 파견사업 단기전문가(지방 상수도 계획)	2년간(1999-2001)

- ② 무상자금지원

연도	안건 명	금액(백만 불)
1988	엘알토 시 지하수 개발계획	15.4
1989	엘알토 시 지하수 개발계획	6.3
1991	코차밤바 시 상수도 정비계획	12.3
1996	지방 지하수 개발계획(1/2 기)	16.1
1997	지방 지하수 개발계획(2/2 기)	12.0
1999	제2차 지방 지하수 개발계획	6.4

- ③ 개발조사 - 라파스 시 엘.알토 지역 지하수 개발계획(1987)

※ 1991년 국가계획에서 2000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53%에서 70%로(도시부는 74%→80%, 지방부 30%→60%)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달성하지 못한 상태임.

◇ 페루

- ① 기술협력(전문가파견) - 수질관리 및 검사기술, 상수도 정책과 관련법규, 방재정책 및 대응법, 지진대책 등에 대한 연구 강사 파견을 통한 기술전수. 2003년부터는 장기전문가파견 제도를 실시.
- ② 기술협력(개발조사) - 리마 시 주변지역 생활용수 개발계획조사 실시(1990)

③ 무상자금지원

연 도	안건 명	금액(백만불)
1980	벤타니자 생활용수공급계획	2.7
1981	벤타니자 생활용수공급계획	6.4
1985	초시카 시 상수도망 개선계획	8.2
1986	초시카 시 상수도망 개선계획	9.4
1987	초시카 시 상수도망 개선계획	0.9
1992	급수차 정비계획	4.9
1993	급수차 정비계획	2.2

④ 엔 차관

연 도	안건 명	금액 (백만불)
1995	리마, 카야오 상수도 정비 계획	76.3
1997	아마존 지역회사 인프라 정비사업	54.2
1997	수도권 상수공급 강화계획(마루카 II)	105.5
1999	지방 상수도 정비 계획	125.9
1999	산악지역회사 인프라 정비계획	63.5
2000	리마 수도권 주변 거주지역 위생개선계획	225.3
2000	지방도시 상하수도 정비계획(II)	69.2

4) 사업형태

무상자금협력

일본은 프로젝트(물자지원 및 인프라 건축¹¹⁶⁾), 긴급구호¹¹⁷⁾, 식량원조, 부채탕감 등 기존 선진공여국과 비슷한 지원형태를 취해왔으며, 협력사업 추진 시 UNICEF, WHO 등의 국제기구와 NGO들과 협력하고 있다. 한편, 중남미 지역에서 일반예산지원이나 섹터별 접근법 등 프로그램 지원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¹¹⁸⁾

기술협력

기술협력은 일본 ODA를 특징짓는 원조형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중남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이 지역에서는 원조흡수 능력이 높은지, 혹은 수원국의 필요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교육, 보건·의료, 환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연수,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 봉

116) 인프라 건축은 이밖에도 엔 차관 위주로도 상당수 추진되고 있다.

117) 주로 모포, 식량, 의약품 등 물자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18) 최근 실적으로는 2004년 볼리비아, 니카라과, 온두라스 3개국에 대해 1,300만 불의 일반예산지원 한 것이 전부이다. 자료: <http://www.oecd.org/WBOS>

사단파견의 형태로 활발히 실시되어 왔다. 기술협력의 총액은 2006년 1억8천만 불 규모¹¹⁹⁾였다.

기술협력의 총액은 2000년대 들어서 감소하는 추세이나¹²⁰⁾ 이는 중남미에 대한 일본의 ODA가 감소한 것에 의한 것으로, 대 중남미 양자간 무상 ODA에서 기술협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35-40%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²¹⁾ 2006년 5,561명¹²²⁾이 일본의 대 중남미 기술협력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중남미 지역에 대한 JICA의 기술협력 형태별 실적(2006년)〉

기술연수 (명)	전문가 파견 (명)	개발조사 (명)	봉사단 파견 (명)	기타 자원봉사자 (명)	총계 (명)
2,481 (신규: 2,270)	646 (신규: 495)	755 (신규: 736)	1,107 (신규: 372)	572 (신규: 145)	5,561 (신규: 4,018)

자료: JICA (2007), Annual Report 2007, p121, 신규, 계속 포함

다양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은 중남미 지역에서도 그대로 활용되어, 연수과정 하나만 해도 초청연수, 현지 연수, 제3국 연수, 이민 프로그램, 청년 초청 프로그램, 일본계 이민자 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봉사단(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JOCV)은 2006년 기준 1,107명이 파견되어 있었으며, 파견 기간은 통상 2년이다. 또한, 일본 청소년 봉사단(Japan Overseas Development Youth Volunteers)과 성인 봉사단(Senior Volunteers for Overseas Japanese Communities)은 중남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계 인구의 공동체 발전 지원 차원에서 파견되고 있으며, 연간 500명 이상이 파견·활동 중이다.

이밖에, 개발연구, 전문가 및 조사단 파견 등 고부가가치로 분류되는 부문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 2006년 646명의 전문가와 755명의 조사단 인력이 파견되었다. 전문가 파견 기간 별로 보면, 1년 이상의 장기 전문가 파견이 전체의 28%선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들 장기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현지에 2-3년 기간으로 파견되어 장기적인 기술전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119) JJICA (2007), Annual Report 2007, p32

120) 2000년 341.3, 2001년 302.9, 2002년 266.9, 2003년 248.5(기준: 백만불). 자료: 政府開発援助 (ODA) 国别データブック 2007, p720

121) JICA (2007), Annual Report 2007

122) JICA (2007), Annual Report 2007, p121, 신규, 계속 포함

〈표 3-11 중남미 지역에 대한 JICA의 전문가 파견 기간별 실적(2006년)〉

전문가 파견 총계 (명)	단기 - 1년 이하 (명)	장기 - 1년 이상 (명)
646 (신규: 495)	463 (신규: 437)	183 (신규: 58)

자료: JICA (2007), Annual Report 2007, p119, 신규, 계속 포함

이밖에도, 일본 내 대학원 장학금, 일본계 후손을 위한 장학금(Scholarship for Ethnic Japanese(Nikkei) Students) 등 장학지원 사업도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 중남미 원조 방식에서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신 ODA현장' 과 '신 중기전략(2003-2007)' 에도 일본 ODA의 주요 사업형태로 명기되어 있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¹²³⁾이다. 일본은 타 지역과 대비, 중남미 지역에 남남협력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제3국 전문가 파견 실적에서는 중남미가 8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¹²⁴⁾

중남미 지역에서 일본이 남남협력을 활성화 시킨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남미 국가들의 언어적, 문화적 공통점과, 이들 국가가 추진해온 기존의 지역통합 노력이 남남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¹²⁵⁾ 둘째,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대 중남미 원조의 규모의 하락을, 원조의 효과성 증진으로 상쇄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본은 이를 통해 비용대비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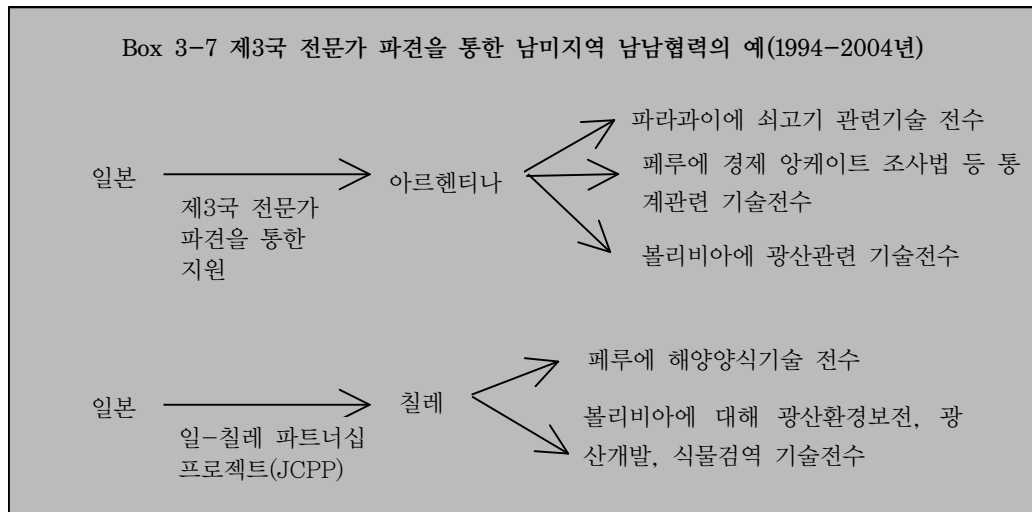
일본의 남남협력은 통상적으로 제3국 연수(집단연수, 개별연수), 제3국 전문가 파견을 통해 지역 내 파트너 국가의 분야별 역량을 강화하여 이들이 역내 타국에 선진 기술을 전파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중남미 지역에서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공통점을 감안하여 역내 개도국들이 상호간에 제휴, 기술협력 및 경제협력

123) 신 중기전략(2003-2007): '남남협력에 대한 일본의 지원은,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효과적으로 진전시키고 개발재원의 증대를 이끌어내며, 지역 내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JICA support for SSC-related activities should be enhanced to promote effectively capacity 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lead to an increase in aid resources, and promote intra-regional cooperation'

124) JICA (2006), *Evaluation by Third Party Thematic Evaluation on South-South Cooperation*, Final Report, by Kaihatsu Management Consulting INC., p22

125) JICA (2006), *Evaluation by Third Party Thematic Evaluation on South-South Cooperation*, Final Report, by Kaihatsu Management Consulting INC., ppix-xiii

을 실시함으로써 자립적인 역량개발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파트너십 프로젝트(PP)를 도입하고 있다. 칠레(1999.6), 브라질(2000.3), 아르헨티나(2001.5), 멕시코(2003.10) 4개국이 일본과 PP를 체결, 역내 개발도상국에 대해 공동으로 경제, 사회개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칠레와의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1차 사업의 호응도가 좋아 2003년 2차 사업으로 연장 실시되고 있다.



관련 분야는 일본 및 파트너 국가의 비교우위 분야와 수원국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해양 양식기술, 농업, 환경보전, 수자원 관리, 자연재해예방, 광산채굴기술 등 일본의 주력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Box 3-8 일-멕시코 파트너십 프로그램(Japan-Mexico Partnership Programme, 이하 JMPP)

2003년 10월 설립, 일본과 멕시코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중남미 지역 타 국가의 역량강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다음 형태로 구성되며, 주요 지원 분야는 환경보전, 수자원관리, 자연재해예방 분야 등이다.

◇ 멕시코 전문가의 제3국 파견(수일 내지는 일주일): 멕시코 정부가 자국의 과학기술협력청(Dirección General de Cooperación Técnica y Científica)에 의뢰, 파견할 전문 인력을 뽑고, 일본이 여행경비와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형태.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니카라과, 온두라스, 페루, 과테말라 등지에 수자원, 내진설계 전문가 다수 파견. 2005년 한해에만 22명의 전문가 파견이 이루어졌음.

- ◇ JMPP 프로젝트: 멕시코 전문가 파견, 기술연수, 물자지원으로 구성되며, 니카라과(농업), 엘살바도르(내진설계), 파라과이(공업), 온두라스(수산업)에 1-5년 기간으로 추진
- ◇ 제3국을 위한 기술연수 프로그램: 기간은 10일에서 2달까지 다양함. 현재 자연재해 예방, 자궁경부암 예방 및 진단법, 생물학 등에 5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 ◇ 관련 세미나와 컨퍼런스 개최

자료: JICA JMPP 웹사이트(<http://www.jica.go.jp/mexico/jmpp.htm>)

이밖에도 일본은, 통상적 양자원조의 형태와는 별개로 공통의 언어 및 개발과제를 갖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특징을 감안, 보다 넓은 인구에 원조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 공통의 안전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협력은 2개 국가 이상을 포함하는 공동과제 및 환경대책, 전염병 등과 같은, 국경을 초월한 문제에 대해서 광역적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아래 구체화 된 것으로, 공통의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협력의 형태이다.

광역협력의 일환으로 MERCOSUR, SICA 등 각 지역 통합체와의 정책협약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특히 MERCOSUR와 관련해서는, 광역협력 안전의 발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단 파견을 필두로, 2005년 3월에 개최된 '제1회 MERCOSUR 광역기술협력담당관 서기관 회의'에서는 향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협의도 실시하였다. 이 중 주요 분야에 대한 안전은 다음과 같다.

MERCOSUR 역내 생산물 유통을 위한 포장기술향상계획 - 개발조사

MERCOSUR 관광 진흥 세미나 - 지역특설연수

MERCOSUR 관광 진흥 프로젝트 - 전문기술자

광역협력을 통한 남미 가축위생개선을 위한 인재육성 프로젝트 - 전문기술자

일본은, 광역 협력을 통해 종래 중남미 지역에서 만연하던 샤가스병의 퇴치를 위해서도 적극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타 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도 수행하고 있으며, SICA, CARICOM와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ox 3-9 JICA와 국제기구간 공동사업의 예: 과테말라 Chagas 질병퇴치 사업(2000-2010)

참여주체: JICA, 과테말라 보건부, 과테말라 기술협력청(SEGEPLAN), 범미 보건기구 (PAHO)

사업배경

- 1차('00-'05): 과테말라 기술협력청(SEGEPLAN)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 과테말라 보건부와 양자간 협정 체결 후 추진한 사업.
- 2차('06-'10): SEGEPLAN측에서 PAHO와의 협력 제안하여 추진, JICA측에서는 지역 및 섹터 전문성 활용 및 협력사업 추진효과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으로 추진.

사업내용

- 1차: JICA가 4백만 불, 과테말라 보건부가 3.5백만 불 지원
- 2차: JICA가 기자재 지원, 전문가 및 봉사단원 파견, PAHO는 보건부측에 관련분야 전문가 배치를 통해 지식공유, 지역 세미나, 그리고 사업평가 등 기술지원

출처: KOICA 과테말라 사무소, 내부문건

Box 3-10 JICA와 타 공여국 간 협력사업의 예: 온두라스 초등 수학교육 개선사업(2003-2006)

참여주체: JICA 및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

사업배경: 온두라스 수학교육 개선을 위해 지방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수학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동 사업으로 온두라스는 36,000곳의 학교 교사들 수업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1.3백만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온두라스 교육제도를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 온두라스 내 100여개 학교개설을 목표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와 연결하여 실시.

사업내용

- JICA: 봉사단 파견, JOCV(Japanese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봉사단을 파견하여 학생들과 교사들 위주로 수학교육을 제공, 교육자료 개발
 -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 책이나 교과서 등 물자지원
- 후속조치: 개발된 수학교과서를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 인근 국가에 배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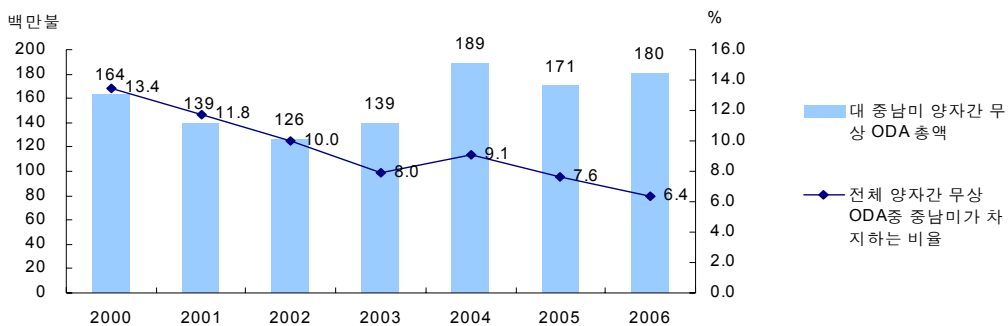
자료: KOICA 과테말라 사무소, 내부문건 및 기타 자료

4. 스웨덴

1) 대 중남미 ODA의 규모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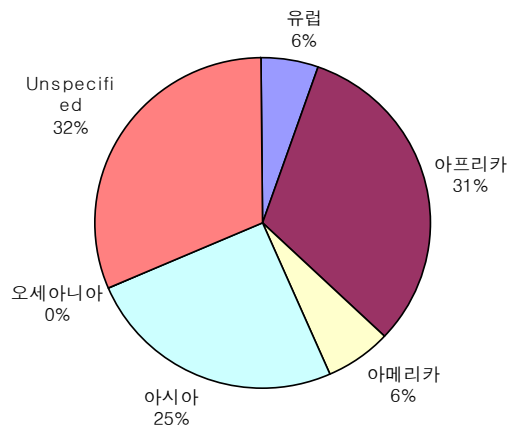
2006년 스웨덴의 대 중남미 양자간 ODA는 1억8,700만 불¹²⁶⁾, 이 중 무상의 규모는 1억8,000만 불¹²⁷⁾이었다. 전체 지역 대비 대 중남미의 무상ODA비중은 2006년 6.4%였다. 대 중남미 비중은 2000년에서 2006년 기간 동안 두 배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지만, 스웨덴 전체 ODA 규모의 성장에 따른 결과로 총액에 있어서는 상승추세를 보여 왔다.

〈그래프 3-9 스웨덴의 대 중남미 양자간 무상ODA의 변화(2000-2006)〉



자료: OECD/DAC 공식통계를 재구성

〈그래프 3-10 스웨덴의 양자간 무상ODA 지역분포(2006)〉



자료: OECD/DAC 공식통계를 재구성

126) OECD 공식통계(<http://stats.oecd.org/WBOS>)

127) 순지출 기준. OECD 공식통계(<http://stats.oecd.org/WBOS>)

2) 협력대상국 현황

2007년까지 이 지역 주요 협력대상국은 볼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콜롬비아, 과테말라 5개국이었다. 볼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역내 최빈국이며, 콜롬비아와 과테말라는 분쟁지역인 이유로 협력대상국에 포함되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니카라과에 대한 지원이 3,318만 불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과테말라에 3,263천만 불, 온두라스에 1,871만 불 순서였다.

〈표 3-12 스웨덴의 무상ODA 10대 수원국(2006년)〉

	국 명	총액(백만불)
1	니카라과	33.18
2	과테말라	32.63
3	온두라스	18.71
4	콜롬비아	18.34
5	볼리비아	17.91
6	엘살바도르	4.26
7	페루	4.03
8	브라질	3.19
9	아이티	2.90
10	파라과이	1.56

자료: OECD 공식통계(<http://stats.oecd.org/WBOS>)

주요 협력대상국 5개국에 대한 집중률은 2006년 기준, 스웨덴의 대 중남미 ODA의 66.7%에 달했다. 스웨덴은 이밖에도 17개 중남미 국가에 대해 지원을 제공, 2006년 총 22개국에 대해 무상ODA를 제공하였다.

한편, 2003년 발효, 2007년까지 스웨덴 무상원조정책의 기초가 되어온 '국제개발을 위한 정책(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PGD)'은 2005년 파리선언을 계기로 원조의 효과성 증진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됨에 따라 개정이 추진되어 2007년 8월, 'Country Focus'라는 새 중기전략으로 보강되었다. 이 'Country Focus'의 핵심은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인력, 전문기술력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협력대상국의 숫자를 축소하는 대신, 이들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이른바 스웨덴식 '선택과 집중'이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5개국이었던 중남미 지역 주요 협력대상국 중, 볼리비아, 콜롬비아, 과테말라 3개국만 남게 되었다. 나머지 기존의 협력대상국에 대해서는 NGO 혹은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 등, 양자간 무상원조 이외의 방법으로 충분히 효과적인 원조가 가능한 국가로 분류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3-4년에 걸쳐

양자간 원조를 점차적으로 없앨 예정이다. 이 'Country Focus'는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2010년경에는 스웨덴 새로운 개발원조전략을 완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ox 3-11 Country Focus 프로세스의 협력국 선정 기준

빈곤의 현황

- ◇ 1인당 GNI, 아동영양실조 비율, HIV/AIDS비율, 소득분배 상황 등

원조의 효과성(강함, 중간, 약함 세 강도로 구분)

- ◇ 빈곤인구에 대한 국가개발전략
- ◇ 권리적 측면이 국가개발전략에 미치는 영향력
- ◇ 종래 개발협력관계의 강도
- ◇ 부정부패 만연도
- ◇ 원조에 대한 의존도
- ◇ 상대적인 저·과지원

인권과 민주주의적 통치(많음, 평균, 거의 없거나 적음으로 구분)

- ◇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개발 진척상황
- ◇ 인권을 준수하는 개발의 진척상황
- ◇ 시민사회와 열린 대화 프로세스 수립여부 및 각 국가 내 국가개발전략의 수용도
- ◇ 인권준수나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역내 타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 등

스웨덴만의 비교우위

- ◇ 스웨덴의 비교우위를 감안, 스웨덴만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의 정도. 여기에는 스웨덴의 비즈니스 상 이익, 수원국내에서의 스웨덴의 활동총괄현황, 타 정부부서·기관의 주재현황, NGO의 주재현황 등이 고려됨.
- ◇ 공여국으로서의 스웨덴과의 장기적인 관계와 그 변화에 미치는 영향
- ◇ 특정 국가, 특정 분야에 대한 스웨덴만의 노하우
- ◇ 협력관계를 통한 이득 및 지역적 고려 상황
- ◇ 다른 원조 공여국들의 향후 중장기 전략
- ◇ 스웨덴이 수원국의 평화구축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가의 여부

출처: Swed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07), *Guidelines: decisive factors for country focus*, Memorandum 14 August 2007, posted on website <http://www.regeringen.se>

3) 대 중남미 정책방향 및 지원 분야

스웨덴의 대외무상원조 정책의 기초는 2003년 발효된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PGD)'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해서는 5개 주요 협력대상국에 대한 국별 원조전략 (Country Strategy)에 맞춰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스웨덴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¹²⁸⁾

인권준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적 선정

통상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은 스웨덴의 대 중남미 원조에서 40%정도의 비율¹²⁹⁾을 차지, 스웨덴의 최우선 지원 분야라 할 수 있다. 주요 초점은 ①선거개혁(과테말라, 온두라스, 콜롬비아), ②의회의 제도역량강화 및 다정당제도의 확립, ③법제도 정비, ④국가 행정 및 금융시스템 구축 및 강화, ⑤여성의 사회, 정치참여 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예산지원, 기술협력 및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NGO와 다수 협력하고 있다.

분쟁지역에서의 평화 구축과 재건

스웨덴은 이 분야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대화의 중재자로 직접 나서거나, 평화 구축 프로세스 등에 대해 자금,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방법,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에서는, 지속적인 평화만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인식 아래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간의 평화 프로세스를 UNDP 등과의 협력아래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 마약재배 농가에게 코카인대신, 아이스크림 공장을 설립, 아이스크림 제조에 필요한 열대과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너 많은 이윤 창출을 가능하게 하여 마약 재배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스웨덴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UN 주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소외지역 인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NGO와 협력하는 등, 다자간 기구와 시민사회와도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사용 장려와 환경보전

스웨덴은 환경문제가 국가를 넘어서는 지역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지역레벨 기구·공동체와의 협력에 힘쓰고 있다. 이들 기구·공동체에는 기존의 다자간 지역기구 뿐 아니라 현지 대학이나 싱크탱크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례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청년들이 코스타리카의 한 대학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의 Prisma라는 지역 싱크탱크와 협력, 중남미 지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천연자원경영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다수 출간하기도

128) SIDA (2006), *Annual Report 2006*, pp37-41, Stockholm: SIDA

129) 2006년 기준

하였다. 역내 대다수 빈곤층의 생존은 천연자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반해 이들 국가들에 지진, 열대성 폭우, 태풍 등이 자연재해가 잦아, 취약한 빈곤층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관점에서, 스웨덴은 피해민에 대한 일차적인 인도적 지원과 함께, 향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와 온두라스에서 농촌지역 빈곤 인구가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볼리비아의 수목림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경제, 사회 발전과 평등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의 초점은 ①고용기회 확대 및 농촌·빈곤지역의 소득 향상, ②기초보건·의료 향상 두 가지로 요약된다. 농촌지역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니카라과의 'FONDEAGRO'라는 농촌개발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농·축산물의 질적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입 증대를 꾀하고 있다. 또한, 빈곤인구에게 소액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부를 창출하고 저축을 있게 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웨덴 시민사회와도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초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유엔 천년개발목표 중 하나인 모자보건과 영유아 사망률 감소를 위해 의료장비 지원 등의 프로젝트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PAHO와 같은 전문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표 3-13 스웨덴의 대 중남미 원조 분야별 비중(2006년)〉

분 야	액수 (단위: 백만불)	비율 (단위: %)
인권과 민주주의적 선정	73.21	40.5
보건·의료	17.70	9.8
천연자원과 환경	17.27	9.6
인도적 지원	15.86	8.8
리서치	13.78	7.6
분쟁, 평화와 안보	11.25	6.2
빈곤감소를 위한 예산지원	9.51	5.5
교육	7.28	4.0
무역, 산업 및 재정시스템	3.85	2.1
인프라 관련	3.37	1.9
기타	7.71	4.3
합계	180.76	100

자료: SIDA (2006), *Annual Report 2006*, pp166-169, Stockholm: SIDA

4) 사업형태

〈표 3-14 스웨덴의 대 중남미 사업형태별 비중(2006년)〉

지원형태 분류	비중(%)
프로젝트 지원	58.9
기술지원	12.8
국제연수프로그램(ITP)	2.8
부채상환	-3.2
프로그램지원	20.0
일반예산지원	7.7
섹터별 지원	12.3
인도적 지원	0.6
연구	0.1
NGO지원	7.8
기타	0.2
합계	100

자료: SIDA (2006), *Annual Report 2006*, Stockholm: SIDA 통계자료를 참고로 재작성

프로젝트(인프라 건축 및 물자지원)

2006년 기준 스웨덴의 대 중남미 양자간 원조액의 40%가 인프라 건축 및 물자지원 등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출되었다. 스웨덴은 프로젝트 추진 시, 수원국 별 중점 분야는 스웨덴 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기타 분야는 타 공여국, 특히 EU 국가들과의 재정협력(예를 들어 Basket-funding 혹은 pooled funding)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 지원

일반예산지원과 섹터별 지원을 포함한 프로그램 지원액이 스웨덴의 대 중남미 무상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 13.6%(2,545만 불)정도였다. 이는 2004년도 765만 불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던 수준에서 세 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¹³⁰⁾

일반예산지원은 니카라과, 볼리비아, 온두라스 3개국의 국가빈곤감소전략(National Poverty Reduction Strategies)에 대한 지원분이다.

섹터별 프로그램 지원은 거버넌스, 환경 등의 섹터별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스웨덴이 단독으로 지원하거나, 사업 파트너인 현지 대학, 연구소, NGO,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재정

130) <http://stats.oecd.org/WBOS>

지원을 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분야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보, 사회분야, 인프라 관련 분야, 환경, 연구 등 스웨덴의 대 중남미 중점 지원 분야 전부를 망라하고 있다.

〈표 3-15 스웨덴의 대 중미 지역 프로그램 섹터별 지원현황(2003-2006)〉

섹터	지원액(2003-2006) (단위: 백만 불)
민주주의와 인권	11.9
평화와 안보	5.1
사회분야(보건·의료, 교육, 문화)	18.3
인프라, 민간부분개발, 도시개발 및 재정시스템	6.6
천연자원과 환경 보전	15.2
연구 협력	7.6
기타	4.2
합계	68.9

출처: SIDA (2007), *Central America, SIDA Regional Report 2006*, p24, Stockholm: SIDA

Box 3-12 스웨덴의 대 중미지역 섹터별 지원의 예 - 환경 분야

- ◇ 코스타리카 Centro Agronómico Tropical de Investigación y Enseñanza(CATIE)가 추진 중인 FOCUENCAS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방법론 개발을 추진 중.
- ◇ UNEP와 공동 재정지원하여 UNEP/CEP(Caribbean Environment Program)을 설립, 'White Water to Blue Water'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 이 프로그램은 중미 지역 수자원 경영관계자와 기관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코스타리카 EARTH University에 대한 공동재정지원. 프로그램 시작 초기(2005년)에는 대학생에 대한 장학제도 운영에 그쳤으나, 2차(2007년-2009년) 사업에서는 니카라과의 한 대학과 연계하는 시범 프로젝트도 운영 중.

출처: SIDA (2007), *SIDA Regional Report 2006, Central America*

기술지원

개발조사 전문가 파견, 사후평가단 파견, Contract-Financed Technical Cooperation (스웨덴 약어로 KTS) 등이 있다. 이 중 KTS는 주로 중소득국에 많이 활용되는 기술지원 형태로서, SIDA의 재정지원 하에 스웨덴 전문 컨설턴트와 개도국 현지 기관 간 양자 계약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KTS는 개도국 기관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스웨덴 전문 컨설턴트에 의해 전문 지식을 전수할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과테말라에서 추진되고 있다.

연구

연구지원사업은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과 관련, 현지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지역의 특수상황에 적용된 연구보고서 발간과 세미나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볼리비아에서는 환경문제를 고려한 지역개발에 관한 다분야(multidisciplinary)연구를, 니카라과에서는 주요 수출품목인 면화 생산에 사용되는 살충제가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1970년대부터 스웨덴-중남미 간 공동연구기금 창설을 통해 이들 지역민의 역량강화와 스웨덴-중남미 간 교류확대를 꾀하고 있다.

국제연수프로그램(ITP)

ITP를 통한 연수사업은, 무역과 산업, 민주주의와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보전과 관련,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가자는 본국 기관에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 임무를 부여받게 되며, 1차로 스웨덴으로의 초청연수(4-6주)를 거친 후, 본국으로 귀환하여 프로젝트를 적용·수행하게 되며, 5-6개월 후 사후관리(Follow-up)차원에서 2차로 진행되는 본국에서의 현지연수(1-2주)로 마무리를 짓게 된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스웨덴 초청연수만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프로그램과, 특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중남미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ITP는 민주주의, 인권보호, 가정폭력방지, 은행·재정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매년 5-6개 가량 개설되며, 프로그램당 정원은 25명 내외, 전 과정 스페인어로 진행되고 있다.¹³¹⁾

식량지원

스웨덴은 중남미뿐 아니라 전체 지역에서 긴급구호 목적 이외의 개발식량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긴급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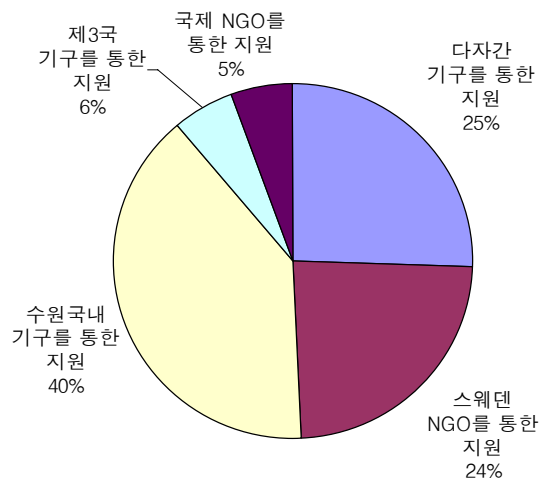
아이티, 페루, 니카라과 등지의 자연재해와, 내전 등 분쟁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서, 2006년 기준 전체의 8.3%에 달하는 1,557만 불 규모의 액수가 제공되었다. 재해민의 고통경감 차원에서 제공되는 SIDA의 긴급구호는 대부분이 국제적십자협회와 UN 기구들을 집행되는데, 제공내역은 식량, 물, 비상보건물품 등이다. 이후,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지원에는 인프라 구축과 수자원 재건 등이 있다.

131) <http://www.sida.se/itp>

NGO 및 다자간 기구를 통한 지원

스웨덴의 원조 방식 중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NGO지원액은 2006년 약 4,100만 불 규모로,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 밖에도 스웨덴의 대 중남미 전체 사업의 30%가 스웨덴 및 국제 NGO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주로 민주주의와 선정, 분쟁 예방과 해결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있어 한 발짝 앞서있는 스웨덴 NGO들을 이용한 원조는 특히, 여성, 원주민에 대한 정부의 차별, 인권탄압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능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시민들 스스로가 이를 견제하고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스웨덴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래프 3-11 스웨덴의 대 중남미 지원 경로별 분류(2006년)〉



자료: SIDA (2006), *Annual Report 2006*, Stockholm: SIDA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 밖에도, 스웨덴은 다자간 기구를 통해 상당수 원조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다자간 기구를 통한 사업수행은 스웨덴의 대 중남미 원조의 25%에 달하며, 특히 분쟁, 평화와 안보 분야 관련 사업을 위해 UN, UNDP, UNODC, OHCHR, OAS, EU, EC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5. 시사점

상기 각국은 나름대로의 외교적, 정치적, 사회, 경제적 과제가 있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원조전략의 틀은 물론, 중남미에 대한 접근법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 일본, 스페인, 스웨덴 4개국의 현행 대 중남미 원조전략에도 공통점은 존재한다. 그 중 첫 번째는 이들 공여국에서 대 아프리카 원조의 비율이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 중남미 원조의 비중이 감소해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현재 대 중남미 원조가 우선적인 나라는 없으며, 단기적으로 이에 대한 비중이 커질 전망은 없다. 따라서 두 번째, 각국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원조의 효과성 증진으로 상쇄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상기 4개 공여국의 대 중남미 지원 전략 중 첫 번째로 눈여겨 볼 사항은, 이 지역만의 개발 니즈(Needs)와, 각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원조 분야의 '선택과 집중'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분쟁관련 항목에, 일본은 수자원관리, 환경 및 농림수산업에, 스페인은 경제와 거버넌스, 교육 분야에, 스웨덴은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남미 지역에 연간 20억 불을 지원하는 최대 공여국으로서 다 분야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을만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주력분야인 분쟁해결에 50%이상의 원조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군사 부문, 대테러 분야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위를 바탕으로 세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 비교우위 분야가 아닌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며, 스웨덴 역시 이는 마찬가지다.

또한, 원조 분야 선정에 있어서, 중남미 지역이 이미 BHN문제를 어느 선까지 해결한 것을 감안, 단순한 기초교육, 의료·보건 등의 기본욕구 충족을 넘어서서 거버넌스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한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은 협력대상국 선정 시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공여국은 3-10개의 중점지원국을 선정, 이들에 대해 전체 원조의 60-80%를 집중하고 있었다. 남남협력의 일환으로 상대적인 고소득국(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ODA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여국은 LDC, LIC, LMIC에 대해 집중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들 공여국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은, 2008년부터 적용되는 'Country Focus'의 결과로 지금까지 중남미 9개국에 분산되던 노력이 3개 협력국(과테말라, 볼리비아, 콜롬비아)에 집중되는 동시에, 지원 분야 역시 분쟁해결과 민주주의 구현 등 스웨덴의 전통적인 전문분야로 대 중남미 ODA를 특화해 나갈 것이라 한다. 이와 함께, 예전 협력국에 대해서는 다자간 기구 혹은 NGO 등을 통한

지원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주요 협력국에 대한 양자간 ODA의 집중도를 높여 그 효과성 증진을 꾀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08년 현재 시행 첫 해에 접어든 'Country Focus'의 결과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스웨덴식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우리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들 공여국들이 자국의 전문성과 수급 가능성을 살려, 다양한 원조형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스페인의 경우, 타 공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공적 원조를 커버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긴 역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NGO, 대학, 지방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 중남미 원조의 많은 부분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2006년 기준 NGO를 통한 무상원조 사업수행비율은 36.3%(2006년 기준)에 달했고 동년 대 중남미 양자간 ODA의 23.92%가 자치 지역(Comunidades Autonomas), 8.45%가 시 단위 지자체, 0.58%가 대학에 배정된 것을 보면, 이들 활동의 규모를 알 수 있다.¹³²⁾ 특히, 자치지역의 활동범위는, 우리나라 시, 도들이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무상원조 사업이 정부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과는 달리, 자치지역으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린 것으로서, 예를 들어 지방선거를 위한 지원 혹은 지방정부의 행정역량강화 등, 주로 민주주의 확립, 선거개혁, 시정개혁 등 민주주의와 선정 분야와 관련된 부문에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스웨덴도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스웨덴 NGO, 또한 국제 NGO와 다자간 기구를 통해 대 중남미 무상원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미, 스웨덴의 대 중남미 원조의 30%가 NGO를 통해, 25%가 다자간 기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일본은 남남협력과 광역협력을 통해,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무상원조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 스페인, 일본, 스웨덴 4개국은 우리에게 비해 대 중남미 원조의 규모 뿐 아니라 원조의 역사도 길어서, 그만큼 사업수행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이들의 현행 대 중남미 원조를 보면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이 보인다. 이들 4개 공여국의 무상원조 현황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비교적으로 원조의 역사가 짧고, 우리의 주력지역인 아시아에 비해 노하우가 덜 축적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우리의 무상원조사업을 돌아보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132) 2006년 기준 스페인의 대 중남미 원조는 크게 스페인 행정부(67.05%), 자치 지역 및 시(23.92%), 지방자치단체(8.45%), 대학(0.58%)에 배정되며, 이 중 무상원조 사업 전담기관인 AECI가 29.81%를 받고 있다. 자료 출처: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2007), *Seguimiento del PACI 2006*, p212, Madrid: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제4장 한국의 대 중남미 무상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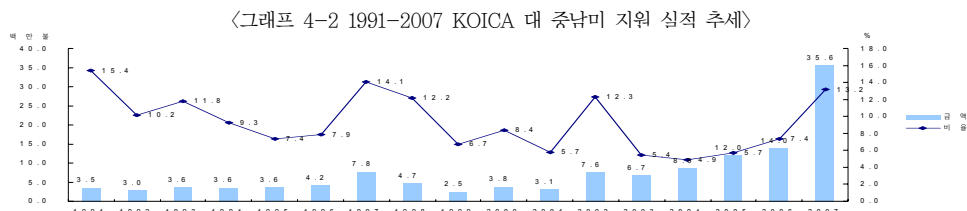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중남미지역의 개발성과 및 당면 과제를 알아보고 미국, 스페인, 일본, 스웨덴 4개 선진 공여국이 이 지역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 중남미 원조는 어떠한가.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총괄시행기관인 KOICA의 사업을 중심으로, 대 중남미 무상원조사업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중남미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전략, 사업 규모와 비중, 지원 분야, 협력 대상국 현황, 사업 형태 및 그 내역 구성부터 살펴보자.

1. 대 중남미 ODA의 규모 및 비중

2007년 한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5,469만 불의 ODA를 집행했다. 이 중 무상 액수는 3,714만 불로, 비율은 67.9%였다.¹³³⁾ 이 중 KOICA가 집행한 금액은 3,561만 불 가량이며¹³⁴⁾, 기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등이 153만 불의 무상

133) 외교통상부 공식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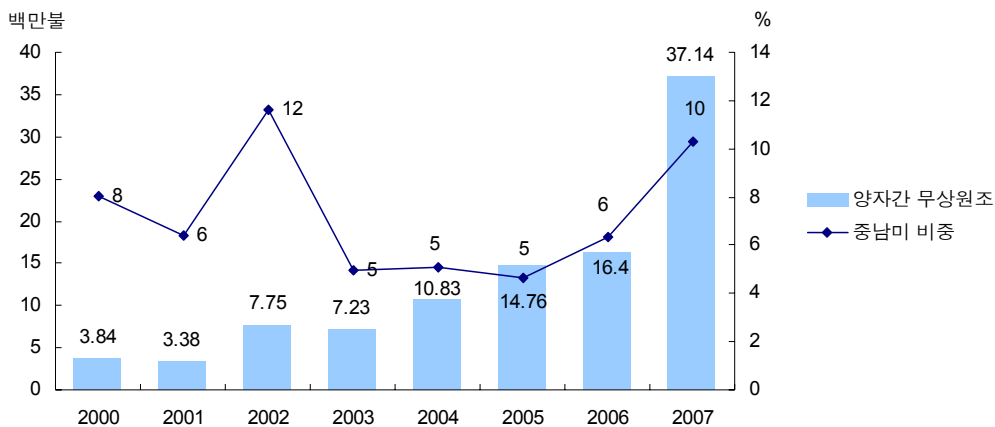
134) KOICA가 2007년 한 해 중남미 지역에 지원한 무상원조 총액은 한화로 약 331억 원, 달러로 3,561만 불에 달한다. (KOICA 공식통계) 이는 전년도인 2006년의 1,396만 불과 비교하면 두 배 반 이상 상승한 것이며, 동 기간 여느 타 지역 원조 상승률보다 높은 결과이다. KOICA의 대 중남미 원조 총액은 1991년 이후 몇 번의 소폭 하락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특히 지난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이후 5년 만에 5배의 증가를 이루었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 KOICA의 대 중남미 무상원조 누계는 1억2,797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자료: KOICA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재구성

원조를 제공했다. 이와 같은 대 중남미 무상원조의 액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지난 10년간을 놓고 보았을 때 다섯 배 가량 증가해온 것이다¹³⁵⁾. 한편, 2007년 기준 대 중남미 원조가 무상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아시아(60.3%), 아프리카(14.4%) 다음이었으며, 전년과 비교했을 때 1.6배 늘어난 것이다. 최근 들어 대 아프리카 원조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타 공여국들이 대 중남미 원조의 비중을 줄여가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원조의 증대는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 4-1 한국의 대 중남미 양자간 무상ODA(1997-2007)〉



자료: OECD/DAC 공식통계

한편, 우리 정부는 대 중남미 원조를 무상ODA의 15%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GNI대비 ODA규모가 정부 계획대로 현행 0.07%에서 0.25%로 늘어나고, 대 중남미원조가 15% 규모를 유지하게 되면, 대 중남미 양자간 무상 ODA의 규모는 2007년의 3,714만 불에서 2015년 2,56억 불로 7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¹³⁶⁾

135) 1997년 대 중남미 양자간 무상 ODA의 규모는 783만 불, 2007년은 3,714만 불이다

136) 산출기준: 2007년도 우리나라 ODA통계 확정치(재정경제부)의 구성 비중에 따라 양자간 ODA는 전체 ODA의 70.6%, 이 중 무상은 양자 간 중 73.2%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이중 대 중남미 원조가 무상ODA의 15%에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산한 것임.

2. 협력대상국 현황

현재 한국의 중남미 무상협력대상국은 3개 중점협력대상국과 8개 일반협력대상국을 합쳐 총 11개국이다. 상기 3+8 협력국 체제는 2006년부터 적용되어 온 3+9 체제에서 최종적으로 아이티¹³⁷⁾가 제외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표 4-1 KOICA의 무상원조 협력대상국(2008년 10월 현재)〉

중점협력대상국 3개국	일반협력대상국 8개국
과테말라 페루 파라과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콜롬비아

우리나라는 상기 협력대상국 위주로 무상ODA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 실질적으로 총 30-32개 중남미 국가 전체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7년 협력국 순위를 보면, 페루가 1,0.22만 불로 우리나라 대 중남미 무상원조 총액의 27.5%를 지원받은 역내 최대 수원국이다. 다음을 파라과이가 595백만 불로 16.0%, 에쿠아도르가 415만 불로 11.2%를 지원 받았다.

〈표 4-2 우리나라 대 중남미 무상ODA 협력국 순위(2007년)〉

순위	국가명	총액(단위: 백만 불)	비율
1	페루**	10.22	27.5
2	파라과이**	5.95	16.0
3	에쿠아도르*	4.15	11.2
4	과테말라**	2.77	7.5
5	파나마	1.93	5.2
6	코스타리카	1.73	4.7

137) 종래 일반협력대상국이었던 아이티는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에 따라 우리나라 무상원조 협력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계속 <표 4-2 우리나라우리나라 대 중남미 무상ODA 협력국 순위(2007년)>

순위	국가명	총액(단위: 백만 불)	비율
7	온두라스*	1.63	4.4
8	도미니카공화국*	1.18	3.2
9	엘살바도르*	1.13	3.0
10	볼리비아*	1.02	2.7
11	가이아나	0.67	1.8
12	도미니카연방	0.51	1.4
13	벨리즈	0.35	0.9
14	멕시코	0.35	0.9
15	수리남	0.26	0.7
16	칠레	0.24	0.6
17	그레나다	0.22	0.6
18	콜롬비아*	0.18	0.5
19	베네수엘라	0.18	0.5
20	세인트루시아	0.17	0.5
21	브라질	0.16	0.4
22	니카라과*	0.15	0.4
23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0.15	0.4
24	아이티*	0.15	0.4
25	트리니다드토바고	0.13	0.3
26	자메이카*	0.10	0.3
27	세인트키츠네비스	0.10	0.3
28	안티구아바부다	0.07	0.2
29	바베이도스	0.06	0.2
30	아르헨티나	0.04	0.1
31	우루과이	0.03	0.1

*일반협력대상국(2007년 기준)

**중점협력대상국(2007년 기준)

자료: OECD/DAC 공식통계

원조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2007년 당시 중점협력대상국 3개국에게 1,894만 불(51%), 일반협력대상국 9개국에게 969만 불(26.1%)이 지원되어, 총 12개 협력대상국에게 원조의 77.08%(2,863만 불)가 집중,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무상협력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19개국에게는 총 851만 불이 지원되었다. 한편, 이 지역 협력국의 약 절반인 14개국은 20만 불에 못 미치는 소액의 지원을 받았다.

3. 대 중남미 원조전략 및 지원 분야

우리나라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전략보다는 3년 주기의 전체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의 틀 내에서 대 중남미 원조가 추진되고 있다. 과테말라, 페루, 파라과이의 3개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중기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이하 CAS)이 수립, 이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며, 일반협력국에서는 현지의 수요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다.

〈표 4-3 무상원조 중점협력국 별 지원분야〉

중점협력국	중점지원분야
과테말라	과테말라 정부의 국가개발 종합 마스터플랜 및 빈곤감소전략상의 중점개발 분야와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 교육, 정보통신 분야 위주로 지원
파라과이	행정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앙정부 역량제고 및 국가에너지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행정제도 분야에 중점지원
페루	페루정부 5개년(2006-2011) 국가개발계획과 우리의 비교우위분야를 고려할 때, 그간 중점 지원해왔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및 우리 기업의 대 중남미 진출지원을 위해 정보통신 분야 중점 지원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06), 2007-2009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 p28-29

현재 우리나라 대 중남미 원조는 인도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감안하여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 ◇ 소득 불평등의 완화를 통한 탈 빈곤화 모색
- ◇ 인간의 기본욕구(Basic Human Needs: BHN) 차원의 당면 개발과제 해결
- ◇ 제도 및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현행 '2008-2010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 및 KOICA의 '2008 대외무상원조 사업추진계획'은, 중미는 SICA 회원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남미는 저개발국가 위주(페루, 파라과이, 콜롬비아, 에쿠아도르)로 정보통신, 교육, 보건, 행정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Box 4-1 한-SICA 협력관계

우리나라는 2002년 SICA와의 대화협의체 개설을 계기로 이들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ICA 회원국들은 우리나라 대 중남미 무상협력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 잡았으며, KOICA 차원에서는 2003년과 2004년 제1, 2차 한-SICA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스타리카 우에파르-노르페 직업훈련원 건립 등의 프로젝트 사업과, SICA 회원국 대상으로 추진된 공동연수 프로그램 등이 있다.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개별 국가단위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KOICA의 주도아래 추진되고 있는 대 중남미 무상협력의 분야별 중점 사업 목표 및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기초교육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아프리카에서와는 달리, KOICA의 중남미 지역 교육 관련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이다. 이를 위해 기초산업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기능인력 양성 지원계획 수립 및 직업훈련제도, 시설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³⁸⁾ KOICA는 기술 훈련원, 자동차정비훈련원 등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고 이들 기관의 운영, 교육정책, 교원 능력향상을 위한 초청연수사업, 그리고 직업훈련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기술협력 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해 왔다. 이 밖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칠레 교육부 관계자 연수사업도 실시하였다(2006년)¹³⁹⁾.

Box 4-2 KOICA의 교육 분야 지원 사례

- ◇ 과테말라 청소년 직업훈련원 자동차 정비훈련소 건립(2007-2008)
- ◇ 볼리비아 기술교육훈련원 건립사업(2000-2002)
- ◇ 온두라스 기술훈련원 건립 및 3차에 걸친 지원 사업(1997-1999, 2005-2007)
- ◇ 과테말라 현금지원(도서 및 컴퓨터)(2007)
- ◇ APEC 직업훈련교사 기술향상 연수(2007)
- ◇ 페루, 볼리비아, 과테말라 교육정책 기획 및 실행 연수(2008)
- ◇ 파라과이, 페루 교육분야 요청사업 사전조사(2007)

138) 한국국제협력단 (2007), 2008-2010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 p19

139) 기획재정부, 양자간 ODA 실적 및 계획

보건 의료

중남미 지역 보건·의료분야에서는 ①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강화, ②모자보건, ③전염병퇴치, ④안전한 식수공급을 목표로 의료센터 및 서비스 강화사업에 역점을 둔 인프라 구축과, 물자지원, 그리고 의료정책, 전통의학, 결핵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초청연수 과정, 전문 의료인력 및 봉사단 파견 등이 추진되었다.

Box 4-3 KOICA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 사례

- ◇ 총 5차에 걸친 한-페루 의료센터 건립사업(1992-1999, 2003-2004) 및 개보수 사업(2007-2009)
- ◇ 과테말라 모자보건 개선사업(2007-2009)
- ◇ 한-콜롬비아 친선 재활병원 건립사업(2008-2010)
- ◇ 파라과이 모성 및 아동사망률 감소사업(2008-2010)
- ◇ 파라과이 보건의료사업 사전타당성조사(2007)
- ◇ 전통의학 임상연구, 보건의료정책, 인구와 생식보건 연수(2007)

행정제도

중남미 지역에서는 각국의 정치, 경제여건, 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중점분야는 중소기업 육성, 수출 진흥, 지역균형 발전 등이다.¹⁴⁰⁾ 현행 지원 내용을 보면, 수원국의 행정인프라 및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인프라 구축, 물자지원과 아울러 개발조사사업, 전문가, 봉사단 파견 등 기술협력이 병행, 실시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OAS의 중남미지역 국가 선거감시단의 파견, 활동도 지원했다.¹⁴¹⁾ 한편, 이 분야에 대한 지원 중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물자지원으로, 2004-2007년 기간으로 볼 때 914만 불 규모로 지원되어 행정제도에 대한 KOICA 원조 총액의 68%에 달했다. 내역은 수원국의 외교부 차량제공, 시청각 장비, 컴퓨터 등 외교,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Box 4-4 KOICA의 행정제도 분야 지원 사례

- ◇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중소기업육성, 경제개발전략 연수과정(2007)
- ◇ 외교관 연수
- ◇ 에쿠아도르, 그레나다, 콜롬비아, 볼리비아, 도미니카연방 외교부 물자지원(컴퓨터, 차량 등)
- ◇ 페루 행정역량강화 순찰차량 물자지원사업(2007)

140) 한국국제협력단 (2007), 2008-2010 대외무상원조 증기전략, p26

141) 2006년 80,000불 [재정경제부, 양자간 ODA 실적 및 계획]

정보통신

KOICA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기본적인 ICT 정책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춘 점을 감안하여, 전자정부 및 ICT 응용기술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¹⁴²⁾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에 대한 지원은 대 중남미 원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여기에는 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사회 인프라와, ICT 분야에 대한 우리의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정부기관 정보화 사업, e-government, ICT교육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 사업과, 컴퓨터 등 물자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연수과정도 정보통신정책, 중소기업의 e-business, e-trade, 행정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로 개설되었고, 또한, OAS 공동연수, FEALAC, SICA, APEC 등 지역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다수 실시되어 왔다. 한편, 기술협력차원의 인적 교류도 타 분야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소프트웨어, 컴퓨터, 정보통신 등의 관련분야에 전문가와 해외봉사단이 다수 파견되었다.

Box 4-5 KOICA의 정보통신 분야 지원 사례

- ◇ 과테말라 외교부 e-library 구축사업(2002-2003)
- ◇ 한-과테말라 ICT 교육센터 건립사업(2006-2008)
- ◇ 에쿠아도르 IT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2005-2006)
- ◇ FEALAC회원국 대상, 정보통신 정책 연수과정(2007)
- ◇ SICA회원국 대상, 중소기업의 e-business화 연수과정(2007)
- ◇ OAS 공동연수, e-trade 및 수출진흥(2007)
- ◇ ICT를 이용한 기상업무향상, 전자정부 연수과정(2007)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KOICA 외에도, 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파나마, 그레나다, 에콰도르,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페루, 멕시코, 칠레, 브라질, 코스타리카에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Korea Internet Volunteer)을 파견 중이며, 관련 물자지원도 병행하고 있다.¹⁴³⁾

142) 한국국제협력단 (2007), 2008-2010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

143) www.kado.or.kr/kiv

지역개발

중남미 지역은 비교적 기본 인프라 구축 여건이 양호한 점을 반영, 농축수산물 가공 및 유통능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주요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 KOICA의 사업내역을 보면 우루과이, 파라과이 농업연구소 지원 등의 인프라 및 물자지원과, 초청연수, 봉사단 파견, NGO지원 등이 병행되었다. 특히, 초청연수 과정은 연안수산양식과 같이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 혹은 원예재배처럼 장차 개도국에서 고소득사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분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2004년부터 칠레와 연계하여 현지에서 실시된 한-칠레 공동연수이다. 여기에는 페루, 니카라과,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에쿠아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브라질 등이 참여하여 3주 기간으로 수산양식 연수과정(2004-2006), 전자정부 연수과정(2008-)이 진행되었다. 봉사단도 원예, 수산양식, 농업개발 등 연계분야로 파견되었다.

Box 4-6 KOICA의 지역개발 분야 지원 사례

- ◇ 우루과이 국립 농업연구소 지원 사업(2004-2006)
- ◇ 자메이카 새우양식사업(1989-1992)
- ◇ 그레나다 외교부 울타리조성사업 물자지원(2007)
- ◇ 연안수산양식,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원예재배기술 연수과정(2007)
- ◇ 한-칠레 공동 수산양식 연수과정(2004-2006), 전자정부 연수과정(2008-)

산업에너지

중남미 지역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인프라 건축 사업과 물자지원 사업이 드문 반면, 연수와 해외봉사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연수는 레이더 접근관제, 교통정책, 해운항만관리, 전력기술, 해양조사기술 등의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해외봉사단은 전기공학, 용접, 자동차, 기계, 세라믹, 건축공학,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 파견되었다.

Box 4-7 KOICA의 산업에너지 분야 지원 사례

- ◇ 과테말라 난민 정착지원 및 교육강화사업(2007-2009)
- ◇ 파라과이 배전분야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자동검침 시범구축사업(2007-2009)
- ◇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과학기술정책 연수과정(2007)
- ◇ 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관리 연수과정(2007)
- ◇ ICAO 전방향 무선표지시설 연수과정(2007)
- ◇ ICAO 위성항법시스템(2007)

환경, 여성 및 기타

환경 및 기타 부문에서도 인프라 건축과 물자지원, 그리고 연수과정과 해외봉사단, 전문가 파견 등 다각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연수과정은 산림관리, 환경영향평가, 해양조사기술, 여성인권, 여성개발 등이 개설되었고, 여성복지, 환경관리 분야의 전문가도 파견되었다. 해외봉사단은 환경공학, 관광, 사회복지 등 전문분야에 파견되었으며, 태권도와 관련한 인력파견도 상당수였다.

Box 4-8 KOICA의 환경·여성 분야 지원 사례

- ◇ 도미니카공화국 남부지역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 개선사업(2008-2010)
- ◇ 코스타리카 생물자원 공동연구센터 건립사업(2006-2007)
- ◇ 페루-에콰도르 국경지역 대인지뢰 제거사업 물자지원(2007)
- ◇ 산림관리, APEC 해양환경보전,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 전문가 능력배양(2007)
- ◇ 개발협력-여성개발 식사과정 지원

재난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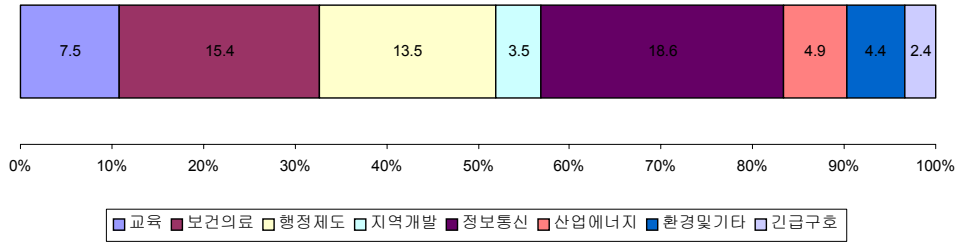
자연재해 구호분야에서는 태풍, 홍수 피해와 관련, 해당국 정부에 현금 지원을 지원했고, 댕기열 퇴치 사업을 위해 관련 의약품을 제공해 왔다

Box 4-9 KOICA의 재난구호 분야 지원 사례

- ◇ 페루 지진피해 현금지원(2007)
- ◇ 니카라과 허리케인 피해 현금지원(2007)
- ◇ 파라과이 댕기열 퇴치 증량지원(2007)

상기 분야 중 전통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ICT 관련 사업으로, 2004년-2007년 기간 동안 KOICA의 대 중남미 사업의 26%를 차지했다. 특히, ICT관련 지원은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나서, 2006년과 2007년에는 전체 분야의 3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보건의료(22%), 행정제도(19%), 교육(11%) 순이었다.

〈그래프 4-3 2004-2007년 KOICA의 대 중남미 원조 분야별 지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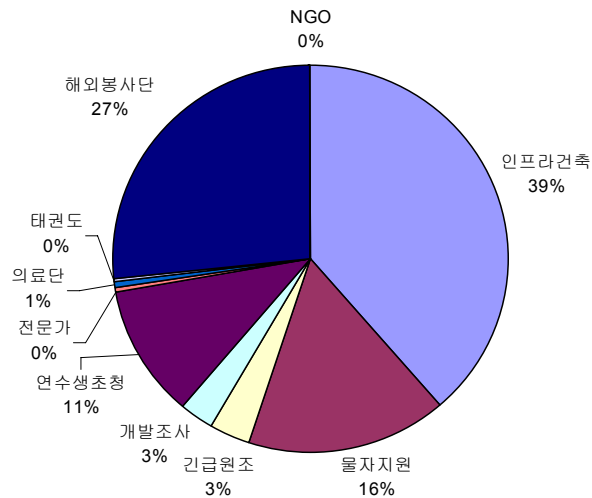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불

자료: KOICA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재구성

4. 사업형태

우리나라는 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남미에서 인프라 건축, 물자지원, 긴급원조, 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의료단 파견, 태권도, 해외봉사단 파견, NGO지원, 다자간 기구 지원 등의 형태로 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해왔다. 2004-2007년 KOICA의 대 중남미 원조에서는 기술협력과 프로젝트사업 비율이 4:6이었다.

〈그래프 4-4 2004-2007년 KOICA의 대 중남미 원조 중 사업형태별 비율〉



자료: KOICA 공식통계

인프라 건축

교육, 보건의료, 정보통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직업훈련소, 병원 건립, 전자정부 구축 등의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었다.

물자지원

주로 행정제도 분야와 연계되어, 2004-2007년 기간 동안 행정제도 분야 원조액의 68%에 달했다. 동 기간 총 1,100만 불 가량이 지원되어 KOICA 대 중남미 사업 전체의 16%를 기록했다. 외교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컴퓨터, 사무기기, 차량 등의 단순 소모품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연수생 초청

중남미 지역 연수생 초청 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편이어서, KOICA 전체연수사업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부분은 통상 8-10%선에 불과하다. 2007년 한해에만 총 63개 과정에 23개국 268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 수는 2008년 450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대다수가 우리나라로 연수생을 초청하여 1-2주간 실시하는 국별 초청연수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부터 UNIDO, OAS, SICA/MERCOSUR, ACS 등 다자간 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공동연수도 실시해 왔다. 이러한 KOICA-국제기구 공동연수는 주로 해당기구 사무국에서 후보자를 추천, KOICA가 선발, 관련 경비 부담 및 연수 실시를 총괄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수는 한국에서 1-3주 기간으로 실시한다. 이밖에, 한-칠레 공동연수처럼 현지에 우리나라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1-2주 과정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 밖에, 1-2년 기간의 학위/연구과정도 개설되어 있어서, 2007년 한해에만 16명이 국제개발, 공공정책, 여성개발, 한국경제연구, 국제통상 석사과정을 지원받았다. 이밖에도 교육인적자원부(한국정부초청장학금, 해외우수학생연구원 초청연수지원사업), 정보통신부(IT장학금, 외국인 국내 IT정책 및 기술전문가 과정 장학금), 국제교류재단(한국어 연수 장학금)등이 개별적인 장학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Box 4-10 대 중남미 KOICA-국제기구 공동연수

UNIDO, 1995-1996

KOICA-UNIDO Cooperative Arrangement

해외 및 국내연수(사업효과 증대를 위해 연수국을 지역별로 구분)

-KOICA-UNIDO 워크샵: 1차 서울, 2차 페루

50:50 공동비용 부담

2과정 48명

OAS, 2002-현재

국내연수

OAS가 후보자 추천, 협력단이 선발

OAS가 항공료 및 경유지 경비, KOICA가 숙식 및 연수경비 부담

2과정 35명

SICA/MERCOSUR, 2004년

국내연수

SICA 및 MERCOSUR 사무국에서 후보자 추천, KOICA 선발

연수경비 전액 KOICA 부담

ACS, 2004년

국내연수

ACS 사무국에서 후보자 추천, 협력단이 선발

연수경비 전액 KOICA 부담

개발조사

대 중남미 기술협력사업 중에서도 개발조사의 비중은 낮다. 2004-2007년 기간 동안 총 4건에 불과했다.

전문가, 의료단 파견

전문 인력은 주로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파견되는 것이 통상이며, 파견 기간은 짧게는 2-3개월부터 길게는 수년까지 다양하다. 파견 인력의 숫자는 매년 수 명 내외로 많지 않은 편이다.

해외봉사단

2007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 에쿠아도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5개국에 256명의

KOICA봉사단(KOV)이 1-2년 기간으로 파견되었으며, 이밖에도 협력의사, 협력요원 60여 명이 30개월 기간으로 파견되었고, 연 10명 규모의 NGO봉사단과 40명 규모의 정보통신부 해외인터넷 봉사단도 파견되었다. 2008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봉사단이 파견되어 활동 중이다.

긴급원조

대지진, 허리케인, 열대성 폭우 등 자연재해와 관련, 해당국 정부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NGO 지원

중남미에서 NGO 지원은 타 지역과 비교해 저조한 편이다. 2004-2007년 기준 KOICA 대 중남미 사업의 0.1% 정도로서, 볼리비아 미혼모 및 어린이보호를 위한 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한국국제봉사기구(KOV) 지원 한 건에 불과했다. 미미한 NGO 지원규모는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KOV지원 한 건에 그칠 계획이다.

다자간 기구를 통한 지원

2007년 KOICA의 다자간 기구 지원 사업은 전무했으며, 2008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¹⁴⁴⁾ 이외에는 외교통상부가 연간 80,000불 규모로 미주기구(OAS) 선거감시단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¹⁴⁵⁾ KOICA가 UNDP, UNIDO, WTO, ASEAN, AU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지역에 비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은 공동연수과정¹⁴⁶⁾이 주로서, 한정적이다.(Box 4-10 참조) 연수를 제외하고는 다자간 기구의 역량강화를 위한 컴퓨터, 차량 등 소모품과 현금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와 같은 공동사업 발굴이나 추진은 전무한 실정이다.

〈표 4-4 2004-2006년 KOICA의 다자기구 물자 및 현금지원〉

년도	기구명	지원액(\$)	내역
2004	미주기구(OAS)	104,834	사무기기 지원
2005	미주기구(OAS)	111,739	사무기기, 차량 지원
2006	미주기구(OAS)	97,468	중미지역 아동을 위한 컴퓨터 보급사업에 대해 컴퓨터 지원
2006	중남미 통합연합(ALADI)	27,370	사무국 현금지원

자료: KOICA 공식통계

144) KOICA (2008), 2008년 대외무상원조 사업추진계획

145) 양자간 ODA 실적 및 계획(재정경제부 자료)

5. 현행 대 중남미 무상원조사업의 개선필요사항 및 향후 추진방안

지금까지 중남미의 주요 개발성과 및 과제와, 이에 대한 선진공여국의 노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지원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미국, 스페인, 일본, 스웨덴 등 선진 공여국들이 중남미 지역에서 협력대상국을 전략적으로 선정, 원조를 집중하고, 또한 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 자국만의 비교우위를 적극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대 중남미 지원 사업은 체계적인 전략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렇다면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이고, 향후 대 중남미 원조사업 추진방안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정리해 보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 중남미 지원의 방향성 확립을 통한 원조사업의 일관성 확보 및 효과성 제고

대 아프리카 지원의 증대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남미에 대한 ODA의 규모와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선진 공여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원조는 최근 몇 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 왔고, 다양한 분야와 사업형태로 그 내용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이루어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대 중남미 원조의 비중을 15%에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으며, 여기에 우리나라 전체 ODA의 대폭 증대를 감안하면 한국의 대 중남미 무상원조의 규모의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 중남미 지원 사업은 총괄적인 지역 규모에서의 전략 없이, 방향성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중남미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 방향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통한 탈 빈곤, BHN해결, 거버넌스 증진 등 우리의 가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많은 범주를 포함시킴으로서 정책적인 초점 없는 원조사업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원 분야의 분산화를 낳아, 그러지 않아도 양적으로 적은 우리 원조의 효과성을 한층 더 저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놓고 볼 때 우리의 대 중남미 원조는 ICT(26%), 보건의료(22%), 행정제도(19%), 교육(11%) 등 우리만의 비교우위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는 전략 분야도 이에 대한 세부 방침도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추진되어 왔다. 미국, 스페인, 일본, 스웨덴 등 선진 공여국은 자국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해 40-50%의 집중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아직 원조의 규모가 타 공여국에 비해 월등히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원조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원조사업의 목표를 전략적인 면에서 새로이 점검, 수립하여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일관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이 지역 국가 대부분이 2000년대 고속경제성장을 계기로 달성한 상당수준의 개발성과와, 이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우선 개발과제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한 '빈곤퇴치'라는, 모든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 지역만의 특수성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중남미 지역은 개발도상 지역 중에서 비교적 양호한 개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BHN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을 이루어왔다. 앞서 2장에서 각 분야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 협력에 있어 중남미 지역의 최대의 특징은 아프리카 등 타 개발도상지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경제지표와 사회개발 성과로서, 이를 통해 인간의 기본욕구충족(Basic Human Needs: BHN)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점이다. 아직 개선점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남미 지역 대다수 국가들이 최근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LMICs 혹은 UMICs의 범주에 포진하는 등 비교적 고소득 수준을 달성했으며, 또한 빈곤인구의 감소율, 기초교육 보급률, 기본적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등 여러 가지 기초지표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오늘날 중남미 지역 최대의 문제는 아프리카처럼 단순한 빈곤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불평등과 여기서 파생되는 교육, 보건·의료 분야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에서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향후 더 많은 발전을 위한 정치, 사회, 경제적인 바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남미 지역의 특수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조사와 정책논의를 거쳐, 그동안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온 우리 지원을 이제 좀 더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략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수립된 목표에 따라, 그 다음으로는 이에 부합하는 중점 지원 분야 1-2개를 선정, 이에 대한 집약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현재 가용 자원, 인력, 기술력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 범위 내에서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점지원 분야의 선정에 있어서는, ①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인지, ②우리가 지금까지 중남미 지역에서 쌓아온 노하우가 충분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는지, ③앞서 제 2장에서 살펴본 중남미 지역의 분야별 개발과제와, 이에 대한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 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 중남미 원조의 목표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④타 선진공여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지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이 지역에서 어떠한 분야가 중요하다고 해서, 혹은 우리의 주력분야라 해서 결정하기 보다는 지역의 필요(needs)와 우리의 비교우위 및 수급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HN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중남미 지역의 현재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거버넌스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상당한 액수의 지원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이 분야 지원액의 70%를 외교부 차량 지원 등 단순 소모품 구입에 지출해 왔고, 연수사업도 무역정책, 수출진흥 혹은 외교관 연수 등 유기적 연관성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행정제도를 우리의 주력분야로 추진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분야를 어떻게 우리의 주력 분야로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전략적인 논의와 심도 깊은 정책적 고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중점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의 비중을 대폭 증강하고, 프로젝트 사업, 물자지원, 기술협력 등 다각도의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 우리의 인력, 자원, 기술력의 가용을 최대한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비 중점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협력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거나 다자간 기구, 지역공동체 혹은 NGO 등을 선정,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들은, 교육, 보건·의료, 재난 구호 등 자국의 비교우위가 아닌 분야에 대해 UNDP, UNICEF, WHO, PAHO, GFATM, OAS 등을 통한 우회 혹은 공동 지원을 함으로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NGO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의 비중도 점차 늘려 가고 있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2) 협력대상국의 '선택과 집중'의 원칙 강화

우리나라 중남미 협력대상국은 현재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보다 59배, 일본보다 14배가 적은 액수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협력대상국 수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원조전략, 국민소득, 인구, 경제수준 등 여러 제반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 공여국과 우리를 단순한 수치 하나만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30-32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분산화 된 현행 원조체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우선과제이며, 이 중 10여개 국가들에 대한 연간 10-20만 불 이하의 소액지원 역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협력대상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원칙을 좀 더 강화해 나감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은 근간 우리 ODA정책의 기본이 되어왔지만, 이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중남미 지역에서는 필수적이다. 규모가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도 아직 아시아, 아프리카에 비해 ODA의 절대적 액수가 아직도 적은 반면, 지원대상국가의 수는 비등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거리상의 이유로 타 지역에 비해 교류가 적어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노하우가 아직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 중남미 지원액의 지속적인 하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선진공여국들이 원조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가장 먼저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원조대상국의 수를 최대한 제한하고, 이들에 대해 원조의 집약도를 높이는 것임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우리의 가용능력 및 원조규모를 고려할 때, 각종 프로젝트 사업, 기술협력사업 등 다각도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주요협력대상국의 숫자는 3-4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 필요한 경우 다자간 기구 및 NGO를 통한 우회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양자간 지원의 비중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점협력국은 현행 우리나라 무상원조 중점협력대상국인 과테말라, 페루, 파라과이 3국을 중심으로 하거나, 향후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들로 구성할 수도 있다. 중점협력국 선정에 있어서 고려될 요소는 ①개발의 필요 정도, ②경제·사회 개발 현황, ③우리와의 전통적 관계, ④향후 경제, 정치, 문화적 협력의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선정된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국별원조전략(CAS)을 통해 지원하고, 인프라 건축 등 고비용의 프로젝트사업, 기술사업 등을 증강, 집약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물자지원보다는 기술협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국별 방식보다는 지역 차원에서의 광역적인 접근을 추구하여 이들에 대한 개별적 양자간 지원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강화는 중남미 지역에 대해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가지고 있는 자원, 기술력, 전문성을 집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최대한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별지원전략에 맞춰 각 중점협력국의 특수 상황과 개발 니즈(Needs)를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개별 사업간 유기성을 도모하고 현지의 필요에 부응하는 결과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남남·삼각협력의 활성화 및 한-지역통합체, 다자간기구, NGO 협력관계 활용을 통한 연수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KOICA의 전체 초청연수 참여 인원 중 중남미 지역의 참가인원과 소요사업비는 전체 지역 연수사업의 통상 8-10%에 불과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지역은, 우리와의 언어·문화적 장벽과 지리적인 거리 때문에 기술협력의 비중이 통상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비해 상당 수준의 경제·사회 발전을 이뤄낸 이 지역에서는, 인프라 구축이나 물자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전수 차원에서 기술협력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인적교류의 양적인 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연수방식의 질적 개선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 중남미 연수사업에 있어서 일차적인 장애물은 한-중남미 간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과, 이에 따라 1-2주간의 국내초청연수가 결과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이었다는 점에 기인한바 크다. 따라서 향후 대 중남미 연수사업의 양적인 확대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타파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칠레 공동현지연수와 같이 남남협력을 활성화시켜 기존의 대 중남미 연수사업의 장애물로 지적되어 오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연수사업의 양적 확대를 꾀하는 한편, 현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의 단기간 연수사업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지역은 어느 타 지역에서보다도 공통의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통합의 노력이 활발했던 만큼 향후 남남·삼각협력의 효용도가 높으며, 이를 우리의 연수사업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양자간 협력에 바탕을 둔 제3국 연수 등과 같은 전통적인 남남·삼각협력의 방법이 활용될 수도 있으나,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온 SICA나 Mercosur와 같은 지역통합체를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 많은 중남미 지역공동체 중 SICA, Mercosur는 우리와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SICA와는, 2002

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대화협의체 뿐 아니라, 이들 회원국은 우리나라 대 중남미 무상원조의 틀로서 주요 협력국으로 등재되어 인프라, 물자지원, 기술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아왔다. 하지만 이들과의 무상원조사업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SICA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모든 지원이 개별 국가로 이루어지는데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SICA 회원국간 네트워크와 이 지역에 대한 자체적인 노하우 및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SICA나 Mercosur는 회원국 간 언어, 문화, 사회, 정치상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협력에 대한 의지도 높다. 다시 말해서 상기 회원국 간의 협력관계를 우리나라의 무상원조사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5년여에 걸친 협력관계로 공고한 파트너십이 다져져 있는 지금, 이러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한-지역통합체간 파트너십을 모색,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남·삼각협력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중미 지역에서는 SICA를, 남미 지역에서는 Mercosur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통합체의 회원국 중 1개의 거점국을 선정, 현재 KOICA가 다른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협력 사업을 거점국에서 총괄, 실시하는 삼각협력의 형태를 구축해 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국내초청연수를 거점국 현지에서 총괄 실시하고(제3국 연수), 역내 제3국 전문가 파견을 지원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통해 제반비용 절감을 통한 연수사업의 양적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질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연수사업은 한-칠레 공동연수, 그리고 몇몇 국제기구와의 공동연수를 제외하면 이 지역의 특성에 맞추었거나 혹은 지역공동체 및 다자간기구, NGO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활용할 여지는 전무한 채, 일원적이고 일방적인 연수만으로 이루어져있다. 최근 몇 년간 KOICA가 중남미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공동연수사업은 OAS, FEALAC, APEC 등이 회원국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선정, 추천하면 KOICA가 관련 비용을 대고 연수과정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시 말해 이들 다자간기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장벽 극복 차원에서 이 지역 개발협력에 관해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다자간기구, NGO들과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전문성과 이 지역만의 언어, 문화적 특수성 수용을 통한 연수사업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 론

중남미 지역은 지난 몇 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에 힘입어 개발도상지역 중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의 개발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퇴치, 소득불평등 타파, 교육의 질적 개선, 소외지역 의료서비스 확대, AIDS/HIV 확대 저지, 공공행정, 사법체제의 효율성, 투명성 강화, 여성과 원주민에 대한 기회의 확대, 마약퇴치 등,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개발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이 지역의 현 주소이다.

미국, 스페인, 일본, 스웨덴을 위시한 선진 공여국들은, 자국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의 개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들 공여국 모두는, 현재 대 아프리카 원조의 확대에 밀려 대 중남미 원조의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스웨덴은 중점지원분야인 마약퇴치와 민주주의 분야에 전체의 40-50% 수준의 원조를 집중하고 있고, 스웨덴은 3개 국가에만 직접 지원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자간 기구를 통한 우회지원을 택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스웨덴은 NGO와 다자간 기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원조 방식을, 일본은 언어, 문화, 사회적 공통점이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 이를 적극 활용한 남남협력과 광역협력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원조는 이들 선진 공여국들과는 달리, 비중면에서 최근 몇 년간 상승 기조를 이어왔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중남미 지역이 우리나라 ODA의 비우위적 위치에 있었던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진전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중남미 협력관계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10년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선진공여국의 대열에 들어서면, 이에 걸맞는 우리 원조의 양적, 질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GNI대비 ODA 규모를 2007년의 0.07%에서 2015년 0.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2015년 대 중남미 무상 ODA의 규모는 2007년보다 7배 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대폭 증강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버금가는 질적인 향상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본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도되었다. ODA의 대폭 증강을 앞에 두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대 중남미 원조를 정리해 보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이 지역국가의 개발성과 및 과제를 알아보고, 다른 선진공여국이 이들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상기 방안의 골자는 협력대상국 선정, 지원 분야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근간인 '선택과 집중' 원칙을 좀 더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중남미지역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양호한 경제, 사회 발전 수준을 이룬 것을 감안, 기술협력의 양적, 질적 강화를 통해 이들 국가들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원칙과 이에 관한 논의는 중남미 지역 뿐 아니라 향후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체계 정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상기 방안을 실제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사실상 가장 큰 한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전체 ODA의 틀이다. 특히 본서에서 누차 지적한 원조의 파편화 혹은 분산화 문제는 현 우리나라 ODA의 전반적인 틀과, 사업 발굴, 수행, 평가 단계의 실행 체계 개선 없이는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틀과 시스템이란, 단순한 정책 수립 및 추진상의 것 뿐 아니라 실제 사업 발굴 과정에 있어서 현지 공관의 개입이 큰 부분, 혹은 여러 가지 전략상의 이유로 일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수준에서 정해진다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개발협력 및 정치·외교 분야 내의 정책적 컨센서스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정치, 경제적인 수단으로서의 개발협력이 아닌, 우리의 역량과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ODA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상의 컨센서스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방안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구, 실무 레벨에서의 추가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서는 개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선택과 집중'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정책 로드맵 설정과 추진, 그리고 남남·삼각협력의 활성화와 지역통합체 활용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조사와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SICA와 Mercosur 회원국 중 거점국이 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고, 해당국 KOICA 사무소의 규모 및 권한 확대 등, 이를 실제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 방안은 우리나라가 선진공여국으로 탈바꿈하는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안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인력, 기술력 의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수립된, 한시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방안은 우리의 양적, 질적 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적절히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방안으로 우리의 대 중남미 원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추후 단계에서는 프로그램형 접근을 시도하고 섹터별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우리 원조를 선진화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매일경제 (2008), '한국 최대 무역흑자시장: 중국→중남미', 2008년 9월 18일
- 외교통상부 (2008), 중남미 주요 자원 현황, 중남미지역협력과
- 손혁상 (2007), '나눔을 국정너머로 "주요 원조 공여국 연재 4: 스페인"', 참여연대 ODA소식
- 한국국제협력단 (2006), 2007-2009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
- 한국국제협력단 (2007), 2008-2010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
- 한국국제협력단 (2008), 2007 연수과정 종료평가보고서 I-IV
- Ackerman, S. and Lomborg, B. (2007), *Latin America's Corruption Challenge*, published on <http://www.project-syndicate.org>, Copenhagen: Copenhagen Consensus Center
- AECI (2003), *Programa de Cooperación Regional con Centroamérica*, Madrid: AECI(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 Cecchini, S (2005), *Oportunidades digitales, equidad y pobreza en América Latina: ¿Qué podemos aprender de la evidencia empírica?*, Santiago: UN
- ECLAC (2008), *Economic Survey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Macroeconomic Policy and volatility*, Santiago: UN
- ECLAC (2008), *Social Panorama of Latin America 2007*, Briefing Paper, Santiago: UN
- European Commission (2002), *Latin America Regional Strategy Document 2002-2006 Programming*, Bruxelles: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 (2007), *Latin America, Regional Programming Document 2007-2013*, E/2007/1417, Bruxelles: European Commission
- Finquelievich, S. (2003), *IC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aper presented at World Summit of Cities and Local Authorities on the Information Society, Lyon, 4-5 December 2003
- Government of Japan (2005), *Japan's Medium-Term Policy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3),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harter*, August 29, 2003
- JBIC (2007), *Annual Report 2007*

JICA (2006), *Evaluation by Third Party Thematic Evaluation on South–South Cooperation*, Final Report, by Kaihatsu Management Consulting INC.

JICA (2007), *Annual Report 2007*

JICA (2008), *To Live With Water, JICA's Approach To The Water Resources Sector*

Medeiros, M. and Costa, J. (2008), 'Is There a Feminization of Poverty in Latin America?', *World Development*, Vol.36, No.1, pp115–127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2007), *Changing Lives, 2007 Annual report*, Washington D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2005), *The Master Plan for Spanish Cooperation 2005–2008*, Madrid: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2007), *Seguimiento del PACI 2006*, Madrid: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2008), *Guía Técnica para la puesta en marcha de los nuevos instrumentos de cooperación*, Madrid: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OECD Development Centre (2006), 'Democracy in (Latin) America', *Policy Insights*, No.27, September 2006, Paris; OECD

OECD/DAC (2005), *Peer Review of Sweden*, Full Report, Paris: OECD

OECD/DAC (2006), *Peer Review of the United States*, Full Report, Paris: OECD

OECD/DAC (2007), *Peer Review of Spain*, Full Report, Paris: OECD

Rocha Menocal, A. (2008), *Lessons from Latin America: Donors, Democracy and Development*, posted on June 13, 2008 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blog website (<http://blogs.odi.org.uk>)

Rogers, P. (2002), *Water Governance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ashington DC: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Shepherd, G. (1998),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World Bank View*, presented for Foro Iberoamericano sobre el Combate a la Corrupción, June 15–16, 1998, Santa Cruz de la Sierra, organized by AECI(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SIDA (2006), *Centralamerica and the Caribbean*, In Brief, Stockholm: SIDA

SIDA (2006), *South America*, In Brief, Stockholm: SIDA

SIDA (2006), *Annual Report 2006*, Stockholm: SIDA

SIDA (2007), *Annual Report 2007*, Stockholm: SIDA

SIDA (2007), *Central America*, SIDA Regional Report 2006, Stockholm: SIDA

Sunaga, K. (2004), *The Reshaping of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Charter*, FASID Discussion Paper on Development Assistance No.3, November 2004

Swedish Government (2003), *Shared Responsibility: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Government Bill 2002/03:122, presented to the Parliament on May 15, 2003, Stockholm: Swedish Government

Swedish Government (2004), *Sweden's Global Development Policy*, Government Communication 2004/05:4, presented to the Parliament on September 9, 2004, Stockholm: Swedish Government

Swed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07), *Focused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Memorandum 27 August 2007, posted on website <http://www.regeringen.se>

Swed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07), *Guidelines: decisive factors for country focus*, Memorandum 14 August 2007, posted on website <http://www.regeringen.se>

Teichman, J. (2008), 'Redistributive Conflict and Social policy in Latin America', *World Development*, Vol.36, No.3, pp446–460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7), *The World in 2007*,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on website: http://www.economist.com/media/pdf/Democracy_Index_2007_v3.pdf

UN (2005),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erspective*, NY: UN

UN ICT Task Force (2005), *Measuring ICT: the Global Status of ICT Indicators, Partnership on Measuring ICT for Development*, NY: UN

UNDP (2004), *Democracy in Latin America, Towards a Citizen's Democracy*, NY: UNDP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ith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NY: UNDP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Thematic Regional Paper: Latin America*,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Occasional Paper, NY: UNDP

UNODC (2007), *Annual Report 2007*, Vienna: UNODC

UNODC (2007), *Crime and Development in Central America*, Vienna: UNODC

UNODC (2008), *Annual Report 2008*, Vienna: UNODC

US Department of State (2007), *US Department of State/USAID Joint Strategic Plan 2007–2012*, Washington DC: US Dep. of State

US Department of State (2008), *International Affairs FY2009 Budget Justification*, Washington DC: US Dep. of State

USAID (2006), *Policy Framework for Bilateral Foreign Aid*, Washington DC: USAID

USAID (2007),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elected Economic and Social Data*, Washington DC: USAID

USAID (2007),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Disaster Preparedness and Mitigation Programs*, Factsheet

USAID (2007),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Hurricane Season 2007*, Factsheet

USAID (2007), *Overview of Development Assistanc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Factsheet

USAID (2008), *Testimony of Henrietta H. Fore, US Director of Foreign Assistance and Administrator of USAID*, FY2009 Budget Hearing for Foreign Assistance, Sub-Committee on State, Foreign Operation and Related Agencies, Committee on Appropriations of United States Senate, March 4, 2008, posted on website: <http://www.usaid.gov>

USAID (2008), *U.S. Foreign Assistance for the 21st Century*, a proposal from the Modernizing Foreign Assistance Network, June 1, 2008(on website: <http://www.usaid.gov>)

Dobriansky, Jr. P. (2006), *Democracy in Latin America: Success, Challenges and the Future*, Statement of Under Secretary for Democracy and Global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before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June 21, 2006

Valente, M. (2008), *Environment–Latin America: Unsustainable Development*, Inter Press Service, 2008.10.01

Veillette, C. (2007), *Foreign Aid Reform: Issues for Congress and Policy Op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November 7, 2007, prepared for members and Committees of Congress

World Bank (2008), *America Latina and the Caribbean Regional Brief*, on website: <http://www.worldbank.org>

World Bank (2008), *Regional Factsheet From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on website: <http://www.worldbank.org>

World Bank (2008),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 Washington DC: World Bank

웹사이트

<http://fealac.mofat.go.kr>

<http://www.aeci.es>

<http://www.eclac.cl>

<http://www.humanrightswatch.org>

<http://www.iadb.org>

<http://www.jica.go.jp>

<http://www.koica.go.kr>

<http://www.oecd.org>

<http://stats.oecd.org/WBOS>

<http://www.peacecorps.gov>

<http://www.regeringen.se>

<http://www.sica.int>

<http://www.sida.se>

<http://www.state.gov>

<http://www.transparency.org>

<http://www.undp.org>

<http://www.unifem.org>

<http://www.unodc.org>

<http://www.usaid.gov>

<http://www.worldbank.org>

<http://www.wwf.org>

약 어

약 어	정식명칭	한국어역
ACS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카리브국가연합
AECI	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스페인개발협력청
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	중남미통합연합
ANCOM	Andean Community	안데스공동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CARICOM	Caribbean Community	카리브 공동시장
EC	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
ECLAC	(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UN) 중남미경제위원회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EALAC	Forum For East Asia – Latin America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Group	미주개발은행
IICA	Instituto Interamericano de Cooperación para la Agricultura	미주농업협력기구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세계자연보전연맹
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국제협력은행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JOCV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일본해외봉사단

〈표 계속〉

약 어	정식명칭	한국어역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천년도전법인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천년개발계획
MERCOSUR	Mercardo Comun del Sur	남미공동시장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DAC	OECD/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개발원조위원회
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PAHO	Pan-American Health Organization	범미 보건기구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학업성취도 조사결과
SEGEPLAN	Secretaría de Planificación y Programación	과테말라 경제기획청
SICA	Sistema de la Integracion Centroamericana	중미통합체제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스웨덴국제개발협력기관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유엔산업개발기구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유엔마약범죄기구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청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WF	World Wildlife Fund	세계야생생물기금

연구자료 정책연구 2008-11-151
ISBN 978-89-88133-81-1 10320

한국의 대 중남미 무상원조방안 연구

발행	2008년 12월
편집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우: 461-833)
전화	031)7400-114
팩스	031)7400-655
홈페이지	www.koica.go.kr
인쇄	비전테크(주)

비매품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함